

사회과학논문집

제 16 호

2003년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사회과학논문집

제 16 호

차 례

[활동소식]

P 1 ~

[심포زم]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미국식 《세계화》와 조선반도—

P 5 ~

발언자—고연의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교수)
오민학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강사)
태석신 (상공연합회 경제연구실실장)
사회자—강일천 (사협중앙 상임리사)

[론 문]

P 3 5 ~

일본측에서 본 조일국교정상화의 의미

조민기 35

비대칭의 국제정치력학의 새로운 지평
—조미, 조일외교관계를 중심으로—

전철남 47

남조선정권의 성격에 관한 재연구

최용해 55

외세의 반통일침략책동을 이기는 힘은 민족공조

강민화 66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관계구도에 대한 고찰에 기초하여—

《타프트-가즈라비밀협약》과 미제의 아시아정책

백종원 73

조선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대한 몇가지 평가(18 보)

사공준 80

—치산치수사업을 중심으로—

주체의 해외교포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 대한 사상리론연구(3)

손지원 93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소식 1

《2003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
성대히 진행

2003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가 지난 2월 23일 東京芸術劇場 大会議室에서 진행되었다.



금년도 학술보고회는 조국과 동포사회를 둘러싼 정세가 류레없이 긴장되는속에서도 사협회원들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82명이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벌어졌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II - 《미국식 〈세계화〉와 조선반도》-라는 제목밑에 심포쥘이 진행되었다.

사협중앙 강일천상임리사의 사회밑에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 고연의교수,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오민학강사, 상공련합회 경제연구실 태석신실장이 각각 기초보고를 하였다.

(* 보고내용은 본 논문집에 게재되어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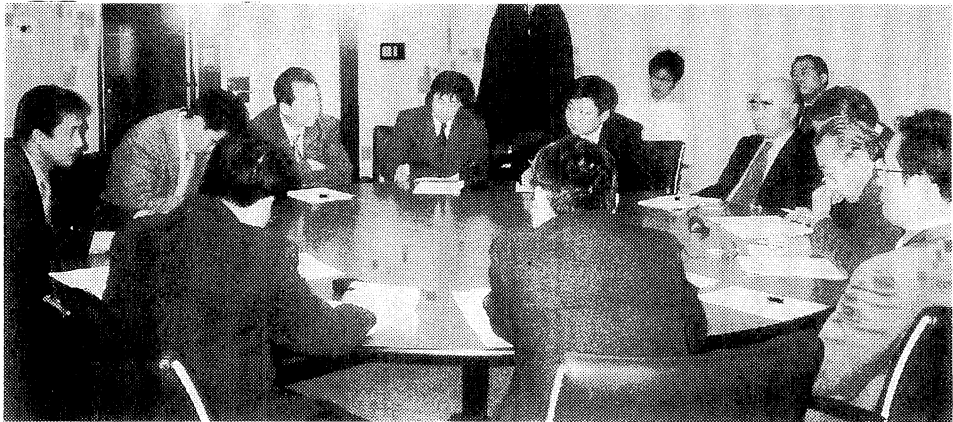
이어서 회장내에서 집계된 질문에 기초하여 매 보고자들이 보충발언을 하였으며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심포슘에 이어 정치-철학, 경제-경영, 역사-어문학의 3개 단위로 나누어 분과별연구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정치, 철학〉분과에서는 동포들의 관심사로 되어있는 조미, 조일관계, 조국통일과 남조선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제, 경영〉분과에서는 공화국의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를 단독의제로 정하여 집체토론을 진행하였다.

〈역사, 어문학〉분과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과 까쓰라-타프트회담의 배경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학술보고회에 이어 사회과학자들의 교류를 깊이는 간담회가 가져졌다.

간담회는 사협의 초창기를 개척해온 1세대 사회과학자들과 오늘날 주력으로 등장한 새세대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한데 어울려 친목을 깊이는 의의깊은 마당으로 되었다.

《사협중앙리사회 제 1 6 기 제 3 차회의 확대회의》 진행

지난 2월 23일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리사회 제 16 기 제 3 차회의 확대회의가 東京芸術劇場 大会議室에서 진행되었다.

김화효회장을 비롯한 중앙상임리사들과 조대, 교토, 오사카, 효고지부 등에 소속하는 중앙리사들, 지명소집자 계 31 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사협중앙 상임리사 보선에 관한 제의가 있었으며 조선대학교의 강성은씨 (력사지리학부 학부장) 와 리평태씨 (경영학부 강좌장) 의 보선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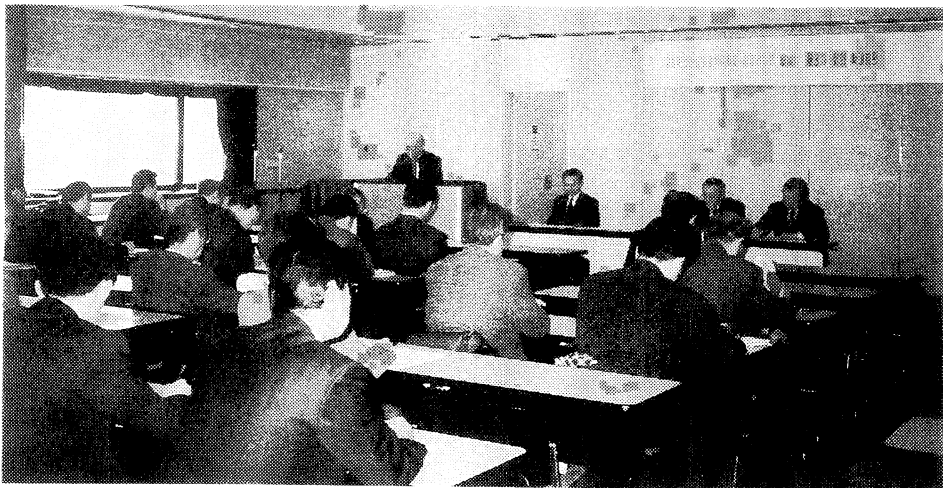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협중앙리사회보고를 김화효회장이 하였다.

이어서 조선대학교 새 세대 교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발족된 〈사회문제연구회〉 박재훈대표 (경영학부 교원) 와 사협교토지부 류구채상임고문이 각각 토론하였다.

총련중앙 인사를 배진구 문화선전국장이 하였다.

그는 조국과 총련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복잡한 오늘의 상황에서 사협이 지닌 사명이 어느때없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강조하면서 애족애국운동발전을 사상리론적으로 안받침하는데서 더 큰 활약을 할데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올해에 사협사업에서 눈에 띄게 실적을 올림으로써 공화국창건 55돐을 빛나게 맞이할데 대한 사업방향과 과업을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조미관계를 과학적시점에서 논증

2003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 진행

지난 2월 23일 오후 東京芸術劇場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사협중앙 김화효회장을 비롯한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과 동포들 82명이 참가하였다.

이라크에 대한 사찰문제와 더불어 날로 긴장해 지는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국제적관심사로 되어 있는 점에 반영하여 학술보고회 제1부에서는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미국식 〈세계화〉와 조선반도-》라는 제목으로 심포슘이 있었다.

사협중앙 강일천상임리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심포슘에서는 먼저 3명의 사회과학자들이 기

조보고를 하였다.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연의교수는 《현 시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보고에서 《세계화》의 어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미국식 〈세계화〉의 문제점을 력사적으로, 본질적으로 논박하였으며 《미국식 〈세계화〉와 조선반도경제》라는 보고를 한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오민학강사는 미국식 《세계화》의 규정제안을 한데 기초하여 그 경제정책과 초래된 결과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인 자료와 수자를 놓고 밝혔다. 또한 상공연합회 경제연구실 태석신실장은 보고 《유니라텔라리증증말의 서곡》에서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단독행동을 비판하

고 그를 저지파탄시키고 있는 우리 나라의 원칙적이며 단호한 입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조보고는 4월초에 발행되는 《사회과학논문집》 제16호에 게재)

심포슘에서는 기조보고에 이어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학술보고회 제2부에서는 분과별연구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정치, 철학분과와 경제, 경영분과 그리고 력사, 어문학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분과연구토론회는 1부의 심포슘의 제마를 이어 의도적으로 발표된

문을 준비하거나 집체토론을 하는 등 지난 시기와 다른 특색 있는 토론이었다.

학술보고회에서는 분과별연구토론회의 진행정형이 통보되었으며 그후 간담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는 시대의 요구와 조성된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조선반도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정세를 과학적으로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의 있는 마당이였다.



2003년 3월 3일
《조선일보》

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올해에

눈에 띄는 성과를

중앙리사회 확대회의

이날 오전에는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리사회 제16기 제3차회의 확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뜻 깊은 지난해 2002년도의 사협사업을 총화하고 새해 2003년도 목표와 방침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사협은 지난 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절, 조일평양선언발표 등 력사적인 환경속에서 사협조직을 강화하고 그 면모를 개선하며 사회과학자들앞에 나선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신한 사업을 벌려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이룩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사협은 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올해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태세를 갖추어 명실공히 눈에 띄게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총련중앙 배진구 문화선전국장이 메시지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총련과 사협이 직면하고 있는 류폐없이 간고한 상황속에서 애국애국운동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조미의 문제에 해답을 주고 가치 있는 리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사협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2003년 3월 4일 《상공신문》

2003年度社協學術報告會

米國式“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朝鮮半島について

2003年度の社会科学者協会學術報告會(社協主催)が2月23日、東京芸術劇場で開かれ、會員をはじめ同胞、関係者ら約90人が参加した(写真)。

1部のシンポジウムでは「朝鮮半島の昨日、今日、そして明日」の第2弾として「米國式“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朝鮮半島」をテーマに3人のパネラーが報告。社協中央、姜日天常任理事の司会で、朝鮮大学校外國語学部・高演義教授が「米國の世界戦略と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同大学校政治経済学部・吳民學講師は「米國式世界化と朝鮮半島」、商工連經濟研究室・太錫新室長は「核危機」解決過程は東北アジア新秩序確立の契機」と題して報告し、活発なディスカッションを行った。

2部は、3つの専攻分野で分別研究討論會が開かれた。

심포즘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 II

—미국식 《세계화》와 조선반도—

(문제제기)

사회자 : 지금부터 2003년도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의 학술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심포즘 《조선반도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의 사회를 담당하는 강일천입니다.

파네리스트는 한가지씩 질문을 하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학자협회에서는 착잡한 정세하에서 이를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치렬한 외교적공방전의 추이만이 아니라 조금 더 역사적, 사상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 흐름과 포괄범위에 있어서도 폭넓으면서도 깊이있게 판단분석해 보자는 의도아래 오늘 전문가선생님들을 모시고 조선반도의 정세추이를 바라보기 위해서 《미국식 〈글로벌리제이션〉과 조선반도》라는 제목으로 심포즘을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태석신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유니라테라리즘〉 종말의 서곡》이라는 제목은 팔목할만합니다. 〈통일조선과 동북아시아신질서〉라는 부제목이 제기되어 있고 특히 최근시기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치적대결이 치렬한 가운데 공화국정부를 확고히 지지하는 분들은 정전협정을 포기한다는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공화국이 NPT에서 꼭 탈퇴해야만 했는가, 좀더 남아 있었으면, 또 달리할 방법은 없었는가, 그런 점과 결부시켜서 오늘의 보고의 에센스 (진수)가 될만한 이야기를 먼저 몇마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석신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태석신 : 현재 상공연합회 경제연구실에서 일합니다.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화국이 핵불확산조약에서 탈퇴하고 제가 알기에 IAEA가 2월12일에 특별리사회를 열고 이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재는 각 리사국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실무수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약탈퇴라는

것이 조약에 명기된 채약국의 권리입니다.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締約國は、この条約の対象である事項に関連する異常な事態が自国の至高の利益を危うくしていると認めるとき、その主権の行使としてこの条約から脱退する権利を有する」

말하자면 조약에 명기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결과 제재다, 이렇게 되면 조약자체가 성립을 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폭론이 통하고 있다고 할까, 법적으로 검토하면 응당한 현상인데 이것이 미국의 유니라테라리즘, 단독행동주의라고 할까, 일방주의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서 탈퇴하게 되였는가 등 여러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보고에서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이란 제마가 설정되면 여러 측면에서 논할수 있는데 반드시 경제적인 각도에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하여 논해야 할것입니다. 글로벌리즘이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인 각도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의 흐름이 그것이 바람직한것인지 어떤지, 저는 경제적글로벌리즘을 아메리칸스탠다드 (미국식기준) 의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오민학선생님 부탁하겠습니다.

오민학 : 조선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서 사업하는 오민학입니다.

글로벌리즘을 보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상·정책적 측면, 다른 하나는 글로벌리즘이라는 현상과 그 결과로 초래되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상·정책적측면에서 볼때에 아메리카나이제이션=미국화라는 내용과 또 획일화되는 현상속에서 미국의 기준이 사실상 중심으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엔의 국제화와 AMF구상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특히는 조선반도에서 이 글로벌리제이션을 환영할수 있는가 어떤가, 이런 문제를 보고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글로벌리제이션은 사상·정책적 측면과 현상·결과적 측면을 구별해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하게 되였는지 이 말자체의 의미, 그리고 이 현상이 불가피한것인지 어떤지,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조선대학교 고연의선생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고연의 :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에 있는 고연의입니다.

저는 원래 조선을 비롯한 제3 세계 민족들의 운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족의 운

명과 관련되는 일이면 정치적인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문학적이건 예술이건, 장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랑전종결이후에 민족의 운명과 결부해서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의 문제의식이 90년대에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글로벌리제이션문제를 민족성문제와 결부하여 10여년간 제 나름으로 여러모로 탐구하여 왔습니다.

방금 코디네이터로부터 이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가고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제가 취급하려는것은 동서랭전이후 말하자면 미국의 일극지배책동시대의 글로벌리제이션현상을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영국의 녀성수상 테처, 미국의 레간대통령시대에 신자유주의정책이 나와서, 또 93년이었던가 리웅사밋트에서 이것이 키워드가 되어서 온세계에 퍼져나간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 부쉬가 등장하면서 온세계가 그야말로 부쉬란 이름을 단 배에 전체 인류가 타고 나락으로, 비참한 세계로... 너도 나도 죽자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매우 불행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불행한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바꾸는 돌파구가 없겠는가, (그것이)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회자 : 부쉬선장이 조종하는 글로발호선박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파넬리스트 세분께 20분내지 25분안으로 기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간에 질문용자를 드렸지만 거기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를 적어주시고 휴계시간에 저희들에게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휴계후 질문에 대한 보고자들의 대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운영을 위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보고 고연의선생님의 《현시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글로벌리제이션〉》이란 제목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보고)

—고연의선생님—

1. globalism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 과목과 같은 글로벌리제이션이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성과를 우리 운동에 어떻게 정확히 살리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문제세미, 국제관계론 그리고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기에 개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글로벌리즘, 이렇게 놓고 보면 이즘(-ism)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이즘들과는 차이가 난다는것을 알게 됩니다. capitalism, socialism 이런것은 카피탈이라는 자본에 대해서 가치부여를 하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그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개념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쏘셜 즉 사회라는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체계화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개념입니다. globalism이란 무엇인가? 글로브(globe)란 지구입니다. 지구를 내세우고 지구에 가치부여 한다는것이 도대체 다른 이즘들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편 globalization 은 에이존(-ation)이기때문에 현상으로 보고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로 전화되어 나가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개념화하겠는가 해서 마지못해 글로벌리즘이란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구주의, 세계주의라고 번역하겠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념보다 현상, 주의보다 전화, 변화(확대되어 가는지, 축소되어 가는지)어쨌든 에이존이라 하는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제이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니와 이것을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이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는 시기문제, 타임스판(time-span)문제가 있습니다. 500년전부터 이 글로벌리제이션과정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 즉 콜롬부스의 비서양세계, 제3세계와의 상봉, 그때로부터의 현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근대화론과 관련해서 100년~200년전부터의 현상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동서랭전후의 현상 즉 미국에 의한 일극지배론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 이렇게 타임스판을 잡아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문제의식의 출발점과 관련해서 오늘은 랭전후의 현상,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련해서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어떻게 《에이존》되어 갔던가 하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 오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리제이션은 경제면에서 제일 요란하게 선전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나라들이 저들의 자유시장경제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매개 민족경제를 부정하고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시장화, 시장원리주의에 립각한 이와 같은 흐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은 네오리베라리즘(neo-liberalism)입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1979년에 영국에서 대처수상이 나오고 80년에 미국에서 레간이 대통령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새롭게 제기된 정책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재정적자의 삭감,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등

시장의 힘을 확대시키는 반면에 조직노동자의 힘을 극도로 약화시키며 시장론리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끊임 없는 경쟁상태에 몰아 넣음으로써 그들의 단결과 련대에 썩기를 막으려는 전략적기도를 품고 있습니다. 결국 국경을 자유로히 넘나들면서 이동하는 자본의 세계화라는것이 매개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충돌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라는것이 클로바리제이션의 이데올로기적, 철학적, 이론적기초로 되어 있다는것입니다.

클로바리제이션은 또한 미국식부르조아민주주의의 강요라는 정치적표현이기도 합니다.

냉전후 돌연히 나온 미국의 어용학자 호란시스 후꾸야마가 《력사의 종말》이란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부르조아민주주의) 라는것은 오늘도 계속 그 어떤 정치제도에 의해서도 초월되지 않는 최고가치로 존재한다고 찬양하였으며 또한 안토니 레이크 (당시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 가 1993년 9월 21일 그 무슨 《확대정책》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미국식시장민주주의》가 금후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고 뇌짚렸습니다. 또한 그것이 앞으로 유일한 국제기준으로 된다고 선전했습니다. 미국식이 결국 국제기준으로 삼게 됨으로써 미국은 어떻게나 일국화세계를 실현하려고 노리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방법도 서슴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꼬쑈보사태, 유고슬라비아사태, 아프간사태에서 이러한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창하는 민주화라는것이 가령 구쑈련권, 동유럽에서 실시되어 가면 서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혼란을 가져 오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화가 아니라 비민주화현상이 련이어 나타나고 있다는것, 서유럽 (EU세계) 에서도 새로 2000만 실업자대렬이 발생되고 5000만명 빈궁자대렬이 등장하였습니다. 유럽의 《제3 세계》화라고 할가, 유엔이나 세계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가령 영국에서의 빈부의 격차는 서방세계에서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것은 마침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수준과 비슷하며 저메이커, 스리랑카, 에티오피아보다 더 심각하다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민주주의》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국제화와 결부된다는 론리적귀착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르조아정치가들자신이 례외없이 군사력과 결탁한 금융시장독재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결국 자본소유자의 독점물로 되고 마는것입니다.

민족에 따라 민주주의의 값이 다르다는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란 개념을 둘러 싸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허용되고 어떤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인정 안된다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권에도 《국경》이 있으며 조선사람의 인권과 일본사람의 인권의 보장도수는 확실히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같은 랍치문제라도 500만명 조선민족의 인권에는 일언반구도 언급 안되지만 단 5명의 일본민족의 인권에 대해서는 매일

과 같이 미디어를 통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선전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것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은 또한 정보, 문화분야에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사회주의의 좌절이후 미국식자본주의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조선을 비롯한 제3 세계의 개성적인 민족문화에 접하려고 하여도 그런 요구가 실현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르는곳마다에서 미국의 정보와 문화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정보산업시대라고 하는 오늘, 미국인구의 33%가 매일 인터넷에 접근할수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에서의 비율은 단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60억을 넘는 세계인구에서 인터넷사용자는 2%이며 압도적다수의 인류는 의연히 전기불도 없는 비문화적인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다는것이 현실입니다. 국제적십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는 약 50건의 분쟁이 일어 나고 있으나 그중 37건의 분쟁에 대하여서는 보도조차 안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도조종이 련이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오늘 지구상의 민족수만큼 다양한 언어들에 의해 창조되는 문화는 억압 당하고 오직 미국의 색깔을 띤 획일적인 문화만을 사람들은 강요 당하고 있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레로 들면 프랑스를 비롯한 EU세계에서 이제 할리우드영화가 압도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고 《비데올로지》란 새로운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데올로지》는 비디오와 이데올로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미국영화 《타이타닉》이 상영되면 곧 그것이 비데오화되어 전세계에서 동시적으로 민족별, 나라별 관계없이 다 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영화 《불가사리》에 접근하는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타이타닉》에 접근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문화분야에서도 압도적인 미국화현상이 석권하고 있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것은 그저 현상이 아니라는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매개 민족국가의 자주정치에 대한 도전이고 민족경제에 대한 도전이고 민족문화에 대한 도전인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획일화방향으로 흘러가고 획일화되면 될수록 차이화가 나옵니다. 차이화란 민족과 민족간의 차별, 배제현상을 말하며 그것이 왕왕 분쟁을 일으키게 되기 마련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개발은 대단한것이지만 프라스와 마이너스 양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의 흐름을 타고 오늘 과학기술의 발전은 핵무기를 수많은 만듦으로써 평화개념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인권을 해치는 유전자공학의 비상한 발전, 또한 불필요한것을 수많은 만들어 내고 유해물질에 의해서 지구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측면은 무시할수 없습니다. 오늘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군사적인 리유로 죽는것이 아니라 《과학의 힘》으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의 본질을 보는데서 중요한것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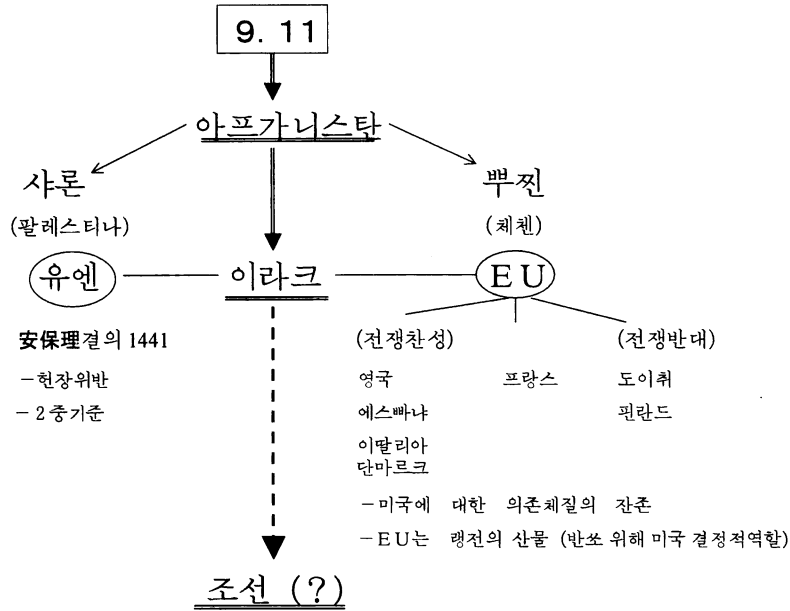
흐름의 기저에 무엇이 있으며 이 흐름에 누가 타고 있는가, 무엇이 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관련해서 하나는 서양중심주의문제, 또 하나는 프랑스어로 네가쇼니즘(négationnisme)이라고 하는 역사부인주의현상 두가지 측면을 아무래도 보게 됩니다.

서양중심주의의 현대적표현으로서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것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특히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는 일본화(Japanization)인것입니다.

9. 11 이후 핵선제공격이 새롭게 미국의 전략의 선택지로 등장함으로써 문제가 보다 비극적으로 전개되어 나갔습니다. 가령 《테로》 개념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 확대해석 이것으로 하여 수많은 민족국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것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디아는 파키스탄을 보고 테로국가라고 부르고 파키스탄은 인디아를 보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해방운동을 벌리고 있는 팔레스티나를 보고 테로리스트집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있으며 대학살만행이 오늘날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화된 세계란것을 우리 머리속에 이미지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9. 11 동시다발테로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 가고 이 아프가니스탄사태가 다음으로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에 의한 체첸사태의 폭력적수습에 대한 GO사인으로 되어 이스라엘의 샤론수상에게 팔레스티나민족대학살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치나 당구처럼 세계는 련달아 《미국화》 되어 갔습니다. 로씨야도 자기내의 민족문제를 안고 있기에 그것이 테로리스트집단이라고 개념화되면 로씨야로서는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서 대미협조로선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샤론은 나치스의 신봉자이기때문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프가니스탄사태가 그런 계기를 자기에게 마련해 주었다고 접수하고 있는것입니다.

다음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단제입니다. 이 이라크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엔도 미국의 인질로 사로잡혔고 EU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사회결의1441은 유엔헌장자체의 위반입니다. 특정한 나라(미국)를 위해 무력행사의 길을 열어 놓은 결의문이기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안보리사회에서 2중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이라크사태를 두고 EU는 전쟁찬성이요 전쟁반대요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혹시 단독이라도 미국이 이라크에 쳐들어 가면 그때 가서까지 반대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U라는것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최근에는 상당히 자주화되어 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내려 온 미국에 대한 의존체질은 아직 잔존하고 있고 원래 EU는 랭전의 산물입니다. 쏘련과의 대항상 미국이 유럽을 틀어 쥐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사태가 날카롭지만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화된 세계라는것을 이미지하여 그림을 참고적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조선에 가겠는지 어떤지, 이것은 다른 선생님들이 언급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결론으로서 글로벌리즘이라는것은 즉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의 새로운 변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즘이론은 제국주의자들이 제3 세계민족들을 수탈하는데로 수탈하다가 벽에 부딪쳐서 최후발악하는 그런 국제정치, 그런 세계경제, 그런 지구문화의 현상으로 규정지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벌어 지고 있는 글로벌리즘이론은 또하나 측면으로서 과거 다른 민족에게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미화분식하는 책동, 즉 역사부인주의의 흐름과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것이 특징적입니다. 역사부인주의도 민족적인 존재에 대한 배타주의입니다.

서양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역사외국현상이 치렬하게 벌어 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네오나치즘을 비롯하여 우익정당의 정치적진출 등을 배경으로 해서 그전에 공산당원이었던 사람들, 배반자들이 앞장에 서서 유대민족대학살사실과 히틀러의 가스실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권위있는 학회에서 과학논문으로 발표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그전에 일본공산당원이던 사람들이 앞장에 서서 조선민족강제련행이란 사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며 우리를 련행하다가 다음은 추방하려고 하고 추방하다못해 이제는 동화시키려고 민족적인 말살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부인주의의 흐름이 글로벌리즘이론의 흐름과 동시진행적으로 벌어 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3. 오늘의 그릇된 글로벌라이제이션부터 래일의 진정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globalization은 영어입니다. 프랑스어는 이것을 mondialisation이라 하는데 globe는 지구란 뜻이고 monde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구라는 이미지와 세계라는 이미지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건을 보면 프랑스어의 《mondialisation의 투쟁》이라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즉 《세계화의 투쟁》인데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의의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세계적으로 반글로벌라이제이션운동이 양양되고 있다는 사실,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반글로벌라이제이션운동이라는 것이 매우 양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저 한 민족국가에 피해 입고 있다고 해서 나쇼나리즘의 테두리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보적인류가 단결, 연대하여 펼쳐 나서는 국제적인 신글로벌라이제이션창조의 운동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기초우에서 세계화를 실현하자, 이런 구호인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호상연대, 매개 민족의 독자적인 생존방식에 대한 호상존중, 이러한 가치관이 새롭게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재일조선인문제의 종국적해결, 조일량민족의 역사적화해 등도 신글로벌라이제이션창조의 방향에서 해결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신문에 비교적 보도되는것으로 여러 나라 재계, 정계 우두머리들의 《세계화》책략회의인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다보스(Davos)에서 197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21세기 들어 브라질의 남쪽땅 포르토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 국제회의가 탄생하였습니다. 브라질로동당의 지도하에 있는 이 도시에서 3년전부터 《세계사회포럼》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NGO라든지 량심적인 정치가들, 학자들이 모여서 이번에도 제3차 포르토알레그레회의가 있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합니다. 오늘의 미국식세계화의 모순, 그리고 미국식세계화가 부쉬정권의 세계전략과 결부되면서 얼마나 악독하게 야만적인 형태로 벌어 지고 있는가 하는것을 규탄하면서 새롭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메히꼬 치아파스주에서 1994년 1월 1일 인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메히코혁명의 영웅 에밀리아노 사파타(Emiliano Zapata)를 신봉하는 농민들과 선주민족들로 구성된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에 의한 이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반대운동입니다. 《제4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이런 구호밑에 콜롬부스이후 500년 동안의 후과를 씻어 내기 위한 무장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무장이라 하지만 무장은 보잘것 없습니다. 정보전, 사상전입니다. 사상전을 통하여 국제적지지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대외루적채무를 취소하라는 《쥬빌리(Jubilee) 2000국제운동》은 1996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아탓크(ATTAC)운동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는 아소시에이션)은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규제를 걸어 시장독재를 거부하자고 1998년 프랑스에서 발족되었습니다. 반차별국제운동도 있습니다. 큰 규모의 국제회의가 동시다발테로가 일어 나기 직전에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열렸지만 이러한것도 국제적인 현대운동입니다. 특히 1992년 4월에 채택된 평양선언은 오늘 사회주의재건운동으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보스회의로부터 뽀르또알레그레회의에로》 즉 말하자면 《또 하나의 세계는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미국일극지배세계가 아니라 인간중심의 또 하나의 세계는 가능하다는 시대의 론조가 운동과 더불어 힘차게 대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랭전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에 의해 분산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다시 구성하자, 다시 건설하자, 이런 요구가 나서고 있으며 실지로 이 사업에 착수하는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국제주의, 새로운 인터나쇼나리즘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짧은 시간안에 수많은 정보량이 함축되어 있어 아직은 다 정리가 안되지만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미국화는 곧 일본화이라는 주목을 끄는 구절, 글로벌리즘은 신식민주의의 변종이라는 몇가지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고차례는 미국식세계화와 조선반도입니다.

오민학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민학선생님—

오늘 저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미국식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속에서 글로벌리제이션과 미국식세계화 (어느 의미에서는 아메리카나이제이션) 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이자 곧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반글로벌리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론조도 있고 글로벌리제이션 자체는 하나의 지구적인 규모에서 인류사가 겪어온 문제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별개문제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설정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의 보고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현상속에 명백히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 있다는 립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문제의식은 둘째로, 미국식세계화의 시작과 신흥아시아의 세계화의 동시성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상호침투확산현상, 다시말하여 인류력사가 세계의 나라와 지역, 문화, 말하자면 사회적집단의 서로서로의 호상관계의 심화과정이라고 볼때 그것은 글로벌리제이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제이션을 미국식세계화라고 볼때 그것은 1980년대 이후에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2 가지 문제가 제기될것입니다. 하나는 왜 1980년대부터 미국식세계화현상이 농후하게 나왔는가? 다른 하나는 왜 같은 시기에 특히 신흥지역 (신흥아시아 레컨대 타이,마เลเซีย 등 통화금융위기가 일어난 지역) 에서 금융자유화 (그로바리제이션) 를 받아들였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은 셋째로, 이른바 《미국식》의 고유한 내용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메리카나이지제손에서 《아메리카나이》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메리카란 나라는 원래 다민족국가이고 민족적정통이 희박한 장소인데 《미국식》이 세계화로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의식은 넷째로, 미국식세계화의 도입과 영향의 주인성입니다. 미국식세계화가 다 나쁘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원리주의입니다.

이러한 4가지 문제의식이 있는 속에서 오늘은 미국식세계화의 내용문제, 이른바 미국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이 어떤 문제이고 언제 시작했는가 하는것을 경제학의 각도에서 먼저 이야기 한 다음에 그것이 조선반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크게 2가지로 설명드리자고 생각합니다.

미국식세계화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상정책적측면하고 다른 하나는 형상결과적측면입니다. 우선 간단히 글로바리제이션에 대하여 규정하겠는데 저는 이에 대하여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상호관계의 심화와 확산과정으로 보고있습니다. 그속에서 미국식세계화는 미국식기준에 따르는 국제상호관계의 심화와 확산이라고 보고 그 문제점은 획일화현상, 즉 미국화로서의 획일화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식세계화의 사상정책적측면의 본질은 시장원리주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아메리카나이지제손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수잔 조지, 전 프랑스의 상 베토리, 게이오대학의 가네코 마사르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원리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란 무엇이겠는가?

신자유주의를 연구할 때 개념상 문제로서 3단계의 변천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단계는 1830~40년대에 원래 정통적인 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신자유주의, 둘째단계는 19세기말에 호브손이 제창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는 벡토르가 정반대방향인 네오리베라리즘, 셋째단계는 1980년대이후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제창자로서는 하이에크가 있습니다. 또 경제학으로는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주의의 아성이라고 되어 있는것이 미국의 시카고대학에 있는 시카고학과 그속에서도 밀톤 흐리드만입니다. 왜 밀톤 흐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주의를 제창하고 있는가 하면 그 근거는 1970년대말의 미국의 경제형편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주의의, 아메리카나이지제손의 키와드는 1970년대말의 미국의 경제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의 경제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미국은 1945년 8월 15

일 당시 세계 금의 70%, 세계흑색금속공업의 54%를 독점하고 세계무역의 3분의 1, 세계농산물의 50%를 지배하는 초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IMF, 통상으로는 GATT라는 틀거리를 만들어 세계경제패권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 같이 마샬프랑, 포인트 4를 비롯한 원조정책을 많이 전개하는 나머지 달러의 잉여금준비라고 불리는 스독크가 고갈되고 1958년에 소위 달러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 미국의 국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미국경제를 구원하자한 것이 다름아닌 케인즈정책이었습니다.

케인즈정책이란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 다시말하여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정, 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자극하는것입니다. 또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거기서 회수한 돈을 공공투자로서 사용하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뿐만아니라 실지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저리융자도 실시하면서 경제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뉴딜형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집행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케인즈형의 복지국가의 탄생이라고 부르고 사회복지국가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뉴딜이 제창한 《사회주의적시책》은 루즈벨트정권기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인즈정책이 효력을 내지 않게 됩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경기를 자극하면 반면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현실경제에 없는 돈을 투입하기때문에 통화가치가 저하되어 경기를 자극하면 할수록 달러가치가 저하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등기합니다. 원래 경제학의 원리로서는 물가라는것은 경기가 나빠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케인즈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때문에 그 후과로서 경제를 자극하면 할수록 물가가 올라가기때문에 1970년대말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수자로서는 1979년의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1년 동안에 13%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는 마이너스성장이었습니다. 경제원리로서는 해결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국의 경제학과에서 대립이 일어납니다. 케인즈경제, 케인즈혁명은 마쳤다, 그래서 케인즈정책, 따라서 복지국가, 노동자를 자본가에서 구제하는 세이호티넷트를 만들거나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것이 아니라 국가는 이제 퇴장하라, 시장원리에 맡겨야겠다, 자유주의적인 시장을 절대 숭배하고 국가의 경제개입보다 시장, 아다르스미스가 말하는 《見えざる手》에 의해서 조정하는것이 경제가 순조롭게 된다는 주장이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를 하나의 철학적인 사상적배경으로 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을 절대화하는 시장원리주의가 부각되고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이 원리가 보급이 됩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한것이 테처, 레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시장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은 정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를 작게 한다는것은 재정규모를 작게 해야 하기때문에 소위말하는 사회보장을 삭감

하겠다, 반면에 부자들에게는 루진과세의 최고소득세율을 낮추고 토리크르다운(물방울이 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부자한테 감세하면 마지막에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순환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기면 경제가 성장한다)이라는 정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발전도상나라에 대하여 개발하는 소위 개발경제학이라는 것이 정부주도형이라고 되고 있었는데 이와 모순되는 신고전파들이 개발경제학에 많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적인 발상과 시장원리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성장한다, 그래서 타이, 말레이시아, 남조선과 같은 나라들을 개방시켜주는 것이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나이지제슨, 즉 시장의 절대적인 원리라는 것을 경제성장의 보편적인 진리로 인정하고 선진나라이건 뒤떨어진 나라이건 시장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아메리칸스탠다드, 아메리카나이지제이슨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1970년대말에 케인즈 정책을 비판해서 나왔던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및 시장원리적인 경제정책을 아메리칸스탠다드화라는 형태로 세계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글로바리제이션의 본질입니다.

이런 경위로 글로바리제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경제학에 대한 맹렬한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레컨대 맑스주의 경제학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라파 사회주의의 붕괴에 의하여 경제학회에서 쫓겨났으며 케인즈 학파도 역시 1979년에 스타그플레이션 현상과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이 문제로 비판되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미크로 경제학만이 스탠다드인 경제학이다, 이런 조류까지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의 레규라시온 학파인 보아이에라는 학자는 휘디즘(대량생산, 대량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로자가 협조하면 확대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 레규라시온 학파를 비판합니다. 오직 시장원리에 기초한 신고전학파의 새로운 조류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정통적인 경제학이고 정통적인 경제정책의 조류이고 이 기준으로 일치될 때만 세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이와 같은 신화에 기초해서 아메리카나이지제이슨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약자는 소외되었습니다. 사회보장지출이 삭감되고 복지가 삭감되고 반면에 독점규제가 완화되고 부자들의 대기업의 세금은 헐게 되었습니다. 가속원가상각이라는 원가상각자제도 가속시키는 제도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국유기업은 다 민영화되고 민간기업의 활력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리스토라되는 것도 합리화해서 정당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의 세이흐티벳트라고 불리우는 안전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자체도 사회악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빈곤상태에 허덕이는 발전도상나라에 대해서도 자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각도는 왜 미국이 이런 흐름으로 나갔는가 다만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원리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아메리카나이지제이슨인가, 이런 의문이 납니다. 역시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지금 미국의 직접투자를

연구하면서 미국이 왜 글로벌리제이션을 요구하고 왜 금융의 자유화를 요구하는가 하는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남의 나라에 투자해서 얻는 리익률하고 미국국 내기업의 리익률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의 리익률을 조사했습니다. 1984년 이후 미국의 경제통계는 새롭게 정비되어 자본이동과 관련된 통계는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외국기업이 대체로 6%전후이며 미국은 4%대입니다. 놀라운것은 그에 비해 미국의 해외투자리윤률이 훨씬 높다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외국에 투자하는것이 리윤률이 높기때문에 대외에 직접투자하는 자본가들, 거대금융자본가들의 리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흑자가 심각하다고 보고있는데 실은 더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지만 막대한 무역적자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서비스흑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흑자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로이아리티하고 기술특허료입니다. 이것은 세계1등입니다. 서양나라에서 굉장한 금액이 해마다 들어옵니다. 지금 그것이 무역적자의 3분의 1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하기에는 나머지 10년이래 무역적자를 매울정도의 서비스수지의 흑자가 나온다, 따라서 남의 나라로부터의 로이아리티하고 기술특허, 지적소유권에 의한 소득배분이 많아지기때문에 수자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러기때문에 미국은 이 리익부터 보면 서비스를 남의 나라에 개방해서 자본을 수출하는것이 미국의 국익으로 된다, 이런 론리가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자유화를 뒤에서 제창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놀라운 수자가 있습니다. 1973년 석유위기 당시의 하루에 거래되는 자본거래액은 세계적으로 볼때 150억달러입니다. 그런데 1995년 통화금융위기가 일어나는 직전은 얼마 있었던가 하면 1조5천억달러 거래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 하루에 2조달러나 거래됩니다. 그 자본의 대 부분은 선진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제국주의나라들입니다. 일본은 벌써 개인금융자산이 1천400조엔 가깝게 됩니다. 막대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금융집단이 리익을 얻기 위하여서는 세계가 미국과 같이 금융이 안전하게 거래되고 보상이 진행되고 증권으로 담보되는 거래시스템이 보편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리익집단을 배경으로 해서 시장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된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는것이 조선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것입니다.

두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험론적으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통화금융위기가 하나의 큰 경험입니다. 일본의 글로벌리제이션부회는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 아시아에서 진행된다면 여섯가지 영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거대자본이 류통하기때문에 경제현상이 불안정화 될수 있다. 두번째는 시스템믹크리스크, 이것은 경제가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통일되기때문에 한군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것입니다. 세번째는 식량에너지환경문제는 거세할수 없고 이것은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야겠다. 네번째는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기때문에 세이호티넷트를 만들어야겠다. 다섯번째는 소위말하는 획일화현상이 나온다. 여섯번째는 민족문제, 문화문제까지 파괴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하면 금융자본의 운동, 어느 의미에서는 국제적인 자본의 류통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직접투자의 비중우위의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1위가 미국인데 2위가 케이만제도입니다. 탁그스해본이 있는 장소에 세계의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비율이 제2위입니다. 거기에 다 투입해놓고 아세아나라들에 간접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헛치폰드를 비롯한 단기자본의 환란을 받기때문에 지켜야겠다는것입니다.

또한 오오마에 켄이찌가 말하는바 같이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의 폐단에서 농촌사회의 파파를 문제로 보고있습니다. GATT로서 레를 올리겠지만 옛날 GATT때에는 공업상품에 대한 규제가 기본이였습니다. WTO된 이후 농산물을 비롯한 모든 산업들을 자유화하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공업을 자유화하는것하고 농업을 자유화하는 문제는 경제학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culture》라는 어원이 농업문화라는 단어에 있는바와 같이 농촌은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미국의 기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통을 무시해서 획일화한다는것은 사회제도와 정통을 파괴한다는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굉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선반도를 놓고 볼때 우선 금융자본의 환란이 있을수 있고 다른 하나는 획일화된 시스템을 넣으면 정통적이고 민족적인 경제정통, 그다음에 제도적인 정통이 파괴되는 우려가 있다는것입니다.

2 제도경제통합문제는 질의응답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고를 맺으면서 제가 느끼는것은 미국식세계화라는것을 손벽치면서 다 좋은것이 아니다는것, 또 반글로바리제이션이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자체를 다 거역할수 없다는것, 때문에 공부정을 잘 가르고 정확히 그 배경과 내용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말씀드려놓고 이만하겠습니다.

사회자 : 제1 보고에 이어서 제2 보고도 아주 풍부한 내용이 집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지만, 조선반도문제가 취급이 잘 안되니까 회장에서 조금씩 흐라스트레이손이 나타나지 않는가 걱정됩니다. 제3 보고자에게 부담이 많이 갈수가 있지만 조선반도문제가 많이 취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태석신선생님 —

여기에 《동포경제연구》라는 상공연합회가 3개월에 한번 발간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을 3월1일에 발간되는 이 잡지에 글로 옮기겠습니다. 잘 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슘의 키워드가 세계화인데 제멋대로 유니라테라리즘이란 개념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편관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세계전략, 아시아전략과 관련해서 조선문제를 분석하자면 반드시 이 문제를 논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유니라테라리즘이라고 하면 조금 귀에 익지 않은 말입니다. 저는 부쉬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유니라테라리즘이란 개념을 가지고 상공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편집자가 잘 모르기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도록 당부하였지만 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니라테라리즘이라는것은 일반적으로 인지가 되어 일본에서도 일반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일국주의, 단독주의 등 여러가지 쓰이고 있었는데 단독행동주의란 말로 안착되었고 우리 나라 로동신문은 일방주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니라테라리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NPT탈퇴는 채약국의 권리이며 이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는것은 모순됩니다.

우리 나라가 NPT를 탈퇴한후에 일본의 까와구찌외상이 인디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인디아 외상을 만나서 우리 나라 핵문제를 가지고 협력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상의 행동은 모순됩니다. 인디아는 NPT에 가맹안하고 있으며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와 우리 나라의 핵문제를 협의했으니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해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이 테로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동맹자로 되어 제재도 없어지고 원조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유니라테라리즘은 원래 있는 국제사회질서를 완전히 무시해 놓고 미국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할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것입니다.

또한 유니라테라리즘을 조선정전협정과 관련시켜 보겠습니다. 조선전쟁, 조국해방전쟁은 본질적으로는 조미간의 전쟁인데 형식상 거기에 서명한것은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유엔군의 사령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자가 당사자이며 조선정전협정 제15항은 모든 형태의 봉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가한다는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나라는 이에 대하여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위협이나 강경정책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당연한 국제법해석입니다. 우리 나라는 유엔마당에서 10년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연설을 듣다가 벌떡 뛴 사람이 당시 유엔대사인 오르브라이트이며 그는 몇년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나라에는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라는것은 원래 힘과 힘의 대결이고 힘이 강한 측이 이깁니다. 이와 같은 정치력

학으로 오늘의 조미관계를 본다면 우리 나라는 절대로 이기지못합니다. 국제정치에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대할 때 대의명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대의명분이 옳지 않으면 미국과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NPT에서 탈퇴한 후 미국에서 제재문제가 논의되자 일본에서도 송금문제를 비롯한 제재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볼때 그 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도대체 주체는 그 나라인가 미국인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것을 유니라테라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것을 너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립하는것은 미국입니다.

랭전이 붕괴되어 10여년, 조선전쟁정전후 50년이 지난 오늘 조미관계는 모든 과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번 핵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0월16일의 미국무성성명입니다. 미국대통령특사로써 케리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강석주제1부상을 만나 공화국이 농축우란핵무기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는것을 인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것을 인정안하고 있고 그런 말도 안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무성성명, 케리의 공화국방문이 없어도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을것입니다. 왜인가? 간단합니다.

조미기본합의문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은 련합체콘쏘시엄을 대표하여 1호기 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 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대체에네르기로서 열 및 전기생산용의 중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올해는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경수로를 완공할 마감의 해이고 중유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유제공과 핵시설의 동결은 서로 전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유제공과 관련해서는 미국정부는 돈이 없어서 의회에서 승인못받고 12월뭇을 확보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유가 끊어지면 우리가 핵동결을 풀고 NPT를 탈퇴한다는것을 알고 있었던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이 그때 특사를 보내고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이 나쁘다고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유제공을 끊었기때문에 비난을 모면하자고 먼저 수작을 쓴것입니다. 즉 미정부의 시나리오에 따라 책임전가를 위해서 케리가 공화국을 방문한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한 말을 전문가들이 하지 않는가 조미기본합의문을 한번 읽으면 전문지식도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말하자면 합의를 지키지 안했던것은 미국입니다. 그에 대응해서 우리 나라가 조치를 취했는데 IAEA차 《비난결의》를 했습니다. 원래 공평하게 보면 미국도 치고 우리 나라도 쳐야 하지만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비난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속에는 핵불확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조약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말한다면제가 알기에는 불확산계획이라는것은 미국이 멘헛(ᄇ

ンハッタン)계획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원자폭탄을 만들고 유일한 핵보유국으로 되면서 2차 대전직후에 소련과 영국, 그에 이어 프랑스가 핵을 보유하였습니다.

미국과 소련 양국은 핵보유국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분적핵실험 방지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거기에 중국이 들어 있습니다. 1968년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나라들은 핵보유가 인정되고 그후는 안된다는것, 그러한 조약입니다. NPT가 조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5개나라가 그외의 나라에 대해서 핵공격을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것을 기본정신, 기본전제로 하여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탈퇴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협을 받았을 때 탈퇴할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누가 가맹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유엔에 의하여 2차대전후에 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본이 NPT에 가맹하고 IAEA와 보장조치협정을 체결할 때 의정서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들에게 탈퇴권한이 있다는 의정서를 내고 IAEA와 보장조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가 왜 NPT에서 탈퇴하게 되었는가? 조약에 명기된 핵은 안가진 나라는 핵무기위협, 핵무기공격을 받지 않다고 되고있는데 유독 우리 나라만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위협, 핵공갈을 받고 있기때문입니다. NPT체제, 핵불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를 치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조약밖에 내몬 미국을 쳐야합니다.

우리 나라가 조약에 머물러있을수 없게 된 상황을 해소하고 IAEA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이 체제를 지킬수 있습니다. 원래 핵무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없어질 가망이 없는속에서 더 이상의 증가는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주장을 들어야 한다는것이 정론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합니다.

10년전에도 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핵위기와 그 당사를 비교하면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소련을 비롯한 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중국은 당시 등소평이 서거하고 강택민체제로 넘어가면서 국제문제에 될수록 관여안하려고 하고 국내정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동맹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군님의 외교를 중심으로 로씨야, 중국, EU, 일본 등 여러 나라간의 최고위급회담과 국교수립이 실현되었으며 공동선언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는 2000년 6월15일 북남공동선언이 합의되고 자금 조미간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도 계속 북남합의는 리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는 아군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군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상황도 전혀 다르고 대의명분상 가짜도 없으니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꼭 승리할것입니다.

조선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조미간의 관계개선이지만 몇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지적했지만 핵불확산체제에 가장 큰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것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5개국들입니다. 이 5개국은 제재를 결정

할수있는 권한을 가진 안보리의 상임리사국들입니다. 그런데 유엔은 조선전쟁당사자이고 제재를 가하면 이것이 또 정전협정위반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조미가 기본입니다. 기본당사자이고 이 직접대화가 모든것에 우선되어야 하고 적대관계가 해소되어야 하겠는데 그 문제를 풀자니까 복잡한 관계가 다 엉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조미간의 직접대화, 이것을 핵으로 하면서도 앞서 이야기나온 남조선,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포함에서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마당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조미간의 불가침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러한 다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오히려 보장할수있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결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는 그러면 전번의 조미대화와 이번의 조미대화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것입니다. 전번에는 조미대화이후 6. 15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문제에 있어서 조미관계는 그때는 입구였습니다.

자금은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EU나라들을 중심으로 국교가 수립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번의 조미문제가 입구였다면 이번의 조미관계개선은 출구로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미국과의 대화가 실현되면 이제 완성입니다. 그 지위가 다르다는것입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릴수 있으나 이것이 풀리면 미국이 유니라테라리즘을 강요못하는 동북아시아가 출현할것이고 그 중심에는 통일조선이 있게된다는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하자니까 론리비약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사회자 : 다 합하면 30개 가까운 질문이 있지만 비교적 류사한것들은 모아서 하자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민학선생님입니다만 아무래도 마지막 조선반도문제가 시간관계상 거의 언급을 못했는데 그 점에 대하여 답해주십시오. 하나는 6. 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르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고있는데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 미국식스탄다드라 할지 아메리카나이지이손의 영향이 어떤가라는 문제와 함께 통일조선을 넘두에 두고 그 경제규모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연의선생님에 대해서 입니다만 제일 많은것은 력사부인주의하고 글로바리즘하고의 호상관계가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는것인가 어떤가 여기에 비교적 질문이 집약되있는것 같습니다. 그외 개념적인 문제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또 글로바리즘이 력사적으로 필연적인 현상인가 어떤가라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석선선생님에게는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의 핵문제입니다. 질문자는 우리 나라의 공식전해를 보면 혹시 핵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질수 있는 글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No deny No confirm인지 제가 알기로는 평

화적으로 핵을 리용하지, 무기로서는 안가진다고 저는 공화국의 입장을 리해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조미관계의 시나리오로서 우리 나라의 선군정치하고 미국의 유니라테라리즘의 대결이라는 각도를 세울수 있는것인지 어떤지 그런 점들입니다.

먼저 오민학선생님부터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연의선생님, 태석신선생님의 순서로 부탁드립니다.

오민학 : 아까 말씀못드린 조선반도문제를 통일경제를 전제로 하여 글로바리제이션,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하겠습니다.

저는 전번에 초청교토가 주최한 조국통일을 쟁마로 한 심포슘에서 경제슈미레이션을 했습니다. 경제통합하면 어느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한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추계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어느 정도 경제규모가 되겠는가 하는것인데 우선 인구규모를 보겠습니다. UN에서 내고 있는 world population prospect 하고 남조선의 통계청에서 내고있는 장래인구추계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추계결과를 참고로 하면 북과 남, 해외를 합한 인구수는 2010년이 7400만, 2020년이 7700만, 2030년이 7900만입니다. 이 수는 대체 세계인구의 1.0%~1.2%이며 21세기 후반에는 8000만명을 넘는 상당한 수로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소자고령화가 촉진되어 한사람의 녀성이 어린이를 낳는 평균수자가 1.32~1.39라는 차원이기때문에 인구수는 감소되고 조선민족하고 인구가 역전하는것이 2070년대 후반입니다. 국립사회인구문제연구소가 내고있는 일본의 인구수를 보면 2100년에 6000만명까지 감소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를 본다면 현재 남조선의 GDP를 외환환산했을때 2001년도 OECD 란킨그 10등이고 거기에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를 합해서 분석하는데 그 전에 몇가지 류의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1+1이 2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1+1이 3, 4로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conomic of scale, economic of scope 를 넘두에 두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남조선의 GDP는 명확한데 우리 나라의 GDP추계가 어렵습니다. 원래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년도에 순수하게 창조된 가치액만을 프라스하기 때문에 기준치 그대로 내지 못합니다만 《고난의 행군》 시기가 100억정도이고 지금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프라스하고 계산을 하면 10등 혹은 9등 이기때문에 상당한 경제 규모로 됩니다.

거기에 성장성을 볼때에 하나는 노동생산성을 봅니다. 그속에서도 그 나라의 경제력을 볼때 생산로력인구의 추이를 봅니다. 남조선에서 15살~54살까지의 생산로력인구의 장성률은 OECD란킨그 제1 위입니다. 출생률은 3위이고 산업성장률은 2위

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을 담보하는 기술인데 남조선의 수학적교양, 리테라시라고 있는데 능력측정지표평균치 15살의 수학이 제2위, 과학이 제1위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교육의 질, 산업인구의 편성과정, 기술편성과정(컴퓨터산업의 DRAM시장은 미국의 다음에 남조선)을 볼때 아마 계산치를 수정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21세기 중반에는 7등정도까지 가는것이 아닌가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하고 경원선이 이어지고 무역에 대한 효률이 높아 지고 개성, 남포의 공업단자들이 직선적으로 나란히 되고 그 근방에 새로운 금융센터적인 역할을 노는 시장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신용도 높아지고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2030~40년도정도 되면 아시아지역에는 중국, 일본 다음가는 민족경제권이 크게 형성될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통합과정입니다. 자본주의끼리 통합하는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통합하는것이기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이체란드경우는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경제가 우선 마이너스로 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일은 로동인구 비율이 제2차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을 재배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일정한 기간 경제성장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규모의 격차를 그대로 두고 통합을 실시했기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당한 마이너스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독일정부는 재정을 방조하기 위해서 세금징수를 강화하고 동시에 장기국채를 많이 발행한 결과 서독일의 장기금리가 올라가서 서독일의 경제자해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정도 지난 다음에 경제통합의 효률성이 나오게 됩니다. 산업과 로력인구가 재배치되고 일정하게 마이너스로스가 없어지면 경제통합의 효과성이 나오게 됩니다.

인재의 재배치, 산업의 재배치, 규모의 경제성, 스케-르 메리트가 나오기때문에 산업으로서 채산베-스가 많은 산업이 나옵니다. 월터 아덤스라는 산업구조론으로 유명한 연구자가 있는데 그는 인구가 5000만을 넘으면 채산이 맞는 산업이 많이 나오게 되며 7000만, 8000만 규모가 되면 기대되는 산업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다음 10년후에 기본적인 성장바탕에 들어간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미국식경제방식이 우리 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들, 아시아는 전통적인 상업자본주의에 기초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기적》이란 현상에 대하여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그것은 시장원리를 도입했기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아시아형경제발전이며 상업자본주의적인 발전이 근처에 깔려있기때문에 아시아지역이 통합을 하면 더 성장할것이다. 이 지역에 자금을 융

통하는 단독적인 국제통화공급기지가 있어야 한다. 즉 AMF가 있어야 하고 통화, 경제시스템의 루-르도 아시아다운 루-르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자는것은 아닙니다. 아시아의 기준을 만들자는 움직임과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획일화하자는 움직임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AMF를 주장하고 있고 재무성에 있는 사람들은 IMF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미무역에서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라가 중국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도 딸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흑자가 지속되고 아시아권에 딸라가 집중되면 딸라패권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대량적 딸라판매에 나가게 되면 딸라가치를 폭락시킬수 있기때문에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IMF기준을 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때 지역독자적인 경제시스템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연이: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질문에 제가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오늘도 하나 감동을 얻은 셈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과 역사부인주의의 호상관계에서 필연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계화는 시장의 파도를 타고 번져 지고 있는데 시장경쟁의 결과 남북격차가 나옵니다. 시장에 나갈수 있는 자격을 가진 민족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능력이 없는 약소민족들이 엄연히 있다는것입니다. 시장중심의 글로벌리제이션은 이전의 기아문제, 빈곤문제뿐만아니라 이제는 시장에 참가못하고 소외된다는 빈곤과 배제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 여기에 엄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세계화가 더욱더 촉진되어 가는데 약소민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시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민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판인데 80년대에 도이쉴란드에서 력사가론쟁이라는것이 일어나 과거의 력사를 《과학적》인 수법으로 리론적으로 외곡하고 과거의 력사적사실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저 도이쉴란드만이 아니라 서방세계에서 많이 론쟁이 벌어졌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사회주의가 좌절된후 지난 시기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앞장에 서가지고 나치즘을 찬양하고 다른 민족들, 외국인로동자들을 배척하는데 리론적인 안받침을 하였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에서도 목적의식적으로 그전에 비극을 겪은 다른 민족, 그전의 약소민족을 다시한번 (자기를 국제사회에서 더 높이 묘사하기 위해서) 때린다는것, 조선민족을 두번 때린다는것, 이러한 방향에서 력사부인주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화현상을 빚어 낸 자들, 그리고 이 역사부인주의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책략을 꾸며 냈다는 그런 사실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가지 현상이 거의 동시진행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지배적인 글로벌화가 촉진되면 될수록 나쇼나리즘에 의한 민족주의적충동, 심지어는 국수주의적충동이 나올수 있습니다. 저는 보고에서 획일화는 차이화를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자꾸 미국의 단색으로 세계를 색칠하자 하는 과정에 거기서 위기감을 느낀 민족들이 민족배타주의적방향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극우정치가인 하이다도 이런 시대적분위기속에서 등장하였고 또 일본의 국가주의자들, 국수주의분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세계화》과정에서 리득을 얻고 있는것이 어느 민족이고 리득을 얻지 못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가 하는 격투가 벌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것이 일본과 도이쉴란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미국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항할 만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디에 근거를 찾고 있는가 하면 되면 캐캐묵은 국가주의, 나쇼나리즘에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높은 위치에 자리매김되는 민족과 하위민족, 마이노리티사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면서 민족국가란 형태로 근대국제사회에 등장하였습니다. 가령 민족해방운동끝에 독립을 이룩한 알제리를 생각해 보면 식민지주의로부터 벗어나 자기 민족의 말 아랍어를 되찾고 교육체제도 라지오방송도 다 아랍어로서 하자고 했을 때 독립된 신생독립국가내에 소수민족인 까빌족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해방운동을 해왔는데 독립에서 리득을 얻지 못했고 알제리정부는 국내에서의 까빌어에 의한 민족교육도 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어떤 가수가 까빌어의 노래를 부르고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자기 민족언어를 후세에게 알리자고까지 했습니다. 결과 글로벌리제이션의 강한 작용에 민족과 민족사이의 서열화가 생겼습니다. 세계화가 세계적공간에서 벌어 지고 있는 민족말살책동이라면 력사와곡책동도 민족을 력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말끔히 통채로 없애기 위한 민족말살책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력사와곡책동을 반대하는 운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리제이션은 불가피한가, 일시적인 현상인가, 영원한 현상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인류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공통성을 많이 가지게 되고 지구가 인류공동의 생활환경으로 되어 나가고 있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김일성대원수님의 1992년 4월 15일 로작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화의 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누가 추동하고 있고, 누가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고, 누가 말려 들어 가고 있고, 누가 희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피한 글로벌리제이션앞에서 전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자기의 전

락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모한 돈부자들이 해마다 스위스의 다보스에 모여 세계경제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전에는 도쿄도지사 이시하라도 참가하고 《북조선을 붕괴시키라》는 연설을 하였고 또 올해는 다케나카가 갔습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되지만 반글로바리제이손운동인 뽀르또알레그레회의에 대해서는 일본의 신문보도에서 한줄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프랑스신문, 영어신문을 통해서 이런것을 해마다 알게 되는데 지금 세계는 그야말로 글로바리제이손 대 반글로바리제이손 (= 《신글로바리제이손창조운동》) 이라는 매우 날카로운 대결구도로 되어있습니다. 진정한 글로바리제이손은 그 어떤 일국화세력의 세계적인 확대나 침투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를 의미합니다.

온 세계의 민주화, 온 세계의 자주화, 이 방향에서 세계의 여러 운동이 어떻게 잘 연대되고 결부되어 승리해나가겠는가 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태석신 : 우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유안하고 있습니다. 조일수뇌자회담이후에 랍치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죄하고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직후에 핵문제가 나왔기때문에 모든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핵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멋대로 했다, 하는 차원에서 볼수있는 문제도 아니며 이것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비핵국가로서의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미국에 대한 제안속에서 명백히 과거도 현재도 핵은 없다는것, 그러면서도 불가침을 약속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주장하는 핵탄두와 ICBM를 가지고 있을수 있다는것자체가 억지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모든 정부부처들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안가지고있다, 몇개 가지고 있다, 등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최저라인이 무엇인가 하면 플토늄원폭 2개뿔 또는 1개뿔을 가지고 있다는것입니다. 미국은 IAEA를 시켜 특별사찰을 하자고 했습니다. IAEA가 협정을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면 원폭 1개를 제조할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있다 는 의혹이 있어야 합니다.

레전대 몇년전에 일본에서 플토늄재처리시설안의 잔류플토늄의 오차로서 원폭 1개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 일본은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플토늄이 있기때문에 특별사찰이 제기된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특별사찰을 요구하기 위하여 유의량이 있다고 한것입니다. 미국이 IAEA를 시켜 특별사찰을 요구하도록 했기때문에 이제 와서 미국은 뒤로 물러서지 못합니다.

1개이상의 플토늄을 가지고 있을것이라는 자기네들의 주장을 취소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핵물질은 있지만 핵무기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다만 냉전에 있는것은 자기들의 자원, 기술, 인재로 핵연감속로를 상업적으로 리용하자고 했기때문에 응당 실험을 했을것입니다. 그속에서 몇그람 추출한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억지력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문제는 선군정치와 관련시켜서 답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라크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 군사적대응에 강경하게 나서지 못하는것은 선군정치의 효과입니다.

여담이지만 전번에 택시를 타니 운전수가 말하기에 이 경제불황은 가까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풀릴것 같다는것입니다. 택시운전수까지도 그런 말을 하는 형편입니다.

조선전쟁때 일본은 우리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며 이 군사력을 일본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선군정치의 성과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문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지난 10월 25일 날자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문판을 인용하겠습니다.

《小国である我々にとってすべての問題解決の規準は我々の自主權と生存權に対する脅威の除去にある。この規準を満たす上で協商の方法もあり、抑止力の方法もありえるが、我々はできるだけ前者を希望している。》

협상의 방법과 억제의 방법의 둘중에서 우리는 억지력에 의거하고 싶지 않다는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억지력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과 우리 나라의 통상무기에 의한 호상억지력으로 균형이 잡혀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있는것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이와같은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조미간의 대화를 통하여 관계개선을 하자는것입니다.

우리 나라 인구는 남조선의 인구의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남조선보다 군인수가 많고 복무년수도 더 깁니다.

이렇게 보면 군축과 관련해서 가장 리해관계가 있는것은 우리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전번에도 안보리에 갔을때 제재결의는 못하고 그때는 결국 관계당사자가 직접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라는 의장성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접수했는가, 어떤가 하는것은 두고 결과적으로는 조미대화로 해결한다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재자는 없습니다. 중유공급이 없어졌기때문에 핵동결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것은 미국이지만 형식적으로는 KEDO가 결정했습니다. KEDO는 남조선, 미국, 일본, EU의 4개국이 집행리사국입니다. 말하자면 EU도 남조선도 일본도 중유를 끊은 당사자입니다. 당사

자가 무슨 중재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는 중재노력이 아니라 앞으로 조선반도의 미래를 꾸려나가는 회담에 자기도 참가하고 싶다, 개입을 하고 싶다는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주목되는것이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은 제3자이기때문에 아시아지역연단의 틀을 리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리해당사자가 매우 많으나 어디까지나 공화국과 미국이 주된 당사자이고 그외는 준당사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조미량국간의 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자회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핵문제가 조미문제가 아니라 조선 대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론리에 반대하고 있으며 또 우리 나라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회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조미간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문제를 토의할수 있는 마당이라면 반대를 하지않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북남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주변국인 중국, 로씨아, 미국이 이를 보장할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는 조선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반대합니다. 조미가 회담을 하고 불가침을 담보하는것이 기본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자간회담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미의 문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적인 핵불확산체제 이것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랑전붕괴후 10여년간, 조선전쟁이후 반세기동안에 조미간에 남은 모든 과제를 크게 일괄하는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국제 회담이라는 틀자체가 조미불가침을 담보하는 하나의 담보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이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 회장에서 제기된 질문들이 다 취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꼭 대답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으면 거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내질문자 : 공화국이 자본주의세제하고 경제관계를 맺게 되면 남조선의 IMF사태와 같은것이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날수 있겠는가?

오민학 : 저는 마치 학위논문을 통화위기시스템에 대하여 썼습니다. IMF콘디쇼나리티(융자조건)의 본질은 시장원리에 기초한 긴축재정,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외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자유롭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하며 거기서 발생하는 리익에 대해서 본국에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하고의 경제관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하고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여러가지 제재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그 과정에 IMF체제에 들어가는가 하는것인데 이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례를 들면 마레이시아, 타이에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마하티루는 변동시세제를 채용했습니다. 원래 아시아나라들은 펙크제였습니다. 펙크제란 어떤 기준통화에 환율을 맞추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것을 자유화하라고 했습니다. 실지 자유화를 해보니 통화가 등귀했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로서는 스펙그리티브 아탁크라고 합니다. 등귀가 발생한다는것은 상하로 오르내리기때문에 카피타리즘에 의해서 통화를 폭력적으로 팔고 일정하게 수익이 나오면 도망치게 합니다. 남조선은 단기자본을 대부받고 그 자본을 장기자본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기로 빌려서 그것을 장기로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한이 온 자금을 돌리지 못하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남조선과 같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나라는 단기자본을 너무 빌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하고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외자를 도입해서 도입된 외자로 투자를 하지않기때문에 남조선과 같은 위기에 빠진다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자본주의 나라와 경제관계를 맺었을때 그런 요소가 나오겠는가 하면 그것은 부인못합니다. 그런 요소가 나옵니다.

크링톤정권의 전 세계은행의 에코노미스트로써 사마즈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IMF의 콘디쇼나리티를 작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산업폐기, 공해형산업, 비효율적산업을 발전도상나라에 이전하는것이 세계에 있어서는 좋다는것, 말하자면 오물은 발전도상국에 가져가서 비효율적산업도 저임금수준의 나라에 가져가는것이 좋다는것이다. IMF의 기준, 글로벌리즘의 기준에는 그런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을 우리 나라가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시스템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하여 곧 IMF사태가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받아들인 후에 막대한 단기자본을 함부러 끌어들이고 그것을 장기로 막 투자를 할 때 단기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IMF사태와 같은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잘 살리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하여 사태가 곧 일어나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거래와 관련된 시스템은 받아들여도 IMF콘디쇼나리티와 같은 자유주의적인 강요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러면 마지막에 세분에게 한마디씩 부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세계화와 조선반도〉라고 안하고, 〈미국화와 조선반도〉라고도 안하고 〈미국식세계화와 조선반도〉라고 아주 기묘하게 달았습니다. 그것은 글로벌리즘이론이라는 개념자체가 복합적이고 해석이 류동적인 상황에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되 그저 세계의 호상침투가 강화된다는 글로벌리즘이론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조미관계만도 아닌 차원에서 정했다는 경위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정세를 놓고 보면 아주 긴, 역사적인 해석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정세파악에도 도움이 되는 토론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으로 부쉬등장이후, 부쉬가 이끄는 미국화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발언자선생님들의 과학적예측을 부탁하는바입니다.

고연이 : 최근에 이와나미부크렛트에서 《반부쉬이즘》이라는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책자에는 부쉬정권이 얼마나 유해로운 정권인가 하는것이 썩여져 있고 거기서는 부쉬가 얼마나 대통령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것이 밝혀져있습니다.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쉬정권은 대조선정책을 안가진채 시작했고 아직도 정립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주동적으로 움직여 주도권을 잡자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부쉬정권에 대해서는 클린턴시대이상으로 주도권을 쥐고 조미문제해결의 길에 들어 선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반미투쟁을 오래 해왔지만 이제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바리제이션이 맹위를 뿌리고 있는 속에서 조미관계가 날카롭게 부상되었습니다.

주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우리의 정책은 정당하고 지난 90년대에 총소리 없는 조미전쟁이 다 보여 준것처럼 앞으로 그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휘될것입니다. 이것을 소감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만하겠습니다.

오민학 : 부쉬의 경제정책은 시장원리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점에서 레간시대의 경제정책과 똑 같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반드시 발생케하고 그것을 군사적지출로 메꾸게 될것입니다. 미국의회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한달동안의 투자액이 얼마나 될것인가를 추산하였습니다. 그것은 60억~90억달러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레간정권하에서 6년밖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다시 채무가 쌓여서 딸라위기가 올수 있다는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엔기관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는 글로바리제이션은 좋지만 내부의 개혁은 매개 지역에 맡겨라 하는것이 대세입니다. 이러한 반글로바리제이션의 대세는 막을수 없다고 짐작이 됩니다. 멀지않아 지역적인 기준도 많이 나와서 순수 자유주의적인 기준이 세계의 기준으로 되는 시대는 마쳐간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반도경제, 아시아를 생각할 때 이 지역의 전통과 경제규모, 거래방식에 맞는 독자성있는 경제시스템을 조선반도가 모범이 되고 만들어가는것, 그것에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리론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석진 : 두분이 계속 글로바리제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계속 유니라테라리즘에 대해서 말합니다.

10년전의 핵위기는 조선반도에 리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리존스페서리스트)이 핵불

확산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것입니다. 그렇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제일 피하고싶었던 조미직접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전달에 미국에서 케리차관보와 볼튼국무차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전략을 다루는 사람과 지역문제를 담당하는 차관하고 차관보가 오고 다른 소리를 해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전략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하고 지역전략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세계전략을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반도)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도권을 쥐고 나갑니다.

미국이 유니라테라리즘을 잡아흔들수록 고립되는것은 자기자신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것은 북남관계입니다. 이렇게 조미관계가 긴장하는속에서도 계속 남북의 합의가 리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무현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크지만 이것은 김대중시대에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태양정책》이라는 말을 안쓰고도 남북의 교류를 진행할수 있게 했고 로무현대통령이 종속적 《한》 미관계를 시정해야 한다는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제일 고생한것이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 인민입니다. 먹을것도 먹지못하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오늘에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북남관계가 계속 진척되온것은 미국의 유니라테라리즘에 대항해서 조선인민이 힘을 합쳐 개척해온 승리의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자 :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세판단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그보다 기쁜일은 없습니다. 장시간의 청취에 감사드립니다.

(끝)

2002년 9월 17일 기존의 예측을 벗어나서 실현된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평양방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특히 두 수뇌들의 명의로 된 조일평양공동선언의 발표는 조일관계는 물론 북남관계와 조미관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과 평화에도 기여한 역사적사변이 었다.

일반적으로 국교관계는 당사국들의 공동의 리익과 국익의 달성을 전제로 한다. 조일관계 정상화에 역사적인 전환기를 마련한 《9.17 사변》의 배경에는 조일량국의 국익 차원에서의 리해관계가 교차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와같은 기본구도는 2년만에 재개된 조일정부간회담(2002년 10월 29일~3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뿌르)에서 내외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적인 문제토의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지만 조일쌍방이 다같이 조일평양공동선언의 리행과 국교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것으로도 확인할수 있다.

현재 (2002년 12월 현재)까지의 조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추위를 본다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에서의 량국간의 차이 1)와 략치문제를 기화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일본의 반공화국 여론에 의하여 조일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교착상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수상이 2002년 10월 18일 제 155 회국회에서 한 소신표명에서 자신의 평양방문에 대하여 《일본의 국익에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교섭재개를 결단》한것이라고 설명한처럼 일본의 국익실현에서 국교수립이 차지하는 전략적의의에 대한 당국자들의 정책적판단은 계속 유지될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본측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국익의 견지에서 본 조일국교정상화의 의미를 살펴 보았다.

1. 대아시아와 21세기 일본

랭전후 일본은 《보통국가》에로의 지향을 본격화하여 경제력에 상응한 군사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영향력을 보유하기 위한 대내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은 정치, 경제, 안보, 환경 등 다방면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2국간외교와 함께 다국간외교를 중시하는 경향과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그를 활용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주목할것은 일본의 외교정책방향이 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대미의존에서 점차 벗어나 아세아를 향하여 《친미입아(親米入亞)정책》으로 진전되고 있는것이다. 21세기 일본 국익의 견지에서 본 조일관계개선은 거시적으로는 일본의 《입아정책》, 대아시아중시와 련관되어 있다고 말할수 있다.

① 대아시아중시

일본이 새 세기 《입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되는 주요인은 아시아의 거대한 잠재력, 성장성과 관련된다. 아시아는 세계 면적의 23.5%(1998년), 1 차에네르기 생산의 34.4%(1996년), 곡물생산량의 48.4%(1997년), 수출액의 29.7%(1998년) 3) 를 차지하며 무진장한 천연자원과 44 개의 나라와 지역, 37 억의 인구가 있다. 아시아나라들은 지난날의 낙후한 원료원천지, 후진국이 아니다. 적지않은 나라들이 신흥개발국,중진국으로서 산업, 경제를 비롯한 교육, 정보과학, 제반 제도정비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cathi up 를 추진하고 있다. 레를 들어 경제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2001 년 EU, NAFTA, 동아시아지역(ASEAN+중국,일본,남조선)의 구매력평가(購買力平価)에 의한 국민총소득(GNI)의 비교에서 동아시아지역이 11 조 8040 억달러로 NAFTA 의 11 조 1638 억달러, EU 의 9 조 1630 억달러를 통과하고 있다.4)

특히 《아시아는 아시아나라들끼리 번영하는 아시아를 만든다》는 지역주의(regionalism)의 강화, 중층적(重層的)인 지역내 지역간 협조와 협력 5) 을 통하여 아시아의 거대한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정치에서도 그 존재감과 발언권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일본의 대아시아중시는 랭전 종식이후 일련의 외교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레로 일본 외무성이 1999 년 11 월에 발표한 《아시아경제재생밋손(misson) 보고서》를 들수 있다. 아시아와의 공생을 21세기 일본의 활로로 제안한 이 보고서에서는 1980 년대이후 아시아경제의 급성장속에서 일본경제는 이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금후 고령화와 소자화가 촉진될 뿐만아니라 자원도 없는 일본이 아시아 나라들과의 사람(ヒト), 물건(モノ), 돈(カネ), 정보 등의 상호의존관계의 발전에 의하여 헤아릴수 없는 리익을 얻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아시아와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하는데 상응하게 대외적인 경제-사회관계를 한층 발전시켜야 할 절박성을 국책 차원에서 제기한것이다.

1990 년대 이후 출구가 없는 만성적경제불황 그와 더불어 만연화 된 사회적침체와 폐색상태를 타파하고 일본을 재생시키자면 대아시아에 대하여 《제 3 의 개국》을 단행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대아시아중시는 외교실천에서도 그 경향이 뚜렷하다.

우선 외교정책 집행의 가장 효과적인 추진력이라고 말할수 있는 수뇌외교에서 아시아중시의 경향이 보인다. 외무성조사월보 (2002/No.1) 《전후 일본의 수뇌외교》(加藤淳平)에 의하면 역대 일본수상의 외국방문에는 우발적요소도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부수뇌가 어느 나라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하는가 하는 것으로 세계앞에 일본의 외교자세를 보여주었다고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欧米重視のピクだった中曽根、竹下両首相以後、各首相は徐々に、アジア重視の方向に動いてる。》라고 하면서 일본의 대아시아중시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

대아시아중시는 이 지역 협력기구들의 위치와 역할을 감안하여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레컨데 11 월초 캄보쟈에서 열린 일본과 ASEAN 수뇌회의를 본다면 일본측은 ASEAN 과의 《포괄적경제권》을 지향하는 수뇌선언초안을 제기(2002년 10월 19일 読売新聞)하였다고 하며 ASEAN 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외교전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대 아시아지역기구 참여정책은 일본의 경제적리해관계에 기초한 안정한 기득권을 보장확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외교공간으로 되고 있다.

②최대의 초점은 동북아시아

전제로 되는것은 이 지역 나라 6 들의 현재와 미래에 있다. 이 지역의 경제규모는 1997 년현재 세계경제의 1/5 를 차지하고 있다. 금후 일본경제의 상대적축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1/5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경제에서 중심지역의 하나로 부상할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것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은 더 큰것으로 추산할수 있다.7)

지리적으로 린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구한 력사속에서 다방면적인 교류와 뉴대를 깊여 온 조선(북남)과 중국,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특별하고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것은 이 나라들의 종합적인 국력과 성장성,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련결하는 지정학적위치로부터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금후 조선반도에서의 랭전구조가 청산되고 지역주의의 심화와 자주,친선, 평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적추세를 반영하여 이 나라들이 긴밀한 국가관계를 구축한다면 세계에서 류례를 찾을 수 없는 《정치경제권》을 형성하게 될것이다. 이 《협력권》은 거대한 경제 규모와 성장성을 가진 경제권으로서 세계경제를 견인할것이다. 또한 아시아와 세계를 련결하는 경제와 물류의 중심으로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평화를 발신하는 지역으로서 이 《협력권》은 국제정치적 축으로서도 그 림지를 강화할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와같은 《협력권》 실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지역내 경제협력에서 필요한 통신, 운수망의 불비 그리고 정치분쟁의 현안들인 대만문제, 일본의 력사인식문제, 로일간의 북방령토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속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지리적위치에서 련쇄의 중심에 있는 조선반도에 랭전구조가 의연히 남아 있으며 여기서부터 산생하고 있는 정치군사적 긴장상태와 조선반도를 둘러싼 주변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의 대립이다.

요약한다면 비정상적인 조미, 조일관계 그리고 조선반도의 북남관계이다. 호상련관성이 있는 이 관계들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패권주의 특히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에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미국의

간섭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구실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남의 교류와 화합의 심화, 조일간의 관계정상화의 실현은 미국의 대조선, 대동북아 정책과 팽전형관여방식의 설득력을 상실시키고 그것을 변경시키게 하는 객관적조건으로 작용할것이다.

최근시기 정세를 본다면 2000년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이후 북남관계개선의 급진전 그리고 조중, 조로 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북, 남, 중,로의 우호협력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에 의하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국들의 대립구도가 공존,공영의 관계으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번영하는 동북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일본만은 단절된 조일관계에 의하여 동북아시아 협력권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뿐만아니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금후 더욱더 고립될 것이 예상된다.

일본의 국익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에 대한 외교의 부진과 공백이 심화될수 있는 것이다.

21 세기의 활로를 대아시아, 대동북아시아 중시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조일관계개선은 필수적인 외교적과제로 되며 반드시 열어야 할 《무거운 문 째》으로 된다.

2.일본의 정치경제적인 손익계산

① 정치외교적 측면

일본 외무성의 공식전해(홈페이지) 《北朝鮮との国交正常化は本当に日本の国益となるのでしょうか。(Q&A)》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第一に、我が国がかつて植民地支配を行つた地域との関係を正常化するという側面です。我が国がかつて朝鮮半島を支配下に置いたこと、及びそこに住む人々が耐え難い苦痛と悲しみを感じたことは紛れもない事実です。こうした過去の歴史を直視し、朝鮮半島との関係を正常なものとする事は、我が国にとって歴史的・道義的な課題であるともいえるでしょう。ちなみに、国連に加盟している200近い国々の中で、我が国が国交を持っていないのは、我が国の目と鼻の先にある北朝鮮のみです。これほど地理的に近接した日本と北朝鮮が、半世紀以上にもわたりそのような関係のままであること自体不正常なことであるといえましょう。…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어서 조일국교정상화는 제 2 차 세계대전후 전후 처리와 관련하여 마지막에 남은 수치스러운 현안의 외교적과제이다.

지난 시기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후처리를 하면서도 유독 조선에 대하여서만 늘 회피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적대시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런것으로 하여 두 나라에서는 서로 불신과 오해가 극도로 증대되었고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일어 났다. 일

본이 그로 인한 정치적부담(handicap)에서 조속히 벗어나자면 조일국교정상화에 착수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전후 처리문제의 완결을 통하여 일본은 경제력에 비하여 저급한 상황에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위상을 제고 시켜 정치대국으로의 단서를 열어 나가자고 하고 있다. 하나의 례가 1996년 9월 당시 하시모토(橋本)수상이 강한 의욕을 표시한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 진출문제이다. 조일수교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환경을 정비를 하는데서 필수적인 과제로 될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에게는 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활발한 수교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두 번다시 중미수교 때와 같은 악몽(外交音痴)을 되풀이 할수 없다는 판단이 있을것이다.

2000 년 이후 조선반도에서는 북남관계의 화해와 협력,교류의 급진전 속에서 사실상 북과 남 사이에는 전쟁이 없다는 사회적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반도정세의 호전을 반영하여 특히 조선의 다각적인 적극외교에 의하여 EU 를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조선 수교관계가 확대되고 있다. 조선과의 수교추세에 탈락(バスに乗り遅れる)하여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외교적위상을 추락시킬수 없는것이다.

②안전보장문제

무엇보다도 조일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수 있다. 당국자들로 여러 기회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은 일본국 외교의 최우선적인 사항이고 목적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8)

적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랍치, 불신선사건, 《북의 미싸일위협과 핵개발의혹》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위협》이라는 것이다.

2002년 9월 14일 김정일장군님은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속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일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풀리면 일본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안보문제 같은 것도 문제로 될수 없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의 국방력강화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자위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무장력은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지만 그 누구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무력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의 국방력강화에 대하여 조금도 우려할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조선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안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해법이 있다.

2001년 10월 31일 요미우리신봉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50%가 위협을 느끼는 나라 첫번째로 《북조선》을 꼽았으며 87.1%가 조일국교정상화를 지지한것으로 보고되였다. 2002년 12월 5일에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북조선》과의 외교교섭에서 43.7%가 《핵무기와 미싸일 개발의 중지》를 37%가 《일본인랍치사건의 해결》을

가장 중요한것으로 대답하였으며 85.6% 가 국교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추정할수 있는것은 일본의 국민 차원에서도 이른바 《북의 직접적인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조일간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①)에서 인용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조간의 대화의 마당을 마련》하여 《그 위협》을 해소하는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급선무이며 첫째가는 국익의 달성으로 된다.

다음으로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한 일본외교의 약점을 극복할수 있다는 계산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일본외교의 결정적약점은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발언권이 없는것, 특히 일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역내 안보문제에 직접 관여할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까지 일본은 이 지역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모기장 밖 신세(蚊屋の外)》⁹⁾에 있다. 물론 1999 년이후 미일한의 공조체제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3 国政策調整会合)》의 일원으로서 대조선정책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그 자체는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공간이 아니다. 제 10 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K) 수뇌 회의에 참가한 미일한 수뇌들의 《3 국공동성명·요지·》(2002 년 10 월 26 일 메히코)에서…南北対話及び日朝国交正常化交渉は、朝鮮半島非核化を求める国際社会の要請に対し、北朝鮮が早急かつ説得力ある形で応えるよう求めるうえで重要なチャンネルである。… 라고 지적하고 있는것처럼 일본은 조일국교정상화와 그를 위한 과정에서 안전보장문제와 관련한 조일간의 단독파이프(2 国間 channel)를 가질수 있다.

또한 일본당국의 주장대로 6 자회담을 기성사실화,정례화한다면 조선반도의 안보문제 나아가서 동북아안보문제에 자기 국익에서 출발한 발언권을 행사할수 있게 될것이다.

③경제적측면

조일수교는 일본에게 대조선경제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게 될것이며 조선에 경제적립지를 확보함으로써 일본경제를 동북아시아경제권에 전면적으로 편입되도록 하는데서 관건으로 된다.

조선은 1990 년대 후반기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1999 년부터 강성대국건설에 들어갔으며 경제강국이라는 역사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방식을 실리보장이라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자립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주적개방을 대담하게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부 지역은 로씨아의 극동지역과 연결시키는 개발방식, 레컨데 조선반도종단철도(TKR)와 씨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과 같은 장기적이고 전망성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강산관광과 원산·함흥을 거쳐 칠보산 관광사업의 활성화 또한 이 지역의 중공업을 비롯한 북부 공업지대에 대한 발전이 포함된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경우 신의주시를 특별행정구로 설정하고 자본주의방식으로 대담

한 개방적경제개발을 추진하고 남부 지역의 경우 개성을 중심으로 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EU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선별적 분야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의욕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으로서 《북조선경제개발》에 적극 참여를 원한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의 참여는 정치적관계의 개선없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러한 리유에서 조선과의 정치적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것이다. 특히 일본은 만성적인 불황상태에서 출로를 찾지못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북조선 경제건설에의 참여는 자기들의 경제침체를 벗어나는 하나의 돌파구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¹⁰⁾

조일수뇌회담 다음 날인 2002년 9월 18일부 日本經濟新聞에 《資材調達先を日本企業に限定するタイド(ひも付き)方式を原則とする案も浮上している》 《日本商工会議所の山口信夫会長は「両国間に太いソートが出来たのが成果」…》 《奥田碩日本經濟連合会会長は17日、「首脳会談を高く評価する。」…》 라는 기사가 실린데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계에서는 조일수교문제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④정권기반의 강화

일본의 국내정치에 눈초리를 돌리면 조일관계개선은 정권유지전략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될수 있다. 일본에서 내각수상의 지지율은 정권의 지속성과 기반강화에 작용하는 하나의 지렛대이다. 선거를 정권장출의 기본형식으로 하는 의회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유권자의 동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정의 실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고이즈미정권의 지지율이 조일수뇌회담 직후 60%대로 회복하였다. 조일수뇌회담을 전후한 시기 뿐만 아니라 최근년간 조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지지율이 소극, 심중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80%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일관계개선이란 외교실적의 《정권기여도》는 결코 무시할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일본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정권기여도》로 되는지 불리한 소재들이 적지 않다. 쌍방수뇌들이 복잡한 외교지사에 발목이 묶이었던 조일관계문제를 대국적견지에서 대하고 그를 풀기 위한 정치적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을 달가와 하지 않고 있는 세력들은 랍치문제를 감정적으로 극대화하여 반공화국적대의식을 고취하는 대대적인 캠페니아를 벌리고 있다. 지금 일본사회에는 조일관계개선에 적극적이면 그것이 곧 비난의 대상으로 되는 《공기》가 팽팽하다.

이미 본것처럼 조일수교가 정치,경제,안보,외교 등 일본의 전반적인 국익 실현에서 반드시 해결해서 넘어가야 할 외교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보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일본내

반공화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시적인 인기전술에 사로잡힌다면 조일간의 관계를 복잡화하고 나아가서 수교문제까지도 수포로 돌아가게 할수 있다.

최근에 《정상화교섭은 끈질기게 추진한다》는 정부견해를 편발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일본당국자들도 랭철하게 판단하고 있을것 같다.

일본정부가 현재 일본내 《공기》에 《역행》하여 대국적판단에 따라 원칙적선에서 조일간에서 국교정상화의 방식을 조를하여 국교수립에 착수한다면 한 때 여론의 랭대와 비난이 집중될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본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의 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게 될 뿐만아니라 21 세기 일본의 활로와 관련한 전반적인 국익의 달성에서 력사적인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한 신임도는 더 높아질것이다. 조일관계개선은 정권의 《안전비행》을 위한 순풍으로 될것이다.

3.대조선외교에 작용하는 변수

금후 조일관계의 일방인 일본측의 대응에는 몇가지 변수가 작용한다. 다시말하여 조일교섭에 림하는 일본측의 안전과 교섭 형식, 자세,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①미일동맹관계와 미일한공조체계

첫째로,일본 자주외교의 한계를 조건짓고 있다.

대조선문제와 관련한 일본 자주외교의 한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례를 들어 《朝鮮半島における3ヶ国協議の意義と日本の戦略》(CSIS 전략연구소 渡辺恒雄)에서는

…なかでも最も印象的な教訓は、1990年の金丸訪朝団である。金丸信元自民党副総裁率いる自民・社会党の訪朝団は、北朝鮮を訪問し、米韓との調整なしに日本から80億ドルの賠償金を約束した。しかも米国は、金丸訪朝の前に、今後の先行きを懸念して、北朝鮮との交渉では核開発問題を無視するべきで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日韓に送っていたにも関わらずである。この金丸訪朝団の決定は米韓両国から激しく批判され、結果的には日本政府は金丸を説得し、政府は政党間の合意に縛られないという苦肉の立場で、自民党、社会党と北朝鮮労働党の3党合意を無視することになった。以来、北朝鮮は日本が米国から離れた独自路線を行く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し、米国を最優先の交渉相手としてきた。次に1999年から2001年までの日本の朝鮮半島政策の軌跡を振り返ってみる。日本の北朝鮮政策は、時折、独自の立場からアプローチして短期的な問題を解決したいという政治的な誘惑にかられることがあっても、原則的には日韓米の3カ国協議と日米同盟の枠組みに収束してきたことがわかるだろう。… 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도 켈리특사 평양방문(2002년 10월 3일~5일)이후 미국은 일본,남조선과의 《긴밀한 공조》를 다지면서 조일회담이나 북남대화의 마당에서 《북조선의 핵개발 계획》을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문제를 좋게 발전하는 조일,

북남관계에 제동을 걸고 지역정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미국의 의도에 맞게 속도 조절할수 있는 구실로 리용하고 있다. 10 월 16 일 미국무성이 발표한 이른바 《북의 핵개발》에 대한 《긴급성명》이후 조일교섭의 본질은 일변하여 모든 것이 조미관계의 행방에 규제되게 되었다. 11)

수뇌회담 이후 일본은 대조선과의 단독 외교카드를 가지게 되었지만 조미관계의 흐름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할것이고 조미간의 중개자적역할을 하게 될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일본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선택으로 될수 없다. 특히 간파할수 없는것은 최근 일본이 미국의 전략적의도에 맞추어 《핵문제》를 내세우고 조선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국제적협력》을 강화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은 《선택포기》주장을 증폭시키면서 조선을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의 무모한 핵선제타격전략에 돌격대로 나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어부지리를 얻어 보자고 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조선은 미싸일발사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데 더는 아량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12)

대조선 외교에서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에 적극 동조하고 대리인역할을 하는 이상 조일관계에서 일본이 제 1 차적 국익으로 삼고 있는 안보문제의 해결은 미궁에 빠질수 있다.

둘째로, 다른 한편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현실적인 외교공간》이라는 측면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원밑에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오늘 또다시 해외팽창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상투적수법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제사전 P878)

미일동맹관계는 일본외교의 기축을 이룬다. 미일은 안보, 경제의 량국간 관계를 넘어서 국제정세, 지구규모의 문제에 이르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서 일본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익의 달성을 추구해 왔다. 21 세기 일본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가치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정치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단, 레를 들어 미국은 UN 안보리 상임리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강력한 지지자 ▲중국의 군사력증강과 대두 등 일본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파트너 ▲일본이 정치대국화를 지향하여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역할의 증대를 추구하는데 전략적명분을 제공 13) ▲특히 조일관계의 측면에서는 동맹관계에 있는 초대국인 미국의 존재와 더불어 조미관계의 중개자란 일본의 립장이 교섭과정을 《유리하게 주도》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카-드라는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이것은 현재 조일교섭에서 보이고 있는 일본의 대응에서도 알수 있을것이다.

3 국공조체계는 일본의 대조선외교에서 놓칠수 없는 공간이다. 3 국공조체계도 본질

상 대조선반도정책에서의 미국과의 종속적인 동맹체계로서 일본의 대조선외교는 그 틀의 제약을 면할수 없다. 그러나 다른편으로는 지난 시기 일본이 조선반도를 둘러싼 4자협의에서 제외되고 있었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금후 대조선정책을 순 2 국간관계로 주도할수 없는 상황에서 3 국공조체계에로의 참가는 대조선외교 추진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3 국공조체계의 역할 분담의 테두리안에서 제한된 《독자적》인 아프로치에 따라 대조선외교 14) 를 하는것으로 추측된다.

② 《친미입아》의 디렘마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과 남의 다방면적인 접근의 확대강화를 축으로 이 일대 유관국들의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실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구조가 종식으로 향하고 이 일대 나라들이 공존,공영으로 나가는 추세속에서 아시아와 함께 세계에 경제적활력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는 동북아협력권의 출현이 현실로 다가와 있다. 이러한 흐름이 구심력으로 되어 레를 들어 평양수뇌회담 직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궤변하븐 정치선언이 ASEM 에서 채택된것처럼 세계는 조선반도, 동북아와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에 유독 조선과 수교관계가 없는 일본은 동북아의 공존,공영의 추세속에서 고립될수 있는 형편에 놓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조일수교는 21세기 일본의 전반적인 국익실현에서 절박한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관계로 인한 자주외교의 한계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고 있다. 물론 조미관계가 파격적으로 호전될 경우 그에 뒤따라 조일수교의 움직임이 가속도화 될것이지만 당면 조미관계는 교착상태에 있는것으로 보인다. 얼마전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여 이른바 반테로전쟁을 수행하는 《전시대통령》과 초일국주의 강경로선인 《부쉬도크토린》(2002년 10월 20일)이 신임됨으로써 부쉬정권의 대이라크 무력공격의 가능성과 더불어 외교의 외피를 쓴 대조선압박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에서 현재 대조선외교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될수 밖에 없는 일본의 역할은 이 지역의 추세와 더더욱 역행할것으로 관측된다.

경향적으로는 친미정책을 한편으로 하고 조일수교에 의하여 실현될 《입아》정책을 다른편으로 하는 두가지 《국익》사이에서 《시간적여유》는 커녕 매우 초조하고 어려운 외교선택을 하지 아니할수 없다. 일본의 대조선외교는 단중기적으로 이 디렘마속에 시달릴것이다.

③일본의 국내문제

일본의 국내문제도 조일수교를 위한 흐름에 일정한 작용을 할것이다. 개략적으로 본다면 첫째로 내정문제가 최우선 해결순위로 급부상하여 국정의 력점이 내정으로 크게

이행할 경우 외교의 침체를 면할수 없다. 고이즈미정권의 《구조개혁》의 좌절과 정국 운영의 미숙성은 국정에서 내분과 정쟁을 야기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불황의 장기화에 의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경기회복문제를 국정의 제 1 차적인 과제로 더욱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그 경우 예상되는것은 현 정권은 당면 경기회복에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것이다. 그리고 현정권에 대한 불심이 가속화되면 일본정치는 중의원해산에 표준을 맞춘 선거전으로 일변될것이고 그 후 새 정부내각 구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나가타쵸정치》에로 치중할것이다. 이처럼 일본정치의 벡토르가 경기회복을 비롯하여 정국문제 등 국내에로 극단적으로 향할때 외교적으로는 한때 휴식상태가 조성될수 있다. 이러한 정치흐름이 조일수교를 위한 움직임에도 적지않는 공백을 조성할것이다.

둘째로 랍치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와 그와 련동한 여론의 동향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랍치문제해결은 일본측이 조일교섭에서 제 1 관문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랍치문제로 말한다면 근본원점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이다. 바로 여기로부터 조일 두 나라는 전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적대관계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복잡한 일련의 현안문제들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근본원점부터 해결하여야 하며 이 문제해결의 순조롭고 유리한 조건인 공고한 신뢰관계를 조일 두 나라사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조일간의 기본문제인 과거청산문제를 해결한데 기초하여 수교를 우선적으로 실현하여 교류를 활성화하고 서로의 이해와 신뢰관계를 두터이 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일본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제기하는 랍치사건의 《미해결문제》도 조일수뇌상봉의 결과로 마련된 조일관계의 전환적 분위기속에서 차근차근 협의해나가면 얼마든지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게 해결될수 있는 문제이다.

조일수뇌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0일 아사히신문은 《大局を見失うまい》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일본측이 랍치문제를 비롯한 금후 조일교섭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와 립장을 시사한 이 사설에서 《悲慘な拉致の国家犯罪が分かれば、普通なら「国交断行」になりかねないのに、今回は国交政正常化に向けて乗り出すという。引っかけがあっても無理はない。だが、普通ではないのは、事件が国交のない異常な国家関係の中で起きたからに外ならない。では、どう考えたらよいのか、冷静に頭を整理しておきたい。》라고 하면서 《難しい要素が絡み合う日朝交渉は綱渡りにも似ている。だが、閉ざされた国の窓を大きくこじ開けた首相訪朝の歴史的意味を前向きに生かさない手はない。拉致事件の究明や対策にいつそう神経を使うべき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同時に大局を見失ってもならない。》라고 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앞으로도 랍치문제만을 극대화하고 반공화국 감빠니아를 계속 여론화한다면 사태를 걷 잡을수 없는 지경에로 몰아 갈수 있다.15)

일본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스스로가 일본의 안보에 역행하고 곤경에 몰아 붙일 상황이다.

랍치문제가 조일교섭의 《효과적인 카드》로서가 아니라 OUT 를 의미하는 마지막에 남은 《조카(Joker)카드》로 될수 있다. 일본당국에게는 그들이 제기하는 현안문제의 현실적이고 순조로운 해결과 전반적인 국익의 견지에서 그리고 비정상적인 조일 두 나라사이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견지에서 팽철한 정책조를 해야 하는것이 립박하고 있다.

맺음을 대신하여

2002 년 현재 일본측의 대조선외교를 논문에서 정리한 내용에 의거해서 시론적으로 종합한다면 상반되는 두가지 정책의 흐름속에서 힘들게 외교의 타를 조종할것 같다.

중단기적으로 예측할수 있는것은 전반적국익의 달성⇔조일관계의 근본적해결⇔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지향하는 공존공영형정책과 미일관계선행⇔구력사인식⇔반조세력·여론 추종⇔에 의거한 재래식정책(랭전형대조선정책)이라는 상반되는 정책을 좌표축으로 대조선외교가 위치이동 할것이다.¹⁶⁾ 일본측에서 본 조일국교정상화의 의미는 21 세기 일본의 정치,경제적인 활로와 련관된 현안의 외교과제이니 만큼 새 세기와 시대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바람직한 정책선정과 외교자세의 전환이 긴요하겠다.

이 논문집이 발간되기 까지 3 개월을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러한 관계로 2003 년 이후의 정세와 조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했다는것을 양해해주시 바란다.

주:

- 1) 2002 년 11 월 1 일 조선신보 조선 외무성 아시아국 박룡연부국장의 인터뷰
- 2) 《일본의 외교정책》 김성철편 세종연구소 2000 년, 발간사 참고
- 3) 地理データファイル 2000 年度版、VI、帝国書院
- 4) 2002 년 11 월 10 일 シンポジウム「21 世紀アジアはどこへいくのか」配布資料, 谷口誠 (早大現代中国研究所所長)
- 5) 지역협력, 지역간협력의 현황(2002 년현재,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에서)
~ASEAN, ASEAN+3 협력, ASEAN 지역퍼럼(ARF), 일중 《한》 3 국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시아유럽(淸畧)회의(ASEM),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퍼럼(FEALAC), 아시아아프리카퍼럼(AAF), 아시아아프리카비즈니스퍼럼(AABF), 아시아아프리카투자기술이전 촉진센터
- 6) 北東아시아라고도 표기한다. 동북아시아의 지리적범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좁은 의미에서는 조선의 북과 남, 일본, 중국의 동북 3 성, 로씨야의 극동지역, 몽골이 포함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조선의 북과 남, 일본, 중국, 로씨야의 극동지역과 동서씨비리, 홍콩, 대만을 포함한다.

- 7) 環日本海經濟研究所「ERINA 情報」2001 年 1 月掲載論文-「北東アジア經濟協力の新たな方向模索」李昌在、洪翼杓
- 8) 2002 年 대외관계 타스크퍼-스의 보고서 《21 세기 일본외교의 기본전략》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첫째 가는 국익으로 지적
- 9) 2002 年 4 월 3 일 워싱턴 미국문제연구소에서 발표된 倂居闕했뵐들뜰긔긔 레포트
- 10)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 고문, 2002 年 9 월 27 일 기고 참조
- 11) 2002 年 11 월 7 日 読売新聞 論点、中西輝政京都大学教授
- 12) 2002 年 11 월 30 일 조선중앙통신의 론평
- 13) 《미일동맹외교》 세종연구소 김성철편 2001 年, P52
- 14) 安倍官房副長官 2002 年 10 월 13 일 후지 TV 에서의 발언
- 15) 2002 年 9 월 26 일 조선중앙통신 론평
- 16) 상징적인 것이 2002 年 11 월 5 일 요미우리신봉에 게재된 兪중뵐뵐뵐가 제창한 조일수교교섭에서의 5 개원칙이라고 말할수 있다.①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부분적해결은 하지 않는다 ②하나씩 착실히 해결해 나가야 하며 랍치문제와 핵무기문제는 그 제 1 관문이다 ③남조선과의 국교회복에서 제기한 조건이상의 것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경제협력문제는 최종단계에서 수행한다 ⑤일본, 남조선, 미국이 삼위일체로 되어 대처한다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재래식대조선정책에 조일교섭에서 주도권확보를 노리는 의도를 가미한 교섭원칙이라고 말할수 있다.

비대칭의 국제정치력학의 새로운 지평

—조미, 조일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전철남

서론

이제까지의 국제정치에 있어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혹은 인구, 영토의 크기와 지정학적인 위치 등 총체로서의 국력의 비대칭(非對稱)은 약소국들에 강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느냐 복종하느냐의 선택지밖에 남기지 않는 대문제였다. 현재도 국력의 차이는 국제관계의 우열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라는 측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국제정치란 개념자체가 근대국가형태가 성립한 후에 생긴 것이며 그때까지는 위협과 강제(복종이나 조공 등의 강요), 그리고 전쟁과 강탈이 그 주류였다. 로마제국이나 오스만, 토이기 등의 과거에까지 올라 가지 않아도 15세기부터 17세기전반에 걸쳐 전개된 대항해시대(大航海時代)를 레로 올리면 충분할것이다. 뽀르뚜갈, 에스빠냐 등의 구라파선진나라들은 새로운 대륙을 찾아 대양으로 나갔다. 그 결과 <신대륙>을 발견했으며 거기에서 살고 있던 부족이나 민족을 강대한 군사력으로 무차별로 파괴하고 살륙하고 복종시켰다. 동시에 식민지 지배와 압제 밑에서 강간(強姦)에 의한 <동화>, 언어, 종교, 문화의 강제침투에 의한 <동화>으로 순한 노예의식을 심어서 그 땅에서 막대한 자연자원, 곡식, 인간이란 부를 수탈하였다. 대항해시대의 해외침략이 그 후의 구라파에 의한 세계지배의 문을 열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7세기이후 선행파전나라들 대신 등장한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화란, 벨지끄,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늦게 등장한 미국 등이다. 이 구미열강들은 치열한 식민지쟁탈전을 벌렸다. 이 쟁탈전의 과정에서 국제정치라는 개념은 서로의 이해관계, 즉 국익의 조절시스템로서 차츰 확립해 나갔던것이다. 매개 나라들은 안전보장의 확보, 위신의 발양, 경제리익의 획득,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등 여러 대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속에는 자기 나라의 선전,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수집,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한 모략공작이 포함되고 있었던것은 물론이며 오히려 초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된 일이었다. 국제정치가 미성숙된채 세계는 제국주의나라들의 대립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제1차, 제2차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과 그 반성에 립각하여 국제련맹이나 국제련합 등의 국제기관이 성립되었으나 새롭게 제기되는 국가간의 분쟁이나 민족분쟁들에 대하여 유효적이며 실효적인 역할을 충분히 다해 왔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국에 의한 국제기관리용, 혹은 무시로 인하여 사태가 복잡해 질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니 이 경우가 현대국제사회의

중대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수 없다.

동서냉전이 끝난 후는 국제사회는 여러 국가의 세력균형을 안전원리로 하여 대화나 교섭을 통한 대외목표의 실현을 지향하여 그 틀속에서 자기 나라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 협조와 공존공용을 기본목표로 하고 협의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 외교의 성과가 된다는 공통인식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연하게 대국이 약소국 즉 비대칭적우위(非対称的優位)에 있는 나라가 비대칭적열위(非対称的劣位)에 있는 나라에 대한 횡포한 압력, 부당한 제재,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가하는 구도는 전혀 달라 지지 않고 있다. 대항해시대의 단순하지만 은폐된 살육과 정보화시대의 복잡하고 본질이 교묘하게 은폐된 살육의 놀라운 공통성을 간과할수 없다.

이러한 전제밑에서 이 논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이 랭전후 유일하게 남은 초대국민 미국과 또 미국에 추종하는 일본 사이에서 벌린 약 10년간의 외교교섭을 하나의 사례로 하면서 국제정치력학(國際政治力学)의 극복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또 그것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의 시론을 서술해 보려고 한다.

1, 조미관계에서의 비대칭성의 극복

현재까지의 국제정치의 력사는 비대칭적우위에 있는 나라가 비대칭적열위에 있는 나라에 양보한 례가 거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가령 있다고 하면 총체적인 국력에 있어서의 우위국을 전쟁이란 방법로서 열위국이 굴복시켰을 때만이라고 생각된다.

례컨데 1904년부터 1905년에 걸쳐 만주와 조선의 지배를 둘러 싸서 싸웠던 로일전쟁을 들수 있다. 아시아의 작은 신흥국가였던 일본은 <일본해해전>등에서 승리함으로써 당시 구라파최대의 군사국가였던 로씨아에서 양보를 쟁취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것을 고려하면 완전히 열위에 있었다고는 말하지 못할것이다.

최근의 례로서는 1973년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지향하는 북월남과 남월남민족해방전선이 남월남정부군과 미군을 구축하여 승리한 월남전쟁을 들수 있다. 1975년에 남북월남은 공산당정권하에서 드디어 통일되지만 패배한 미국은 이것을 저지시키지 못하고 20년후인 1995년에는 국교를 정상화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듯 전쟁이란 비상수단은 이저까지 열위국이 우위국에 이기는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너무나도 심대한 고통과 희생, 물질, 인적피해를 쌍방에게 (특히 열위국에) 가져 오며 거의 모든 경우 열위국이 일방적으로 패하며 더욱 가혹한 열위에 떨어 지는 위험성을 동반한다. 포크란드분쟁에서의 영국의 일방적인 승리나 만전쟁에서의 미국과 영국의 대승리와 전후의 이라크의 곤경을 보더

라도 그 립증은 충분할것이다. 자기가 피해를 입어도 상대방을 때려부시는 비장한 각오 없으면 전쟁이란 비상수단은 선택하지 못하며 또 될수록 선택하면 안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1950년부터 53년까지의 치열한 전쟁은 남측에 미군이 북측에 중국군이 가담함으로써 쌍방이 전력적으로 균형된 결과 정전협정을 맺어 일단 전쟁을 정지시킬수밖에 없었다. 그 정전상태로 이제 반세기가 지나 갔다. 전쟁은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와 북남분단고정화라는 커다란 비극적인 유산을 남겼다. 분단고정화의 주된 요인은 조미대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측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지향하여 수많은 군축제안이나 대화를 호소하였지만 미국은 그것들을 모두 무시하였다. 이 무시상태의 계속은 첫째로 미국이 랭전속에서 쏘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교두보로 남측을 확보하고 싶기 때문에 분단고정화를 원했다는것, 둘째로 총체적인 렬위에 있는 조선이 미국을 대화마당에 끌어 내는 결정적인 외교카드를 획득하거나 미국측에 제시하지 못했다는것, 셋째로 랭전구조가 교착화되는 과정에서 조선반도분단이 동서대결의 틈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분단관계국들에 망각되었다는것들을 그 리유로서 렬거할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석유자원같은 매력을 안가지며 동시에 한번 다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복잡한 사태를 회피하고 싶은 미국에 있어서 비대칭적렬위에 있는 조선을 무시하여도 자기가 상실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것이 주된 요인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이 구도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것은 1988년부터이다. 이 눈녹이현상에 랭전구조붕괴의 세계적인 지각변동이 영향을 준것은 틀림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랭전종결을 맞이하여 조선반도의 랭전구조도 종결시키는 결의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것은 결코 아니였다. 모양만으로 끝날번했던 미국을 대화마당에 끌어 내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조선의 이른바 <핵무기개발의혹>이였다. 미국과 날카롭게 대치하는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극동전략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뿐 아니라 해무기의 수평확산(水平拡散)을 허용하는 계기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익>과 세계전략에 큰 불안요인이 된다고 미국은 인식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조미간의 비대칭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 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핵의혹의 수년에 걸치는 긴장된 교섭의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는 책들에서 해명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쓰지 않겠다. 다만 조선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과 그 후의 일촉즉발의 전쟁발발위기를 레로 들면서 조미의 비대칭적관계의 동등전위(同等轉位), 혹은 역전전위(逆轉轉位)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핵의혹소동이 시작된 첫시기 조선과의 교섭에 나선것은 국제원자력기관(IAEA)이였다. 1992년에 조선은 미국이 조선과의 외교교섭을 시작한것을 평가하여 IAEA와의 사찰협정에 조인하고 특정사찰(IAEA에 핵사찰을 받는 나라가 신고한 보고에 따라 그 내용이 그대로인가 어떤가를 현지에서 확인하는 사찰)과 통상사찰(특정사찰에서 확인된 시설 및 핵물질이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하는

사찰) 을 받아 들이지만 미국의 지시를 받은 IAEA는 이제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특별사찰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제사찰) 을 강요하게 나섰다. 그래서 조선은 1993년 3월 12일에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NPT탈퇴표명을 하였다. NPT제10조의 제1항에는 <각 제약국은 이 조약의 대상인 사항에 관련한 이상한 사태가 자기 나라의 최고 리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주권을 행사하여 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고 있다. 조선의 NPT탈퇴성명은 국제사회를 당황시켰지만 조선정부가 NPT앞말의 <제국이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를 어떤 나라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대하는것도 또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못한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한것도 억누려야 한다>는 규정에 기대를 걸고 미국에서의 항상적인 핵의 위협을 조금이라도 제거하기 위하여 NPT에 가맹한 이상 그 정당한 권리가 위협된다면 이 조치는 당연한 일이며 합리적인 대응이었다. 그래서 조선측의 교묘함은 탈퇴발효를 위해서는 3개월이란 대기기간이 있다는것을 면밀히 계산한 우에서의 표명이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조선과의 본격적인 외교교섭을 주저하고 있던 미국에 대화해결을 결단시키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것은 명백하지만 더 미국을 궁지에 몰아 낸 사변이 같은 해 5월 29일에 조선이 3발의 다단식미사일발사에 성공하여 그 중 2발을 하와이와 그암 앞바다에 도달시킨 일이다. 핵개발의혹은 부정하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의 실질적인 개발능력을 미국에 과시한것은 핵의혹이 상으로 미국을 공포로 떨리게 한것은 틀림없다. 실지로 미사일발사로부터 몇일후인 6월 2일에 조미회담제1라운드가 열려 조미공동성명을, 7월 14일에는 제2라운드가 열려 조미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 동안 조미의 총체적인 비대칭성에는 거의 변화는 없다. 있다면 조선이 미사일사에 성공하였다는 군사력강화의 과시만이며 실질적인 개발개시도 실전배비도 아니었다. 그러나 실패를 명백히 알아므로 하여 적에 필요이상의 의심과 불안을 주는 정치수법과 절묘의 타이밍으로 조선측은 미국을 대화마당에 인도하고 양보를 얻어 내는데 성공하였던것이다. 이제까지의 력사가 증명하듯이 전쟁이외의 방법으로 약소국이 대국에 크게 양보시킨 예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또 약소국이 강력한 외교카드를 행사함으로써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사례는 없었다. 여기에 아마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전쟁이란 비상수단을 쓰지 않고 비대칭성의 극복, 즉 동등전위와 역전전위가 창출되었던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것은 미국의 양보는 조선에 대한 <선물>이나 <옛>이 아니라는것이다. 미국의 선택은 자기 나라의 <국익>에 맞는 최선의 합리적인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할수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주 필연적인 결과였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비대칭성의 전위가 이룩되었다는것은 세계정치사상 매우 드물고 경탄해야 할 사변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보수층에서 보면 굴욕적이며 허용하기 어려운 <양보>에 대한 반발

이 있었고 클린턴정권자체가 핵의혹의 해명 즉 핵개발의 <과거와 미래>의 검증만으로 <장래>를 방지될수 있다고 보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2라운드이후 사태는 악화되었다. IAEA가 특별사찰이나 제재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더 사태를 악화시켰다. 조미관계정상화를 시야에 넣은 일괄타결방식을 이야기하는 제3라운드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 참지 못하게 된 조선은 다시 미국을 궁지에 몰아 넣는 방법을 취했다. 그것은 념변의 흑연감속로에서 연료봉을 꺼 내어 교환하는것이였다. 연료봉이 교환되어 처리되면 <과거>의 검증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조미간의 군사적긴장은 격화되고 일촉즉발의 직전까지 다달았다. 마치 그 때 카타이전미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님과 회견하였다. 미국의 유명한 국제자나리수트인 돈 오바도바는 이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통합참모본부의장은 최초의 선택자를 이미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차차로 부대를 증강한다는것이며 국방총성과의 협의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어서 제2의 선택지가 설명되었다. 전투기와 새로운 항공모함함대, 그리고 1만명이상의 증원부대를 파견한다는 안이였다. 그 때 호와이트하우스의 스타프가 돌연히 방에 들어와 카타가 평양에서 전화를 걸어 왔다고 전했다. 옆의 방에서 전화에 나가라고 지시받은 가루치는 카타의 흥분된 소리를 들었다. 김일성이 핵계획을 동결하고 IAEA의 사찰관을 남기는것에 동의했다는것이였다. 카타는 이번 돌파구를 계기로 하여 미조고 관급협약제3라운드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하고 호와이트하우스의 승인을 받고 싶다고 전하였다. >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김일성-카타회담에서 위기는 회피된것같은데 실상은 다른 점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즉 김정일서기 (당시) 가 첫째로 미국과의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둘째로 조선은 미국이 군사적위협은 할수 있어도 절대로 전쟁은 못한다는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점, 셋째로 김일성-카타회담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도 전쟁은 회피할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코 회담의 력사적인 의의를 부정하자는것은 아니지만 조미교섭의 본질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대화라는 수단으로 조선반도의 복잡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던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위와 결과를 쉽게 추측할수 있었던것이다. 여기에서도 비대칭의 역전현상을 상징적으로 엿볼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위기를 의도적으로 초래시킨것을 비난하고 작은 나라인 조선이 초대국인 미국을 도발하고 자극한 행위는 북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벼랑끝정책>이며 너무나도 모험주의적이라는 지적은 여러군데에서 있었다. 전쟁이 회피된것은 여러 우연성과 행운이 가져다 준 기적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이라크경우는 전쟁으로 이르렀다. 랑전종결직후에 일어났던 1991년의 만전전쟁은 이라크의 참패로 끝났다는것은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호세인은 미

국과의 전쟁을 무서워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다는 이라크주재미대사의 애매한 약속에 몰락되어 의도적인 책략에 속여서 호세인이 치명적인 오산을 했다면 왜 미국과의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

그것은 싸우는 결의는 있어도 현저한 군사적비대칭성앞에서는 적의 전쟁의욕을 상실시키거나 단념시키는 위협이 되기는커녕 꺼꾸로 그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라크는 중동지역의 군사대국이었으나 도저히 미국과는 비교할수 없었다. 또 이라크병사들에게는 미군과 싸운다는 대의명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연약성이 있었다. 지도자의 결단이 국민일체, 군대일체의 공통인식으로 안될 경우 위압은 헛된것으로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라크에 있어서 또한 치명적인것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군사력을 안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몇발의 미싸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기는 했지만 작은 피해를 주었을뿐 군사적인 위협을 주지도 못하였다.

국제정치 (특히 적대국가간의 외교) 는 치열한 교섭이다. 극단하게 말하면 속이는가 속아 넘어 가는가의 가혹한 두뇌전인데 그 신경소모전을 보증하는 군사력이 불가결하다. 군사력이란 군대의 장비만 가리키는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의 힘과 정신력에 담보된 힘이며 실질적인 군사적위력을 의미한다.

조선이 만전쟁의 결과와 미군의 새무기의 위력을 충분히 검토했다는것은 비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검토우에 서서 조선은 미국에 대하여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화에는 대화으로>라는 기본원칙을 견지하였다. 선제공격에는 전면전쟁으로 응한다고 했는데 혹시 확고한 군사적담보가 없었더라면 이라크와 같은 신세가 된것은 만무하다. 조선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안했다는 점과 만일 전쟁이 되면 끝까지 싸우는 의도를 명백히 하면서 평화적인 수단의 해결가능성을 언제나 미국측에 선택지로 남겼다. 즉 전쟁하는 의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하는 고등전술을 활용했던것이다.

물론 조선과 미국과의 군사적비대칭성은 현저하며 보통같으면 미국이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공격했다는것은 충분히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조선이 이라크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전쟁이 가져 오는 참화와 서로가 입게 될 피해의 측면에서는 군사적비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았다는것이다. 그 리유의 첫째는 4 대군사로서에 의하여 조선의 국방력과 반격력은 미국이 예상한 이상 강하다는것, 둘째 인민과 군대가 일치단결한 전투의욕이 고도로 유지되며 철저히 저항하는것이 예측되고 있다는것, 셋째 군사분계선부근에 배치된 무수의 단거리미싸일과 중거리미싸일의 위력이 대단하다는것들을 들수 있다. 특히 단거리미싸일과 중거리미싸일은 선제공격을 당한 시점에서 일제히 남조선이나 일본의 미국 동맹국들에 발사되어 서울이나 도교가 <불바다>가 될것은 확실하다고 예측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표적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핵전쟁과 같은 돌이킬수 없는 참화와 결정적인 타격을 북동아시아지역에 줄것은 불가피하다. 미군통합참모본부에 의한 조선반도유사시뮬레이션시나리오인 <5 0 2 7 작전계획>보고의 놀라운 내

용, 즉 미군과 그 동맹국이 입게 될 심대한 피해를 보고 클린톤은 조선과의 전쟁을 단념했다고 한다. 이렇듯 조미간의 군사적비대칭성은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미국은 조선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절위에 있는 조선이 오히려 정치적주도권을 가진다는 이제까지 국제정치에서 나타나 본적이 없는 진기한 현상이 생겼던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하여금 조미간의 군사적비대칭성의 해소나 역전전위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클린톤정권이 조미회담 제3라운드개최에 응하여 조미관계의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제시한 조미기본합의문에 조인한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의 희생물로 되어 왔던 수 많은 나라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 등 군사를 비롯한 비대칭성을 극복하지 못한 탓으로 비애와 비참한 피해를 입어 온 작은 나라들을 목격해 온 사람들에게 조선의 대미전략의 성공은 용기와 희망을 안겨 줄것이다. 종래의 비대칭성의 국제정치력학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던 조선의 외교는 국제정치력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고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2. 조일관계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의 여러가지 문제 (생략)

3. 비대칭성극복의 자률성과 타률성 (생략)

4. 맺음

랭전이후 비대칭성의 국제정치력학을 극복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조미교섭과 조일 수뇌자회담은 획기적인 지평을 열었다. 물질적인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요인은 정신적인 비대칭성의 활용에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우위만으로는 물질적인 비대칭성을 극복할수 없다. 일종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랭전이후의 평화와 공존공용을 요구하는 재편성의 흐름속에서도 의연하게 군사력의 비대칭성은 약소국에 비애와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의한 평화, 그러발화란 미명아래서의 미국화, 즉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국지배의 야망이 세계를 또다시 불안정과 싸움속에 말려 들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군사확대를 장려하는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정도의 군사력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두뇌외교가 불가결이다. 그 구체적인 계가 조미핵교섭이후의 조미관계였다고 생각된다.

조미기본합의에 의하여 신뢰조성과 화해의 길로 나간다고 예측된 조미관계가 정체된 주된 이유는 조선이 경제적곤란으로 붕괴될것을 미국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교착상태를 타개한것은 조선이 1998년에 첫 인공위성을 쏘 올리는데 성공한것이다. 이것은 평화적인 우주공간의 리용을 시도한것이지만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

일개발능력을 가졌다고 보았다. 사실 조선은 미국이 그렇게 인식하여 군사적위협이라고 받아 들이는것을 사전에 예견한 토대우에서 인공위성을 쏘 올렸던것이다. 이것은 군사적인 긴장이 아니라 겨꾸려 긴장완화를 가져 왔다. 2000년 10월에 조미고관들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통하여 생겨 난 <조미반테로공동성명>과 조미의 적대관계종결을 선언한 <조미공동컴뮤니케>가 그것이다.

그러나 부쉬정권의 출범과 그 강경정책에로의 전환이 조선반도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군사적인 긴장과 새로운 전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의 동시다발테로이후 미국은 반테로국제전선을 새로 구축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당연한 결과는 바로 비대칭성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또 부쉬는 이라크, 이란, 조선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짓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을 드디어 감행하였다.

미국은 동서랭전기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그 후는 <불량배국가>를 <적>으로 삼았지만 자기의 일국지배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9. 11>는 부쉬정권에 있어서 <구세주>와 같은 구실이 되었다.

조선이 개척한 비대칭의 극복은 환상였던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것이다. <반테로>란 공통의식과 국제공동전선의 구축과 그 전개는 실패로 돌아 간다고 예측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반테로>가 미국의 독선적인 단독행동주의의 도깨비간투로 되고 있는 사실이 점점 명백히 되어 왔다는것, 둘째로 테로에 대한 전쟁은 새로운 증오와 폭력의 무한연쇄만을 불러 일으킨다는것, 셋째로 미국의 일국지배를 허용하지 않는 정도로 다른 나라들과의 비대칭은 해소되어 나가고 있다는것 (EU와 유로경제권의 탄생,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의 태두 등), 넷째로 비대칭적 열위국들의 각성과 결속,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와 국제정치질서구축에 대한 완고한 욕구와 실천이 있기때문이다.

21세기 미국의 초대국으로서의 지위는 당분간 지속될것이지만 그 지위는 영원한것은 아닐것이다. 대국이나 강국의 번영과 쇠퇴의 력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가 약소국들의 비대칭성극복의 세기가 될것을 조선이 개척한 국제정치에서의 평화적방법에 의한 비대칭성의 극복실천을 충분히 예견시켜 준다. 조일국교정상화, 조미국교정상화, 북남연방제통일의 실현이란 조선반도에서의 랭전구조해소의 시도는 비대칭성극복의 새로운 국제정치력학을 창조하는 용기와 예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약소국들에 안겨 줄것이다.

남조선정권의 성격에 관한 재연구

최용해

지난해 말에 진행된 남조선의 대통령선거는 그 승패의 문제와 더불어 종래의 대선에서 보지 못한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반세기 남짓한 우리 민족의 분단사에서 이번 대선은 남조선에서의 일반적인 권력교체, 즉 하나의 관례적인 정치일정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향방과 남조선사회의 구조개편에 커다란 작용을 하는 민족사적 이정표가 되었다고 특징지을수 있을것이다.

본론문은 이번 대선의 결과와 로무현정권의 출범을 김대중정권으로부터의 연속성속에서 거시적이며 민족사적인 관점에 서서 분석하여 오늘의 시대상과 재일조선인운동이라는 토양을 전제로 남조선정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론적으로 제기하려고 한다.

또 논문의 맺음을 대신하여 현행총련사업에 대한 몇가지 정책제언을 하려고 한다.

1. 남조선정권의 성격에 관한 기존의 연구

1) 사회성격론쟁과 <식민지반자본주의론>

1980 년대이후에 진행된 남조선의 사회성격론쟁은 당시의 시대상과 변혁의 근본요구를 담은것으로서 남조선사회의 모순과 구조, 그리고 변혁의 방향성과 그 방법론을 밝히는데서 매우 유익한 론쟁이었다.

그것은 80 년의 광주민중항쟁의 교훈으로 부터 도출된 리념의 부재, 전위의 부재, 로동계급의 헤게모니의 부재, 그리고 반미운동의 부재라는 남조선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명시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인 작업과 실천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이후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드넓지 않는 초석으로 자리잡게 된것이다.

남조선에서의 사회성격론쟁은 70 년대까지의 포퓰리즘적 운동관을 극복하고 변혁운동을 과학의 토대위에 올려세우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운동권과 학계에서의 치열한 론쟁은 그 동안 터브시되여온 남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부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사회성격론쟁에서 론쟁주체의 리념적인 주역의 하나는 주체사상이였으며 남조선에서의 주체사상의 보급과 침투는 남조선사회의 모순구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론쟁과정에서 주체사상에 의한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의 대두와 확산은 론쟁의 질적 비약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민족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이후 남조선정치사와 민중운동사에 적지 않는 영향을 행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은 말그대로 남조선사회의 기본성격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식민지에서 자라는 자본주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가 되지 못하며 기형성과 전근대성을 면치 못할뿐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종속화가 심화된다는것을 이론적으로 론증하였다.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은 당시 공화국의 대남전략의 이론적 토대로서 극심한 랭전체제와 분단질서의 침예화, 그리고 탈랭전후 제국주의공격의 화살이 공화국에로 모아지는 정세추이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 위업과 총련의 조국통일운동에서도 드넓지 않는 전략적 지침으로 자리잡아 우리의 세계관과 실천의 출발적 전제가 되여왔던것이다.

2) 남조선정권에 대한 본질적 규정으로서의 <식민지피뢰정권론>

남조선의 사회성격론쟁에서 그 핵심제마가 된 남조선의 국가적성격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정권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괴뢰정권이고 남조선사회의 기본모순은 외세와의 지배-종속관계 즉 민족모순에 있다는것이였다.

남조선정권을 식민지괴뢰정권으로 규정하는 론리적인 근거는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 명맥을 외세에 의하여 박탈당하고 있으며 국가주권이 실질적으로 양도되고있을뿐아니라 국가운영에서도 자주성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정치영역에서는 정권의 정통성문제가 핵심문제로 부각되여 왔다.

남조선의 현대정치사 즉 정권의 산생과 재생산과정을 보게 되면 민족정통적인 요구와 지향을 거역하고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정권이 조작되였으며 거듭되는 민중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의해 쿠데타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친미대리정권이 재생산되여 왔다는것이다.

이는 리승만정권으로부터 김영삼정권까지의 정권교체사를 특징짓는 보편적인 시각이며 친미정권의 재창출이 미국의 대남조선정책수행에서 관건적인 문제였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정치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도 그 국가로선은 《한》미간의 조약과 협정에 의해 규제되고 국가정책은 《한》미간의 쌍무적협의기구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으며 그 집행과정마저도 미국의 현지 지배기구에 의해 감시감독되여 왔다는것이다.

다음으로 군사영역에서는 주《한》미군의 점령군적성격과 그 주둔의 시공간적제한의 부재, 그리고 국군통수권을 주한미사령관이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들로부터 남조선의 식민지적성격이 설득력있게 론증되여왔다.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 그리고 통수권문제와 제 2의 을사조약으로 불리우는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은 《한》미간의 종속구조를 적나라하게 밝혀놓고

도 남음이 있는 생동한 자료들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다음으로 남조선사회에 대한 <식민지괴뢰정권>론은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를 기본시각으로 하면서도 그 경제적 및 문화적 종속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해명을 주고 왔다.

남조선의 경제명맥은 미일독점자본과 다국적기업이 완전히 쥐고있어 90년대 IMF 사태도 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문제이며 남조선의 문화도 숭미, 공미사상이 재생산되고 미국문화가 쉽게 침투할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다는것이다.

총괄적으로 <식민지괴뢰정권론>은 남조선에서 정권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또 80년대 경제의 량적성장이 이루어져 국가운영에서 상대적지불성의 폭이 확대되면서도 정권의 본질적속성은 그 현상과는 배리되게 더욱 종속화되어간다는것을 밝혀낸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들은 《대한민국》의 탄생으로부터 김영삼정권에 이르는 동안 남조선정권의 본질을 분석하는데서 진리성을 가진 매우 유익한 시각이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80년대와 90년대의 변혁운동과 민중운동의 질량적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김대중정권이 탄생하는 과정과 그 진보적성격이 로무현정권으로 확대재생산 되여가는 오늘의 망야적인 현실과 가능성앞에서 <식민지괴뢰정권론>의 력사적진리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조선의 정치사를 민족자주의 방향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로무현정권과 그 밀받침이 되어있는 남조선민중의 자주적의사와 힘을 새로이 평가해야 할 민족적과제가 나서고 있음을 제기하는 바이다.

2. 남조선정권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1) 재검토해야 할 근거

1 체계에서 밝힌 남조선정권의 본질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앞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그 진리성으로 하여 오늘날까지 공화국은 물론 총련과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 속에서도 남조선정권을 보는 기본시각과 립장으로 지탱하여왔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사의 추이와 조성된 제반 정세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근거로부터 남조선정권의 성격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민족사가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부터 비롯된다.

<식민지론>을 기본시각으로 가지게 된 배경에는 령전체제와 북남간의 대립, 그리고 남조선에서의 군부독재 및 반통일정권의 재생산이라는 명백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 년에 마련된 6.15 공동선언은 북남관계의 패라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으며 그것은 <대립>으로부터 <화해와 공존>이라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올해 공동사설에서 명시된 공화국의 <우리 민족 대 외세>라는 정치적구호, 경의선과 금강산육로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을 비롯한 교류협력의 실체가 남조선정부라는 사실, 그리고 련북화해와 반외세로 급속한 정신적트란지손을 진행하는 남조선의 민심은 우리 민족사가 통일시대로 진입하고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가 될것이다.

민족사의 새단계와 북남관계의 패라다임의 전환은 우리 관점을 계급적인 가치관으로 부터 민족적가치관으로 전환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단계에서의 통일문제에 립하는 모든 립장과 가치관은 민족중심적관점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령전시기에 류통되고 또 유익했던 계급적관점인 국가중심주의 즉 반국적관점은 철저히 극복되어야 한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진리는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맞게 자기갱신하는 과정에서만 그 진리성을 유지할수 있으며 한 시대의 진리가 다음 시대의 반동으로 굴러떨어질수도 있

음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바이다.

명백히 말하건데 우리 나라 분단의 실체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며 분단질서는 민족 실체의 자기 부정, 반대로 통일은 민족적실체를 살리는 역사적당위이며 자기 긍정이다.

때문에 현단계에서 반국적관점을 고집함은 민족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부정이 될것이다.

통일의 대상과 동력의 견지에서도 <식민지론>은 남조선정권을 통일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견해이며 현단계에서의 이 립장의 교조적인 답습은 상기한 <우리 민족대 외세>라는 공화국의 전략적인 립장과도 이를배반이 되는것이다.

둘째로, 남조선의 국시와 정권운영 그리고 정치과정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근거로 들수 있다.

남조선의 국시는 그 탄생이래 철저한 반공이었으며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는 남조선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로 내재화되어왔다고 말할수 있다.

김대중정권의 <해별정책>은 그 자체의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있으면서도 남조선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박혀온 반북리념과 의식 그리고 그것을 지탱시켜온 사회구조를 타개하는데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지 아니할수 없다.

김대중정권이 단서를 마련한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은 그야말로 민족사를 일대 전환시킨 역사적인 사변이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지난시기 헌법우에 군림하여 초헌법적권한을 휘두르던 《국가보안법》은 그 역사적사명을 다하고 대체립법에 의한 역사적매몰을 기다릴 뿐이다.

최근년간 전개되어온 북남간의 합작과 교류는 정부와 민간 차원을 불문하고 《국가보안법》이 제기능을 놀지 않고 있을뿐아니라 그 역사적사명이 끝났다는것은 남조선의 민중차원에서도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또한 4.3 제주항쟁과 광주인민봉기의 희생자들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 항쟁자체에 대한 정통성의 부여가 정부차원의 <특별법>제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정권의 성격과 그 시책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최근 남조선의 정치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게 되는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로무현의 당선배경이다.

현상적으로 보아서도 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에 비해 외세에 의한 간섭과 로골적인 부정선거가 극히 상대화되었을뿐 아니라 90년대이후 시민의식과 시민운동의 확산이 IMF 사태를 비롯한 민족모순의 첨예화로 이어지면서 반미자주라는 정치성을 띤 민중의식으로 확대재생산되어 이번 선거의 승패에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된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로무현정권의 지향성은 그 속성과 기반으로부터 미국에 대한 종속구조의 재생산이 아니라 반대로 그 타파에 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뿌리내린 종속구조를 타파하는것이 장기성과 복잡성을 띠는 문제이므로 로무현정권에 대한 외세의 압력이 극심하고 따라서 종속구조적인 잔재가 남는것은 필연적이라고 하겠으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여 김영삼시기까지의 정권과 동일시하는것은 형이상학적관점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로무현의 당선배경은 다각적으로 분석되어야 할것이지만 출범한 로무현정권자체가 민중의 정치의식이 정권을 안받침하고 또 반면에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 정권의 인적구성과 절대적권한을 행사하는 현행대통령제하에서 로무현의 개별적성향까지 넘두에 둘때 김영삼정권까지와는 엄연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은 지극히 자명한 일일것이다.

셋째근거는 재일조선인운동이 처한 환경과 그 존망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 재일조선인운동은 3 세로부터 동화를 비롯한 새로운 문제들이 산생되는 해외교포운동의 보편적인 시련과 전환기에 조직과 운동의 갱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한

조직의 약체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아니할수 없다.

재일조선인운동의 객관적환경은 랍치문제나 일본사회의 우경화 등으로 총련의 결성이래 가장 엄혹한 상황에 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재일조선인운동앞에 놓여진 시련은 일시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일본사회의 환경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중기성 또는 장기성을 띠는 문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당면과제는 운동의 보존과 운동기조의 전환에 있지만 우리 운동의 궁극적인 과제는 재일동포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 즉 그 운명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것이기에 그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질것이며 당당한 통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이 되었을때만이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와 제반 현안문제들이 해결되여나가는 명백한 단서가 열리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 운동의 활로를 마련하는 비결은 철저히 자기 조직과 운동의 자기갱신에 있으며 광폭의 동포들속에서 당위성을 가지는 운동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하는것이다.

민단과 미조직, 귀화한 동포들까지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광폭>을 운동의 리념으로 택한 이상 남조선정권에 대한 정책적대처는 운동의 토양인 광범한 동포사회와 그 구성원인 일군들과 동포들의 요구와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여야 할것이다.

상기한 우리 민족전체와 동포사회에서의 패라다임의 전환은 랑전시기에 류통된 반국적관점과 분단사고에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 운동이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거기에 귀속을 지향하는 <통일국가관>, <통일조국관>을 확립한다고 하여 공화국을 부정하거나 상대화하려는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민족사와 재일조선인동사에서 공화국이 조선민족의 의사를 담보한 유일한 합법정부로 탄생하고 그 력사적추이로부터 민족적, 력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고 참된 보호자였다는것은 드놀지 않는 사실이며 이는

우리 조직과 운동의 역사에 영원히 남아야 할 드팀없는 진리이다.

통일조국이 가지는 정통성은 공화국이 담보해온 민족자주의 도도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남조선정권이 자기 속성과 구조를 그 방향으로 부단히 지양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통일국가건설의 민족사적의의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남조선정권에 대한 사회과학적인식과 정책적대처를 재검토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며 이는 총련의 사회과학자들의 긴급한 이론적과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2) 로무현정권에 대한 시점

로무현정권의 성격을 사회과학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그 단서가 될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첫째는 로무현정권의 종속성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로무현정권은 명백히 개혁성과 진보성, 그리고 보수성과 종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다.

상기한 로무현당사자의 성향, 정권의 인적구성과 그 정책성향, 그리고 정권을 안받침하고 또 구속하는 민중의식의 성향으로부터 진보성과 개혁성이 로무현정권의 주된 속성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보수성과 종속성은 로무현정권의 기본속성이 아니라 부수적인 성격이며 그를 외세종속으로부터 민족자주에로의 과도기에 형성되는 <식민지적잔재>로 판단해야 할것이다.

종속성 즉 식민지성의 극복은 장기성을 띠는 문제이므로 이는 로무현정권의 첫째가는 극보과제인 동시에 시공간을 활용하여 극복해야 <민족전체의 과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둘째시점은 오늘의 시대가 통일시대, 공존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인식에 토대하여 남조선이라는 실체를 국가적, 정치적 실체를 보는것이 아니라 민족의 한 구성부분이며 나아가서 통일과정의 지역정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이다.

91 년의 북남합의서의 전문에는 북과 남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아니라 분단과정에 형성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규정지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의 제 2 항을 통해 우리 나라 통일은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통일방도확정의 공통인식을 마련함으로써 2 중권력적인 과도적단계를 거쳐 통일을 진행해나간다는 통일프로세스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았다.

국제정세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직시할때 련방정부의 설계와 구체적인 실천이 로무현정권시기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을 타산할때 남조선정권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응을 혁신하는 문제가 총련이 통일위업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는 필수 불가결의 문제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셋째시점은 사회과학적차원에서 현로무현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성격론자체가 체제의 변혁을 근본목적으로 하는것만큼 련방제를 지향하는 오늘의 력사적단계에서 그 방법론자체가 유용하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안으면서도 남조선정권의 성격을 리론적으로 해명하는 문제가 피하지 못하는 리론적과제로 상정되어있는것도 사실이다.

오늘의 남조선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 기존의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을 답습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그 성격을 <식민지잔재가 남아있는 자본주의사회>로 갱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상기한바와 같이 남조선정권의 종속성은 그 속성으로 구조적으로 지탱하고 있다기 보

다는 그 극복의 지향성과 공방전을 벌리면서 심각한 <잔재>로 남아있으며 그 사회구성체도 기형성을 안으면서도 <자본주의사회>의 테두리속에서 인식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시기 김대중정권으로부터 로무현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을 민족사적차원에서 포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이론적인 해명이 재일조선사회과학자로서의 자신앞에 제기된 절박한 과제임을 명심하면서 본론문을 맺고자 한다.

외세의 반통일 침략책동을 이기는 힘은 민족공조

— 조선반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관계구도에 대한 고찰에 기초하여 —

강민화

조선반도는 그 지정학적특성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렬강들에 의한 각축전의 마당으로 되어 왔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운명을 끊임없이 외세에 의하여 통략당해온 우리 민족이 지난날에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였으며 오늘도 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지금까지 조선반도문제는 그 당사자인 우리 민족의 의사에 관계없이 렬강들의 힘관계속에서 거론되어 오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반도문제와 관련이 있는 렬강이고 하면 《주변 4강》이라고 불리는 미국, 로씨야, 중국, 일본을 통털어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 막는 장본인은 미국이며 또한 그에 추종하는 일본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민족 대 외세의 정치 군사적관계구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에 기초해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길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1. 조선반도를 둘러싼 현 정치·군사적관계구도—《2 중삼각구도》

조선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정치 군사적관계구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제각기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구도이다. 필자는 이것을 《2 중삼각구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2 중삼각구도》는 우리 민족의 힘이 분산되고 외세가 그로부터 어부지리를 얻을수 있게 되어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도이다.

이 《2 중삼각구도》는 표면상 각종 조약과 협약에 기초한 동맹관계와 적대적공존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표 ①)

우선 분단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보면 그동안 1972 년에 7.4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1991 년에는 그 기본정신인 조국통일 3 대원칙을 재확인한 북남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리행되지 않은 채 분단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0 년 6 월에 북남 수뇌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이 평양에서 진행되고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분단상태를 끝장내기 위한 조국통일의 새 리정표가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그를 리행하는 과정에 있다.

다음으로 북과 외세와의 관계를 보면 공화국은 미국과도 일본과도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 있다.

조미관계는 조선정전협정(1953.7.27)에 의하여 교전이 중단되어 있는 관계이며 조일 관계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계, 사실상의 적대관계이다. 2000년 10월 12일의 조미공동컴뮤니케와 2002년 9월 17일의 조일평양선언에 의하여 조미, 조일 관계정상화의 길이 마련되었기는 하나 현재는 이 약속들이 사실상 무효화되거나 그 리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또한 남과 외세와의 관계를 보면 우선 미국과는 남반부에 《대한민국》이 생긴 즉시 외교관계가 맺어지고 일본과도 《한일조약》(1965. 6. 22)에 의하여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또한 《한》미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에 기초한 군사적동맹 관계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관계이며 이것만 보다가는 《2 중삼각구도》의 진면모와 본질을 알수 없다. 바로 정치·군사적인 대립적대동맹관계와 종속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는데 이 《2 중삼각구도》의 본질이 있다.(표 ②)

우선 북남관계는 파죽도 언어도 문화도 하나인 단일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로 대립되어 있다는것이 그 진면모이다.

다음으로 북과 외세의 관계를 보면 우선 조미관계는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쌍방의 관계이며 따라서 그 본질은 외교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사적 문제이다. 또한 조일관계는 우에서 본바와 같이 과거 식민지통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계이며 이 관계 역시 본질은 외교문제도 경제문제도 아닌 정치문제이다.

그리고 남쪽과 외세와의 관계를 보면 우선 《한》미관계는 《한미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1950. 7. 14)에 의하여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이 미국에 장악되어 있는것을 비롯한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있다. 또한 《한》일관계는 그 자체가 미국의 지휘밑에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하위적종속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2 중삼각구도》에서 기본축을 이루는것은 조미관계이다. 조미관계는 적대관계이면서도 양자가 그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것으로 하여 《2 중삼각구도》안에서 유일하게 대등한 관계이다.

《한》미관계는 예속관계이기 때문에 남측이 대북관계에 독자적으로 립할수 없으며 또한 미국이 남쪽에 압력을 가하거나 북과의 긴장상태를 조성하면 북남관계가 한걸음도 진전될수 없게 되어 있다.

일본이 분단된 조선반도의 한쪽을 적대시하고 다른 한쪽을 종속상태에 두고 있는 그릇된 정책은 분단관리정책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반영이다. 또한 조일관계 역시 일본이 미국과 종속적동맹관계에 있기때문에 북남관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하여 그 진전 여부가 좌우된다.

최근년간 조선반도정세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것은 미국이 공화국과의 대화와 협상에 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미국의 고립·압살 책동에 선군정치로 당당히 맞서서 자기 제도는 물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공화국의 노력에 의하

여 조선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 있다.

2. 《2 중삼각구도》를 우리 민족을 기본축으로 하는 《단일삼각구도》로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치 군사적관계구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가지 교훈이 도출되게 된다. 그것은 민족의 힘이 분산되고 한쪽이 외세에 의하여 지배되고 종속되어 있는 기형적인 《2 중삼각구도》가 우리 민족을 기본축으로 하는 《단일삼각구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것이다.

이 《단일삼각구도》는 더 말할것도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맞서 나가는 구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와 통일문제가 북과 남을 불문한 전체 우리 민족 대 외세의 문제로 되여야 한다.

분단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기본모순은 결코 북남간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외세간의 모순이다. 만일 이렇게 문제를 보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거나 민족내부의 사상·제도상 차이를 절대시한다면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고 분단상태를 장기화할뿐이다.

21 세기 통일의 새 리표정표가 마련된 《6.15 시대》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는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 계급적리해관계를 모두 초월하여 오직 민족의 리익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서 굳게 뭉쳐야 한다. 그리고 북과 남이 제각기 주변나라들과 맺은 조약이나 관계보다 민족의 리익이 우위에 서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가 북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과 위협을 가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민족성원들이 그를 자기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반대배격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6.15 공동선언의 핵을 이루는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맞서 나가는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실현가능한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민족 내부에서 일어난 의식변화와 려량관계에서의 지각변동에 의하여 실증되고 있다.

날을 따라 가증되는 미국의 간섭과 압력, 반통일세력의 집요한 방해와 도전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에 있어보지 못한 자주적인 민족대단결의 력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우리 겨레의 민족자주의식과 동족의식이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나 비상이 높아 졌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지난 1980 년의 광주사건을 계기로 남녘동포들의 투쟁이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부터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하였다면 그것이 21 세기에

들어와서는 지난해 부쉬의 서울행각반대투쟁에서 보게 된 것처럼 미국의 그릇된 대북강 경책을 반대하는 보다 새로운 단계어로 발전한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에 나uer린 두 녀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무참히 깔려 죽은데 분노한 남녘동포들이 초불바다를 이루며 벌린 투쟁에서도 나타났다. 《효순이, 미선이를 살려 내라!》,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하라!》, 《부쉬는 사과하라!》는 그들의 웨침은 반드시 《양키 고홈!》과 함께 《핵전쟁위협, 문제는 미국이다!》, 《북미불가침조약 체결하라!》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올해 벽두에는 북측이 공동시설에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무분별하고 모략적인 전쟁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자고 호소하자 남녘동포들도 《2003년을 지주와 평화의 해로 하자!》는 구호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마침내 서로가 지향과 보조를 같이 하게 되었다.

민족내부에서 자주의식과 동족의식의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것은 또한 남녘동포들이 6.15 공동선언과 그에 의하여 마련된 민족적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기운을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로부터 기어이 지켜 낸데서도 알수 있다.

지난해 말에 있는 남조선 대선은 통일문제, 대북관계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부상하고 사실상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애국민족세력과 친미사대매국세력간의 첨예한 대결전의 양상을 띠고 진행되었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리회창은 선거기간중에 자기가 집권하면 6.15 공동선언을 《파기하겠다》느니 《짚고 넘어가겠다》느니 하면서 민족의 통일념원과 의지를 정면으로 반대해 나섰다. 그런가 하면 그는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압살책동을 《잘 하고 있다》고 찬양하였으며 미국이 북의 《핵개발》을 떠들고 《전쟁불사》를 선언하면 그에 적극 동조하기도 하였다.

리회창의 이와 같이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체질을 똑똑히 인식한 남녘동포들은 마침내 그에게 락선의 심판을 내렸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맞서 나가는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북과 남을 가리지 않으며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이 남녘동포들에게 있어서도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녘땅에 핵무기를 반입한 때로부터 생겨났다. 미국에 의하여 남녘땅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초기지, 거대한 핵저장고로 전변되었으며 온 조선반도가 핵참화를 당할수 있는 항시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녘동포들은 부쉬가 북을 《악의 축》으로,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선포한데 대해서와 지금 《핵개발》을 구실로 그들이 감행하고 있는 대북압살책동을 자기들에 대한 위협이며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규탄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이라크 다음 목표는 북조선의 체제를 붕괴시키는것》이라고 공언하자 남조선의 대통령당선자까지도 《미국이 어떤 씨나리오를 가지고 있

건간에 전쟁과 붕괴, 이 두가지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미국이 북의 붕괴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남이 편안치 못하면 북도 편안할수 없고 북이 재난을 당하면 남도 재난을 면할수 없다.

3. 민족공조에 기초한 거족적인 반미항전으로

우리 민족 대 외세, 이렇게 문제가 서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굳게 단합하고 힘을 합쳐 외세의 오만하고 횡포한 반통일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야 할 때이다.

6.15 공동선언의 대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는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족공조는 민족주체의 힘을 굳게 믿고 사대와 외세의존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는 자주리념의 구현이다. 민족공조는 또한 민족끼리 힘을 합쳐 단합하여 나간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곧 민족의 대단결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민족은 비록 북과 남으로 갈라 져 살고 있어도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뗈수 없이 련결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민족끼리 공조하고 단합해 나가야 하며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것을 말해 준다.

민족공조, 바로 여기에 민족의 안전을 지키고 화해와 통일과정을 활성화해 나가는 길이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 인하여 통일운동과 북남관계가 시련을 겪고 있는 오늘날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르는 민족공조로 이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온 겨레가 민족공조로 나가는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이 6.15 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변함 없는 리정표로 확고히 틀어 쥐고 그를 철저히 고수·리행하는것이며 공동선언을 파괴하려는 반통일세력을 반대배격하는 것이다.

북에서 선군의 기치밑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도 남에서 반미·민족자주의 기치밑에 벌어지고 있는 투쟁도, 또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반대하는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투쟁도 모두 6.15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한다는 공동의 목표밑에 벌어지고 있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더욱 굳게 련대련합하여 자기들의 투쟁의 예봉을 외세에 집중하여야 한다.

최근에 미국의 행정부내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병력구조의 재검토》가 거론되고 정계안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는것과 같은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자체는 그들이 남녘동포들의 반미기운이 피땀해서 하는 소리일것이고 또는 북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미군이 인질이나 과녁으로 전락된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라고도 볼수 있다. 이것이 진짜로 미군철수에로 이어 지게 하려면 민족의 힘이 굳게 뭉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핵문제》를 구실로 하는 미국의 압살책동을 반대하고 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과 남녘동포들의 반미, 반전, 평화 투쟁이 굳은 민족적뉴대를 이루고 벌어져야 할것이다.

또한 남녘동포들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폭 넓은 통일세력을 형성한 경험에 토대하여 높은 수준의 투쟁과 낮은 수준의 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사이의 련계와 뉴대를 보다 긴밀히 함으로써 폭 넓은 반미투쟁세력을 형성하는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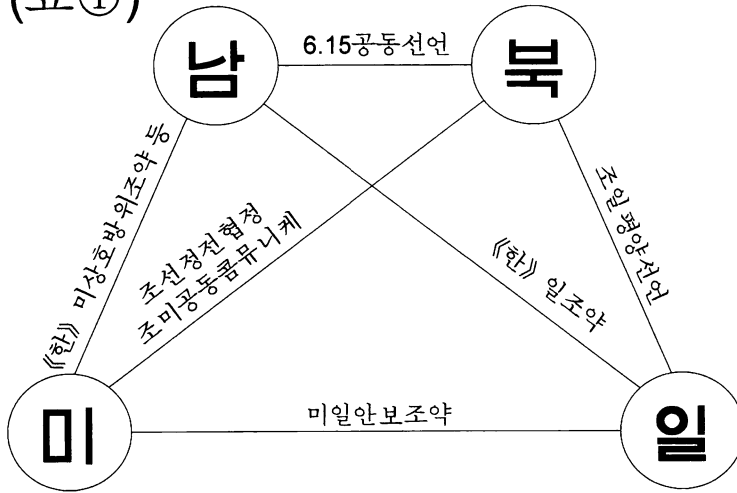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추구하는 남녘의 한나라당과 같은 반통일 사대매국세력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거족적으로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북과 남,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은 거족적인 반미항전으로 확대발전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이 투쟁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외세의 반통일침략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할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로 이어질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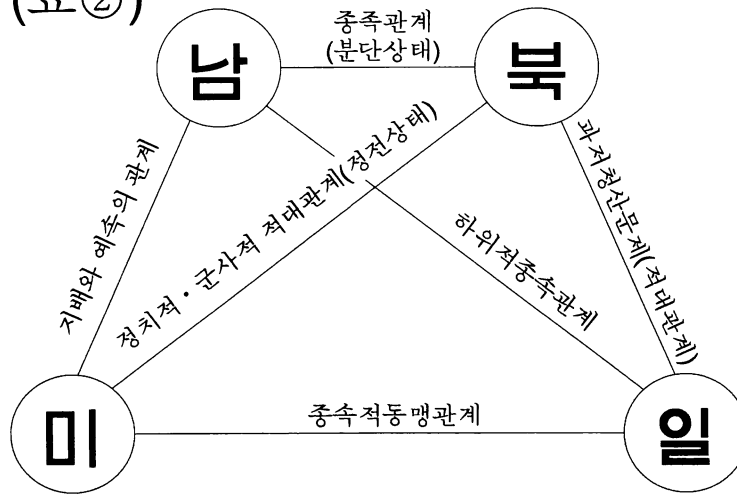
오늘 조선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대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세는 엄혹하며 우리 민족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그러나 낙관적인 미래를 내다보며 올해의 힘찬 진군을 개시한 해내외 온 겨레는 6.15 공동선언을 변함 없는 리정표로 내세우고 민족주체의 위력으로 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 올것이며 21 세기의 가까운 몇해안에 반드시 삼천리 강토에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표 ①)



(표 ②)



《타프트-가쓰라비밀협약》과 미제의 아시아정책

백종원

일제는 군사적위협으로 《을사5조약》을 강요하는데 앞서 미국과 《타프트-가쓰라비밀협약》을, 연이어 영국과는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타프트-가쓰라비밀협약》의 기본내용은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로 된 필리핀에 대하여 일본은 침략적의도가 없다는것을 보장하고 그 대신 미국은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것을 인정한다는것이다.

《제2차 영일동맹》은 그 공수동맹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조약의 적용범위를 인디아에까지 확대하여 일본이 영국의 아시아 침략정책에 협력하는 대신에 영국은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는것을 승인한다는것이다.

전쟁종결을 위한 로일강화조약 교섭이 아직 끝나지도 않는 단계에서 서둘러 맺어 진 이 강도적인 두 조약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단독적강점을 승인한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이라는 큰 식민지를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제국주의국가로 출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침략적인 두 조약체결을 계기로 일본은 미, 영을 선두로 한 국제제국주의체제에 확고히 편입되었다.

(1) 조선강점을 승인한 배신적협약

로일전쟁에서 로씨야가 패배한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렬강간의 세력균형에서 중대한 변동이 조성되었다.

로일전쟁에서 직접교전국은 로씨야와 일본이었으나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뒤받침하고 프랑스와 도위칠란드가 로씨야를 지원한데서도 볼수 있는듯이 이 전쟁은 렬강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있는 제국주의전쟁이었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로씨야의 패전은 제국주의 세계체제내에서 세력범위의 재편성을 촉진하였다.

《타프트-가쓰라비밀협약》은 이러한 정황에서 진행된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식민지재분할책동의 일환이었다.

전쟁 수행에서 국력을 탕진하고 그 이상 전쟁을 계속할수 없는 일제는 전국이 아직 유리한 시기에 강화교섭에 들어 갈것을 노리고 미국에 알선을 의뢰하였다.

이리하여 奉天會戰과 조선해협해전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시기에 미국대통령 세오도아·루즈벨트의 중재로 강화회의가 미국군항 뽀츠마스에서 진행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육군장관 타프트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의회의원단은 필리핀시찰로 가는 도중 1905년 7월 하순 일본을 방문하고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쓰

라는 도표에서 비밀회담을 가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19세기 말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으며 1905년에는 가쓰라와 타프트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도와 주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1권 264페이지)

원래 1882년 5월에 체결된 《조미조약》에는 조선유사시에 미국은 《必須相助하여 善爲調處》 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발린 말로서는 뼈저린 조약상의무를 운운해 놓고 뒤에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승인하고 있으니 이 비밀협약이야말로 비렬한 미제의 배신적본성을 들어 내 놓은것이다.

(2) 미제의 침략적 《문호개방정책》

비밀협약에서 필리핀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제가 아시아에서 《門戶開放政策》을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서 필리핀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였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일제의 침략적의도에 대하여 미제가 의연히 의심을 품고 있는것과도 관련된다.

미국이 1899년과 1900년에 재차 아시아에서 통상무역의 기회균등을 주장한 《門戶開放政策》은 미제의 전반적인 아시아정책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이였다.

그것은 아시아 진출에서 뒤늦어지고 당면은 강력한 군사력을 파견할수도 없었던 미국이 유럽 나라들이 이미 차지한 세력권내에도 침투하여 기회균등의 간판밑에 자기 권익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침략정책이였다.

《문호개방정책》에 뒤이어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운하 개설에 착수하고 (1904년) 아시아 진출에 더욱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무장관 데이는 1898년 7월에 《에스빠냐와의 전쟁의 결과 아시아에서 우리의 리익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생긴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이 시기 미국에서 흔히 주장된 소위 《대정책》(Large Policy)은 이와 같은 아시아 진출을 말하는것이였다.

로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하고 중재자로서 강화조약 체결을 성사시킨 미국은 아시아 문제 개입에서 발언권을 증대시켰다. 미국은 자기 영향력밑에 일본을 끌어드리고 《문호개방정책》추진을 위한 세력균형구상을 실현하는데 리용하려고 한것이다.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수행에서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정책의 책원지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기본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육군장관 타프트를 단장으로 하여 80여명의 상,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대형 대표단을 파견한것이다.

일행은 1905년 필리핀시찰로 향하는 도중 7월 25일에 요코하마에 기항하여 타프트는 7월 26일에 명치와 회견하고 다음 27일 오전 일본수상 가쓰라 다로와 비밀 회담을 가졌다.

(3) 합의를 본 비밀협약의 전문

회담에서 합의를 본 필리핀과 아시아에서의 《평화유지》문제, 조선문제 등에 대하여 타프트는 7월 29일 국무장관 루트에게 아래와 같은 3항목으로 되는 비밀협약 전문을 전보로 보내었다.

오래 미공개였던 비밀협약의 전내용을 밝힌 이 전문은 존·호프킨즈대학에 재직하고 있었던 벤넷트가 1924년 위리암스타운에서 열린 정치학계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외교문서 등 정부공간사료에서도 일부가 삭제되고 전문이 없었다. 워싱턴의 미국의회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던 이 원문은 조지대학의 長田彰文 조교수가 찾아낸 것인바 동 조교수의 협력으로 입수한 것을 이하 번역하여 게재한다.

타프트의 보고전문은 다음과 같다.

루트국무장관 앞

본관자신이 일본수상과의 회담에서 합의를 보게 된 각서는 다음과 같다.

《타프트장관은 가쓰라백작과 7월 27일 오전 장시간에 걸쳐 비밀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논의된 화제중 필리핀군도, 조선과 극동의 전반적인 평화유지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들이 교환되었다.

첫째로 일본의 승리(주-로일전쟁에서의 승리)는 필리핀군도 방면에 대한 일본 침략의 확실한 서곡이라고 민중이 믿도록 하려는 미국의 일부 친로파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타프트장관은 필리핀에 대한 일본의 유일한 리익은 그의 의견으로는 필리핀군도가 미국과 같은 강력하고도 우호적인 나라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필리핀이 아직 자치에 적합하지 않는 현지인의 잘못된 통치하에 있거나 혹은 비우호적인 어느 유럽 나라의 수중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쓰라백작은 매우 강한 어조로서 이 점에 대한 그의 견해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하여 그 어떠한 침략적의도도 안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비꼬아서 말하는 《黃禍論》 같은 것은 일본을 해치려는 고의적인 악의에 찬 졸렬한 중상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첨부하였다.

둘째로 가쓰라백작은 극동에서 전반적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대외정책의

근본적원리를 이루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그는 이 원칙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에 대하여 타프트장관과 의견교환할것을 열심히 희망하였다.

그의 의견으로서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고 실질적이며 유일한 방책은 탁월의 원칙 (Eminence) 을 확보하는데 공통의 리익을 갖고 있는 일본, 미국과 영국 3 개국 정부간에서 충분한 료해를 이룩하는것이다. 백작은 이 점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을 잘 리해하고 있으며 미국은 어떤 나라와도 이런 성질을 가진 공식적동맹에는 참가할수 없다는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간의 공통의 리익에 비추어 본다면 극동에 관한 여러 문제에 한하여서는 우호적량해 혹은 명의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맹을 이 3 국간에서 맺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그는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료해가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에서의 전반적평화는 쉽게 유지되며 유관 렬강국가 모두의 큰 리익으로 될것이다.

이에 대하여 타프트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미국대통령은 상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비밀적인, 비공식적협정과 동등한 어떠한 료해에도 참여하기는 곤란하며 실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령 어떠한 협정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국민은 극동의 평화유지에 관하여 일본과 영국의 정책이 충분히 일 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일본, 영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치 미국이 조약상 의무밑에 있는듯이 공동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할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셋째로 한국문제에 대하여 가쓰라백작은 한국은 대로전쟁의 직접적원인것인만큼 한반도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전쟁의 론리적귀결로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것은 일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만약에 전후에도 한국을 그들에게 맡겨 놓는다면 한국은 전쟁전에 있는것과 같은 준비성 없이 다른 렬강과 협약이나 협정을 맺고 국제적분쟁을 일으키는 관습에 되돌아 갈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에 일본은 한국이 이전과 같은 상태에 되돌아 가 일본이 또다시 다른 대외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무슨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타프트장관은 백작의 견해가 정당하다는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의 개인적의견으로는 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 어떠한 대외적조약도 체결할수 없다는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중주권 (Suzerainty) 을 일본군대에 의하여 수립하는것은 이번 전쟁의 론리적귀결이며 곧 극동에서의 항구적평화에 기여하는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말하였다. 그의 판단으로서는 자기는 이를 보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루즈벨트대통령은 이점에 관하여서는 그의 의견에 동의할것이라는것이다. 사실 타프트장관은 설명을 첨부하여 자기는 대통령으로부터 이

런 목적을 위한 어떤 위임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삼가해야 할 점도 많고 워싱턴을 떠난후 루트씨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일에 참견하는것 같은 인상도 주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하고 싶다는 가쓰라백작의 정중한 희망을 고려할 때에 그는 루즈벨트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무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형성된 견해의 표명을 거절할수 없었으며 루트와 대통령에게 회담의 각서를 송부하였다. 가쓰라백작은 같은 내용의것을 내밀이 고무라남작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

가쓰라수상은 회견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만일 본관이 자의적으로 또는 부정확하거나 부지부식중에 지나친 말이 있었다면 귀하는 그것을 수정할수 있으며 또 수정하리라고 믿습니다. 본관은 참견하는것을 바라는것은 아니지만 이상과 같은 정황하에서는 의견을 회피하는것이 곤란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바 진실을 말하였습니다. 가쓰라백작은 우리들의 회담이 귀하와 대통령만이 아는것으로 할것을 특히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리스콤 (주-주한 미국공사) 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귀하의 지시에 따라 외무성이 그리스콤에게 사본을 넘겨줄수 있습니다 (주-이하는 중국인에 대한 무관계한 사항임으로 생략함) .

이상의 보고를 받은 루즈벨트는 7월 31일 협약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는 확인회답을 타프트에게 보내었다. 당시 마니라에 있던 타프트는 미대통령이 이 협약을 확인하였다는 전보를 8월 7일 가쓰라에 보내었다. 이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밀협약은 정식으로 성립된것이다.

가쓰라는 이 미대통령의 확인회답을 곧 다음 날인 8월 8일부로 뽀츠마스에 있는 고무라 주다로전권에게 통지하고 있다 (일본외교문서 제381책 450페이지). 이것은 로일강화조약 단판중에 있는 그를 크게 고무한것으로 되었다.

이 비밀협약은 조선과 아시아에서 식민지쟁탈전에 바쁘게 참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정책을 반영한것이다.

아편전쟁후 미국은 망하조약 (1844년) 을 맺고 중국침략에 나섰으나 그후 남북전쟁이 계속되고 (1861~65) 련장에 비하여 아시아 진출이 늦어 졌다.

최초의 미대륙횡단철도가 1869년에야 완성되는 미국의 경우는 스에즈운하 개통 (1869년) 이전 유럽 나라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부터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남단을 우회하여야 하였던것만큼 아시아 침략의 조건은 더 불리하였던것이다.

미국은 이미 1850년경까지에는 산업혁명을 마치고 1900년에 이르러서는 공업년총생산액이 남북전쟁 이전시기에 비해 6배로 증대하였다. 80년대 말에는 선철과 석탄생산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실현하고 스탠다드, 유 에스 스틸 등 석유, 제

철부문에서 거대기업간의 합동이 촉진되어 미국의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단계—제국주의단계에로 이행하였다.

미국본토의 대륙횡단철도가 태평양항로와 연결됨으로써 미국은 서부해안과 아시아 나라들과의 거리를 일거에 단축시켰다. 미국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국내시장 중심이었던 시기를 크게 벗어나 광대한 해외시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빠른 자본주의발전에 따라 미국은 종래의 고립주의적인 《몬로주의》를 포기하고 아시아에 대한 로골적인 제국주의적인 침략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문호개방정책》이 바로 그것이였다.

당시 영국은 아시아 침략에 있어서 싱가포르, 홍콩 같은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기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제는 에스빠냐와의 전쟁 이전시기 그러한 침략적기지를 못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미제가 필리핀을 강점하게 된것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정책을 전개하는데서 강유력한 거점을 차지한것을 의미하였다.

(4) 미제를 등에 업은 일제

1871년 미국의 아시아함대가 조선에서 인민적반격 앞에 참패를 당한것은 (辛未洋擾) 조선을 단독점령하려던 미국의 침략야망을 파탄시켰으며 대조선정책, 아시아정책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미국은 자기자신의 값비싼 희생을 치르지 않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침략세력으로 등장한 일본군국주의를 앞잡이로 리용하는 정책으로 바꾸어 나갔다.

《타프트-가쓰라비밀협약》은 일본의 팽창적야망이 동남아시아, 필리핀방면을 지향할것이 아니라 북방에 있는 조선과 중국으로 돌아 가도록 하는것이 미국의 리익에 부합된다는데서부터 나온것이였다.

의화단사변 당시 열강의 공동출병중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일본은 미, 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아시아 침략에서 《극동의 헌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 영은 로씨야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일본을 리용하자는데서였다.

이 당시 중국본토는 이미 영, 불, 독에 의하여 식민지분할이 일단락한 조건에서 미제의 《문호개방정책》의 주된 과녁은 아직 열강의 세력범위가 고정되지 않고 시장으로서의 장래성이 큰 만주와 북부중국이였다.

이 시기 미국의 대외무역의 기본은 면제품이였는바 미국의 면제품이 중국시장에 의존하는 비율은 1899~1900년간 국내 전생산량의 실로 52%에 달하였다. 특히 만주무역의 중요 항구인 영구(營口)에서 구미 나라 총무역량 중 50%는 미국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제의 리해관계는 의화단사변 이후 사실상 만주를 지배하고 있던 로씨야와의 대립을 첨예화하였다.

영국은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열강에 의하여 중국이 분할되고 세력범위가 설정된것은 오랜기간 중국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영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였다. 영국은 중국시장을 위협하는 로씨야와 대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보조를 맞춘것이다.

로씨야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조선과 아시아에서 저들의 세력권을 계속 확보하는데서 미, 영, 일제국주의는 리해관계의 공통성을 갖고 있는것이다.

사실 미국대통령 세오도아·루즈벨트는 1900년 8월 28일에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안에 넣는것을 보고 싶다. 일본은 로씨야에 대한 견제력으로 될것이며 이때까지의 실적으로 보아 그렇게 평가할수 있다.》고 표명한바가 있다. 이것은 미국의 지배층이 로씨야의 남하정책저지와 조선침략, 미국의 앞잡이로서의 일본에 대한 기대를 로골적으로 실토한것이다.

미국은 《문호개방정책》을 만주와 북부중국에서 확대하고 상품수출뿐만아니라 철도, 광산 등에 대한 대규모적인 자본수출까지 강화할것을 노린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로씨야의 만주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배제하여야 하였다.

로일전쟁 당시 미국이 친일적태도를 취하고 일본을 재정적, 군사적으로 원조해 나신 것은 이 때문이었다.

청일전쟁후 로씨야를 주동으로한 《3국간섭》의 압력밑에 일본은 전쟁승리로 획득한 료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타프트-가쓰라비밀협약》과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영,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게 된 일제는 더는 로씨야의 간섭과 위협을 두려워 할것 없이 1905년 11월 17일에 악랄한 기만과 강압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강요할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에서 청국세력과 로씨야세력을 최종적으로 구축한 일제가 명치유신 이래 집요하게 추구해 온 조선에 대한 단독적강점을 실현하고 식민지정책을 강행하는 결정적계기로 되었다.

조선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대한 몇가지 평가(18 보) -치산치수사업을 중심으로-

사공준

치산치수사업은 지표면이 끊임없이 변하는것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사업으로 될수 없다. 침식작용, 운반작용, 퇴적작용은 항시적으로 일어나기때문에 그에 대처하는 자연개조사업도 항상 제기되는것이다. 특히 치산치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침식작용과 퇴적작용과 관련되는 대책이다.

우리 나라 치산치수사업의 기본방향결정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 사회력사적조건, 특히 과거에 홍수피해가 많았던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에서 제기되어야 할것이다. ①하천제방공사 ②사방, 야계공사 ③해안방조제공사 ④식수, 조립사업 ⑤방품림조성사업 등은 지대적특징을 고려하여 장기적전망계획에 따라 진행하는것이다.

치산치수사업의 대책은 해방후 동해안지구에서는 치산치수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개공사를 배합하는것이였으며 서해안지구에서는 관개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치산치수사업을 배합하여 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하는것이였다.

그 결과 지구적범위에서 발생한 이상기후현상, 그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고온현상, 호우에 의한 홍수 등을 극복하는데 적지 않는 기여를 하였다. 만약 치산치수사업을 하지 안했다라면 그 피해는 대단히 컸을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진행한 치산치수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방야계공사는 매개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을 타산하여 순차성을 정하여 한개 골짜기씩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공업의 발전을 전망하면서 진행하였다. ②특히 동해안에서는 사방림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다. ③하천정리와 제방공사를 잘 배합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건설, 하상파기, 수로정리사업 등에서 선후차를 잘 타산한것이였다. ④하천관리사업을 관개건설과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류의한것은 첫째로, 하천관리를 홍수방지와 관련 시킨것이며 하상파기, 수로건설, 제방건설을 잘 배합한것이다. 둘째로, 골짜기에는 시설물을 건설하며, 하천류역에는 보호림을 조성한것이다. 셋째로, 퇴적물에 의하여 하상이 높아지는것을 방지하는 공사의 대책을 세운것이다.

현재까지 전국적범위에서의 추진정형과 걸은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해방직후: 보통강개수사업 ② 1957~1961: 하천정리사업, 동해안지구의 치산치수사업이 중점, 대책은 홍수조절과 관련한 건설대상 600 개소, 하천제방건설 300 여km, 식수조립사업 수만ha를 추진하였다. 성과는 경작지에서의 홍수방지 12 만 6000 ha ③ 1961~1967: 홍수방지공사가 중심. 성과는 토지보호 1600 ha, 재방공사 10000 km ④ 1970년대~1980년대: 전국적범위에서 식수조립사업, 제방공사 1 만 2000 km, 사방야계공사 2 만ha, 제방공사는 대동강, 청천강, 성천강, 사방야계공사는 대동강, 청천강, 성천강 ⑤ 1990년

대: 치산치수사업을 토지정리사업과 결부하여 추진, 강원도 3만ha(1998년), 평안북도 5만ha(1999년), 황해남도 10만ha(2001년)이었다. 이와 같이 최근 4년 사이에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지에서 토지정리사업을 18만ha 완공하였다. 그리고 6000ha의 새 땅을 얻어내었다. 이 3도에서는 포전 151만 5108개를 55만 7594개로, 논두렁을 5만 3950km로 축소하였다. 2002년도 대상지는 평양시, 평안남도였고 2003년도는 황해북도, 함경남도, 개성시이다.

이글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진행한 치산치수사업을 3지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치산치수사업의 전지에서 본 우리 나라 지구구분

치산치수사업은 침식작용을 주도적인자로 하여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침식작용은 지형경사, 강수량의 강도, 식물피복상태, 토양조건, 하천특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침식작용과 관련시키면 우리 나라는 3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동해안지구(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2) 서해안지구(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시, 남포시,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 (3) 북부내륙지구(자강도, 량강도)

I 동해안지구

1. 동해안지구의 지리적특징

1) 지세의 특징

경동지괴의 전면에 위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개괄적으로 보면 평균높이 300~400m, 중산지대는 높이가 800~1000m, 저산지대는 상대높이 200~300m, 해안지대는 절대높이는 100~200m의 야산성사박지형이다.

지질은 하부원생대 마천령계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화강편마암, 화강암지대는 침식작용이 강하다. 경사가 급하다. ② 일부 석회암지대는 카르스트지형. ③ 제3기충분포지대는 구릉성지형이 형성되어 경사가 느리다. ④ 현무암지대는 대지와 덕지대. ⑤ 지질구조선지대에서는 구조선이 산맥과 하곡의 방향을 규제한다.

하천은 비교적 길고 서로 병행하여 흐른다. 따라서 지맥이 병행, 하곡은 분수령에 접근한다.

2) 지형조건

제3기~제4기 지각운동~특히 고제3기에는 조선동해가 침강(함몰), 반면에 내륙부가 융기하여 경동지괴가 형성되었다. 이 운동은 반복되었다. 그 결과 해안단구와 산록절벽을 형성하였다. 하천상류부는 현재도 융기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강하다. 레컨데 자강산지는 침식작용이 복잡한 경사면을 형성하였으며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에서는 사태, 붕락이 심하게 발생한다.

이를 더욱 분석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전산지대···600 m이상, 경사도 25° 이상, 침식우세 ②저산산록지대···600~300 m, 경사도 $12\sim25^{\circ}$ 하각침식작용이 우세 ③해안구릉지대···300~50 m, 침식식박지형, 구릉지대에서 침식우세. 하곡에는 2~3 단의 단구가 있다. ④해안지대···50 m이하, 퇴적~해식지형, 삼각주, 해식애, 암초 ⑤지맥의 하곡경사···중부~산정은 $20\sim35^{\circ}$, 중부~해안 $5\sim15^{\circ}$

이상과 같은 자연조건으로 면침식, 선침식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1)산사태가 발생하기 쉽다. 그 방지대책이 제기된다. (2)토사의 류실이 활발해진다. 그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3)지역에 따라 하천범람이 각이하게 나타난다.

3) 기후 및 수문 조건

(1)지형의 영향

①주변의 산맥(높이 1300~2500m)이 겨울의 세찬 바람을 막아준다. 또한 여름에는 강수량을 증대시킨다. ②하천은 산맥과 거의 직각으로 하곡이 발달하기에 여름철의 해풍의 영향이 내륙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③분수령이 동해안쪽에 치우치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수계를 제외하고는 하천이 짧고 집수면적도 적다. ④ 2~3 단의 하안단구면을 가진다. ⑤일반적으로 하천의 류속이 빠르다. ⑥소하천은 겨울에 동결한다. ⑦전반적으로 침식작용이 우세하며 하천하류부의 하상을 높인다.

(2)바다의 영향

①같은 위도의 서해안에 비하여 년평균기온이 10.3°C (남부지방)~ 6.3°C (북부지방) 정도 높다. ②바람속도는 해안보다 내륙부가 빠르다. 또한 속도는 북부가 강하고 남부가 약하다. ③강수량은 남부가 많고 북부가 적다. 일강수량이 200~300 mm될 때가 있다. 지형경사가 급하기때문에 산지에서는 침식작용이 강해진다. 또한 하천은 범람하기 쉽다. ④오호츠크해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5~8 월에 안개가 많다. ⑤전반적으로 습도가 높다.

4) 토양 및 식물피복 조건

토양은 지형경사가 급하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이동한다. ①평야 및 구릉 지대는 해발 200~300 m이하 지역이다. 년평균기온 $8\sim11^{\circ}\text{C}$, 년평균강수량 600~1200 mm이다. ②토심이 깊고 화학적풍화작용이 비교적으로 잘 진행된다. 총적지토양은 하천류역과 하천하류지역에 분포된 토양이다. 사양토가 우세하며 하천류속이 크기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래크기가 크다. ③식물상은 활엽수림, 식물피복은 남북의 차이는 적고 수식대성을 나타낸다. 원시림이 적고 인공림이 많다.

2. 동해안 지구의 치산치수사업과 중심과업

1) 방침

치산치수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관개사업을 병행하는 방침이다. 즉 치산치수사업을 수리화의 중요 구성부문으로 규정하고 사방야계공사와 제방건설, 하천정리사업(하상정리 포함)과 보호림조성과 병행하는 방침이다.

2) 대책

(1) 중산지대(해발 800~1000m)

지형적특징은 경사가 급하고 골짜기가 깊다. 토심이 얇다.

대책은 산악붕락방지, 사태방지를 위한 보호림조성

(2) 저산성구릉지대(해발 200~300m): 선봉~간변간의 지역이 포함

식물피복이 약하여 면침식이 심하다. 그러나 기반암이 노출되어 하천침식은 약하며 붕락과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 기온이 높아 암석의 화학적풍화작용이 강하다. 토심이 깊어 우식(雨蝕)이 심하다. 따라서 토사류설이 활발하다. 대책은 홍수방지, 보호림조성, 과수원 등 다락발건설, 사방림의 조성이다.

(3) 해안구릉지대(0~200m)

식물피복이 매우 낮아 면침식, 선침식이 심하게 나타난다. 대책은 침식방지구조물건설, 산림조성, 특히 하천하류부에서의 수로정리사업이 요구된다. 특히 리원~금야지역은 선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경사지의 수로건설이 요구된다.

(4) 저산성구릉지대 (두만강중류~하류지역 해발 200~400m)

선침식이 우세하다. 구릉성산지에서는 면침식을 방지, 하천하류부에서는 홍수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3) 방향

① 계획적인 산림조성 ② 산림조성을 위한 군중운동 ③ 지대적특성에 따라 대규모적인 사방공사의 실시, 특히 산경사지의 사방공사이다. 침식이 심하여 조림하기가 어려운 대상지이다. ④ 하천건설사업의 실시, 하천의 사방공사이다. 즉 하상이 상승하는가 하면 반대로 하각작용이 심하여 하천주변에서 사태발생의 위험성이 큰 지역에서의 사방공사이다.

3. 동해안 지구의 사방야계공사

① 성천강이북지역... 대체로 급경사지가 우세하다. 그리고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한다. 따라서 사태와 붕락이 발생한다.

② 성천강이남지역... 면침식은 약하나 경사지가 우세함으로 하천상류부에서 다량의 토사

가 류입한다.이것이 퇴적하여 다시 침식작용이 발생한다.

③남대천(길주)이북지역...이 지역은 사암이 분포된 지역이고 식물피복이 빈약한 지대이다.따라서 사암지대에서는 모래잡이 연제건설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산림피복을 개선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④남대천(길주)~성천강중류지역...산지에서의 모래류실을 방지하는 대책과 모래잡이연제 등 대책이 세워졌다.

⑤남대천(길주)이남 지역...사방공사가 기본이다.

⑥함경북도지역...붕락과 사태를 방지하는 사방공사가 기본이다.

⑦강원도지역...곡침식,면침식이 우세한 지역이다.따라서 사방공사,수로정리사업이 기본이다.

동해안지구의 사방야계를 중심으로 한 치산치수사업에서 거둔 성과

①함경남도 신흥군 영웅리의 모래잡이연제공사(본보기공사:1957)

높이 15m ,폭 60m,모래잡이 100 만m³, 그리고 이 시기 사방야계공사의 투자액의 57%가 모래잡이연제건설비였다.

②사방공사 2200 km,9700 ha(1986)

③수해방지 농경지 1467 ha(1986)

④산림조성 8722 ha

⑤하천에 류입한 모래방지량은 334 만m³.이리하여 하상상승으로 인한 범람을 방지,시설물의 침수방지,모래가 저수지에 퇴적하는 현상이 방지되었다.

4. 조선동해안의 하천제방공사와 하상파기공사

주요 대상지는 두만강수계,길주남대천수계,금야강수계,구룡강수계,선청강수계,덕지강수계.

표 1.조선동해안지구의 구조물배치(개소) 1984 년

	모래잡이연제	골막이	기슭막이	수로정리	흙막이	기타	계
강원도	5	160	77	19	-	61	322
함남도	33	255	132	-	-	-	420
함북도	55	233	32	-	43	-	358
계	88	648	241	19	43	61	1100

표 2.동해안 주요 수계별 사방야제공사(1984)

	공사	두만강	성천강	금야강	기타하천	계
공사	사방(ha)	719	1778	222	7003	9722
	야제(ha)	37	1098	79	1004	2218
보수	사방(ha)		3		20	23
	야제(ha)		101	1	69	171

방침

- ① 1954 년 11 월 전원회의: 개수공사 및 제방공사에 대하여 결정
- ② 1958 년 9 월 전원회의: 전국적으로 관개면적을 100 만로 확장,홍수방지조절지건설, 식수사업

표 3.주요수계의 사방야제공사의 효과(보호면적,길이,량) 1980 년대

	경작지 (ha)	산 립 (ha)	시설물 (m ²)	철도,도로 (km)	저수지 (町米)	토사류출방지량 (1000 m ³)
두만강	210	720	80	12	3	294
성천강	350	1780	253	27	3	2326
금야강	52	222	61	18	-	84
기타하천	855	6000	1050	61	33	635
계	1467	8722	1100	118	39	3339

- ③ 1959 년 3 월 조선로동당 함경북도확대회의:관개면적의 확장,홍수방지대책
- ④ 1963 년 8 월 함경남도 현지도:금야강개수공사,남대천(북청)치수사업,금진강치수사업,성천강보수공사

성과

- ①전후 3 개년계획기간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된 면적 16 만ha
- ②남대천(길주) 하천공사
- ③동해안지구 제방공사 1600 개소 2600km, 돌담쌓기 1200 개소 1400km,홍수로부터 보호한 농경지 10 만ha , 시설물건설 7000 동, 도로 700 km,철도 140 km, 호안림조성 240 km
- ④전국적으로 관개공사 700 개소

표 4-1.하천보호시설(1984)

	제방길이(km)	돌담길이(km)	호안림길이(km)
강원도	539	206	16
함남도	1389	642	62
함북도	817	617	167
계	2745	1465	245

표 4-2. 하천보호시설(1984)

두만강	580	177	
수성천	48	43	-
단천남대천	59	25	-
성천강	287	148	21
금야강	104	74	2
계	1078	467	27

남대천(길주)···제방공사 72 개소 100 km, 돌담쌓기 80 km홍수로 방지된 농경지 2900 ha,주택 1000 동,시설물 40 동,도로 20
 성천강·····제방공사 161 개소 287 km,돌담쌓기 118 개소 15 km, 호안림 21km
 홍수로부터 방지 농경지 2 만ha,주택 1600 동,공공시설 1300 동,
 도로 90 km,철도 17 km

II 서해안지구

1. 서해안지구의 지리적특징

①충적평야,구릉지대(100m 이하)가 많다. ②산맥(∼2000m), 산맥의 방향은 NNW∼SSE(랑림산맥,북대봉산맥, 피난덕산맥), NNE∼SSW(아호비령산맥과 마식령산맥), NE∼SW(적유령산맥,묘향산맥,언진산맥)이다. ③하계는 주요 산맥방향에 따라 배열되며 하천은 비교적 길고 구배가 누리다. 랑림산맥···장자강,삼교천, 적유령산맥···림진강,례성강. ④침식지형이 우세하다. ⑤해안지대에서는 기슭침식이 우세하다.

2. 서해안지구의 치산치수사업의 방침과 중심과업

1) 방침

관개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치산치수사업을 결합시킨다. 그 내용은 (1)관개공사: 대규모적인것은 평남관개,기영관개,어지돈관개,압록강관개 (2)하천정리사업 (3) 배수체계의 확립(고인물빼기) (4)산림조성 (5)사방야계공사 등이다.

방향

①내륙산간지대: 면침식막기 사방공사 골침식막기 야계공사

②평지대 : 관개공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하천제방건설

2) 공사중심

①산복(山腹)의 위험개소에 돌벽쌓기,수로건설 ②류속이 빠른 하천에서는 하상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언제건설 ③하천호안건설대책 ④하상이 높아지는 구간의 제방공사

3) 방법

①대하천상류부에는 사방야계공사 1968 년 8 월 신성천현지도, 신성천에서 전국적인 사방야계공사 방식상학실시 ②홍수조절지(洪水調節池)건설 ③모래잡이언제 ④하상파기공사 ⑤호안림조성

4) 서해안지구의 공사지대

(1) 대동강수계 ①상류부: 봉락막기 사방공사가 기본 ②골짜기: 하각침식(下刻浸蝕)방지공사 ③대동강류역: 사방,야계 공사

(2) 청천강수계 ①상류부 봉락막기 사방공사가 기본 ②수계의 골짜기: 하각침식(下刻浸蝕)방지공사 ③류역의 사방야계공사

(3) 압록강 류역 야계공사가 위주

(4) 레성강 류역 사방,야계공사

(5) 평북도 개울침식방지, 골막이,기슭막이(增水時)

(6) 평안남도 골막이 위주,모래잡이언제(봉락,사태방지)

(7) 석회암지대(단 대흥,녕원 제외)는 사태,면침식이 심하다.

(8) 대흥지대는 면침식이 심하다(사태길이가 100m 기록이 있다).

(9) 양덕,희창,성천에서는 면침식과 골침식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10) 자강도 희천 동사: 하상파기,토양류실방지, 희천지구는 분지임으로 퇴적작용이 우세하고 이로 인한 홍수방지가 요구, 자강도에서 골바닥가 급경사지대의 수로정리

(11) 침식이 약하고 산지대의 기슭침식을 막아야 할 지대:신평,린산,수안,곡산,신계,범동,판교,철원일부

(12) 화강암류분포지대(구성,태천,순천):침식이 심하다.구조물,모래잡이언제건설

(13) 평남이남지대:흙침식이 심하다.사방야계공사가 요구

(14) 석회암분포지대(해안의 중산성산지 및 저산성산지):사태,봉락이 거의 없다.

3. 서해안지구의 지대별 특징과 대책

(1)중고산산지대

평균고도 1000m, 랑림산맥,북대봉산맥,마식령산맥,태백산맥들이 있다.곡지가 깊고 토심이 얇다. 하천하류부의 강수량이 500~600 mm, 산악사태와 봉락이 있다. 산림피복이 좋다.

대책

①모래잡이연제건설 :면침식이 심한 지역에서 산림조성(양덕,신양,성천) ②사태,붕락이 심한 지역에서 곡지기습침척막기공사 ③토석류위험지대의 대책 ④보호림조성

(2)저산지대

해발고도 200~1000m,저산 구릉지대, 식물피복이 약하여 면침식이 심하다.

지질과 기반암(대동강중류는 화강암류,석회암지대는 면침식이 우세하다.례성강,재령강,림진강류역은 혈암분포지역이다)

대책은 ①면침식이 우세한 지역: 산림조성 ②곡지: 모래막이 ③수로직선화공사 ④하상퇴적막이 공사

(3)평야지대 중소하천에서 하각침식이 심하다.붕락방지공사,기습침식방지 사방공사

(4)치산치수사업의 기초구축을 위한 1960년대까지의 년대별공사

1946/5/21~7/15 서평양,대타령,토성량 일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통강개수공사토사 70 만m³ 뚝공사 5 km (1946/7/21 완공경축대회)

1946/4/6 문수봉 산림조성사업

1947/8 평안남도 강서군 동진면 청산리(현재의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홍수방지 공사(봉상강제방공사)

1940년대 곤양강 제방공사, 압록강방축공사, 대동강제방공사

전후복구건설시기 황해북도 황주군 광천벌,인포벌,석정벌,매성천의 제방공사

1957/1 평남도에서 하천정리,수리화,사태방지를 위한 조립사업

1957/8 개성시 개풍군의 풍덕벌의 500 ha(황강포부근):미세기피해 방지공사

1958/9 로동당 전원회의에서 100 만ha의 수리화공사,치산치수사업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전개

1966/10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 후 고인물빼기공사

황해남도 신악,재령 등 70 여개소에서 공사 실시

1966/11 후 70 여개소에서 고인물빼기공사 계속

1967/5 대동강의 모래퇴적방지를 위한 하천정리사업,상류지방에서 식수조립사업,사태방지,미광(微鑛)처리대책

1967/7 정주군에서 토사류입 180 만m³ 방지공사

1968/1 청천강제방공사,개천시 하천정리사업

1968/2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고인물빼기운동 완료선언(김일성저작집 22-16)

1968/3/15 교시 대동강하상파기공사,제방건설 합장강제방공사,순화강제방공사,보통강제방공사

1968/9

평양주변 하천정리 및 평양시의 수해방지대책
천청강과 대령강에서 하상파기, 제방공사

4. 서해안지구 치산치수사업에서 거둔 성과

① 사방공사 1 만km ② 야계공사 5800 km ③ 홍수에서 보호된 농경지 2500 ha, 전국적으로 16 만ha, 1966 년상반년 3200 여개소(양수능력 513 m³/s 배수로 5000 리, 하천정리 3700 리), 1967 년 안주평야에서 홍수방지공사, 1967/8/말 평양지방에서 대동강의 홍수방지공사, 1967~1968 10 만ha의 논에 고인물배수시설물 건설 ④ 하천제방 및 보수공사 4500 개소 7400 km ⑤ 산림보호토지 9800 ha ⑥ 호안림조성 350 km ⑦ 돌담쌓기 2600 개소 2000 km ⑧ 하상상승방지공사에서 700 만m³ 토사류입방지 ⑨ 저수지매몰방지 79 정미(町米) ⑩ 고인물빼기공사 1966 상반년에 전국적으로 3200 개소, 영수능력 513 m³/초, 배수로 5000 리, 하천정리 3700 리

(례) 대동강수계

길이 450.3km, 류역면적 20,247km², 제1 지류 37 개, 15km이상의 지류 110 개, 해발고도(상류일대) 1000~2000m, 중하류: 800m) 만곡결수 1.87, 기반암은 상류가 화강암, 석회암, 강수량 1000~1300mm, 산림비율(상류지역: 0.93, 산림축적: 450 만m³), 상류~중류지역-석회암 분포지대, 토양은 산악산림갈색토 및 산림갈색토가 4.8%, 충적지가 4.8%, 상류일대 사태 및 봉락, 중하류일대: 침식이 적다.

대책

① 모래잡이언제...경사가 급한 개울 ② 곡지대구조물건설...지류인 비류강류역의 양덕부근
③ 대저수지건설...중류지역 ④ 소규모의 치산치수사업...해안지대 ⑤ 수로정리, 하상파기...하 류일대

성과

사방공사...1700 ha	야계공사...3400 km	제방공사...1394 개소, 2800 km
보안림조성...2300 km	보호면적...86867 ha	도로건설...490 km
철도건설...70 km	농경지보호...700 ha	산림조성... 1700 ha
도로 및 철도... 40 km		

(례) 청천강수계

길이 217 km, 9552.6 km², 류역(산간지대: 87%, 평지대: 13%), 해발고도 1800~2000m, 상류지역은 작은 폭포, 좁은 곡지, 분지, 석회암분포 중류지대는 력(礫)이 분포, 지질은 주로 화강암지대, 류로는 구조선을 따라 형성, 토양(산악산림갈색토: 78.8%, 산림갈색토: 19.8%, 충적

지:2.4%), 식물피복은 비교적 좋다.강수량 1300 mm(동창,운산은 1400 mm),강수량이 많으므로 하천류출량은 많다.

대책은 상류…사태 및 골침식 방지 공사,중류…하각침식방지,사태방지공사,골막이공사,하류…하안보호공사들이다.

성과

사방공사…1200 ha, 야제공사…300 km, 제방공사…550 개소, 900 km, 보호림 23km 보호…농경지 2 만 3000 ha, 산림 1200 ha, 도로 100 km, 철도 40 km, 조수지용적 10 정미 (町米), 모래류실방지 18 만km²

III 북부내륙지구

1. 자연조건

(1)해발높이 평균 1000~1500m

(2)지형

1000m 이상의 고원 및 덕(棚地)이 많다:·개마고원, 백두고원, 무산고원, 백두삼천리별 ① 평탄지에는 풍화각이 두껍게 퇴적 ②토심이 깊다.곡지가 좁다 ③모암은 화강암, 현무암 ④식물피복이 약하다. ⑤강수량이 적다(후루최대 200~300mm) ⑥사태는 거의 없고 붕락,바닥침식이 진행 ⑦식물피복이 좋지 못한 곳(화전뒤자리 등)에서는 흠침식이 발생, 지피지대는…랑림,관모이며 또한 경동지괴이다. 요곡지는 해산,리원,고원지대는 제 3 기, 제 4 기초에 경동지괴가 뿔기, 용암대지의 곡지에 절벽을 형성

1500m 이상의 산맥이 고원을 들어쌓고 있다.백두산맥,함경산맥,부전령산맥,랑림산맥,련화산맥,북수백산맥

(3)지하수가 풍부하다.

표 5 서해안사방,야제 공사로 보호된 내용

	농경지 (ha)	산림 (ha)	철도,도로 (km)	저수지 (町米)	류사(流砂) (10 ³ m ³)
대동강	681	1690	42	13	2585
압록강	260	370	38	13	1796
청천강	480	1190	23	11	1896
혜성강	105	560	5	-	11
기타	1020	6020	60	30	500
계	2546	9830	168	67	6889

표 6-1 서해안의 하천보호

	제방길이 (km)	돌담길이 (石垣 km)	호안림 (km)
평 양 시	842	230	199
평안남도	1429	474	43
평안북도	1580	444	64
자 강 도	140	8	1
황해남도	1838	249	7
황해북도	1042	300	8
개 성 시	364	137	1
남 포 시	138	11	-
계	7373	1933	323

표 6-2 서해안의 하천보호

압 록 강	543	212	108
청 천 강	915	245	24
대 동 강	2800	812	223
례 성 강	574	177	4
계	4832	1446	359

(4)하천...전형적인 산악하천,상대적으로 용설함량이 높다. 북류하천은 압록강지류,두만강지류,장진강,부전강,허천강,서두수,리면수,고원과 용암대지를 흐르는 하천은 하각 침식작용이 심하다.

(5)지질,기반암...화강암,현무암

(6)경동지괴

(7)강수량 700~800 mm,기온이 낮으므로 증발량이 적고 습윤한 기후

(8)토심은 1m 정도이다.경사가 느리기때문에 얕다.

(9)식물은 아한대성수종이 많다.산림면적이 90%이상(조선의 산림축적의 50%)

2. 방침

치산치수사업의 기본은 흙막이,골막이,모래막이언제건설이다. 개마고원·남은 풍화각에 서심한 우곡침식막이,이것은 저수지저수량을 감소시키는것을 방지한다.백무고원에서는 우곡침식방지대책, 그리고 대흥단지대에서는 바람에 의한 토지류실방지의 방풍림조성이 요구되며 백두용암대지 및 주변지대에서는 풍식방지용 방풍림조성(폭 20~30m), 부속층의 사태방지, 먼침식,우곡이 발달한 지역의 공사

3. 대책

면침식막기,모래류실방지조절언제건설, 개마고원... 곡지침식방지공사 백무고원... 곡지침식방지공사 장진강,부전강,허천강...경사지의 흠침식방지대책 현재있는 수력발전소의 저수지의 사류...모라잡이언제 대홍단지역...방풍림조성 해산,갑산...곡지막기

4. 성과

(1)두만강연안의 사방,야계공사 720 ha가 완성되어 토지가 보호되었다.

①농경지 200 ha ②산림 720 ha ③철도 13 km ④모래류실방지 30 만m³

(2)하천제방공사 230 개소 300 km로 보호된 것

①호안림 150 km ②농경지 3680 ha ③도로 27 km ④철도 10 km

맺음

최근시기(1990년대 중반기 이후) 기후변동에 의하여 대홍수가 지구적규모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되는 경향이 보인다.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치산치수사업은 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8년 5월 4일이후 토지정리 22만 6044ha,새땅찾기 6123ha였다. 레컨데 강원도 3만ha(1998년),평안북도 5만ha(1999년),,황해남도 10만ha(2001년)였다. 현재는 평양시,평안남도,남포시에서 9만ha를 대상지로 삼아 추진중이다.전국적목표는 60만ha가 대상지로 된다.다음 2003년도 대상지는 황해남도,개성시,함경남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실시한 공사와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위험성있는 지역의 치산치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것이다.

(참고)

2002년 3월에는 <국토계획법>, 2003년 1월 26일에는 <하천법>이 제정되었다.

주체의 해외교포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 대한 사상리론연구(3)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리론—

손지원

오늘 세계에는 1억을 넘는 해외교포들이 있으며 그중 조선해외교포들은 550만명을 헤아린다.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원인은 서로 다르고 조선해외교포들의 발생원인도 서로 달라도 그들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온것은 바로 남의 나라 땅에 살아도 동화를 막고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였다.

그를 위해 조선해외교포들은 물론 세계의 해외교포들은 언제나 민족의 고유한 풍습과 전통, 그리고 민족문화를 고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오늘 해외교포문학예술앞에는 실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다.

해외교포문학예술의 본질과 성격, 사명과 임무는 무엇인가.(주해1) 문학예술 창작과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은 어떻게 고수하여야 하는가.(주해2) 그리고 전형은 어떻게 창조하며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동포들이 문학예술의 향유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또한 문학예술의 담당자들과 그 후비들을 어떻게 육성하는가 등 실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다.

해외교포들속에서 세대가 끊임 없이 교체된 오늘, 특히 자본주의나라에서 나서 자란 3세대, 4세대 교포들의 민족성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이론적문제들을 옳게 해명하는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해외교포문학예술사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 풍부화시키시여 현시기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어 있는 주체성을 고수하고 민족성을 구현할데 대한 문제와 함께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창작문제에 대하여 옳바른 해명을 주시였다.

론문은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창작리론의 본질과 그 방도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리론의 본질

문학예술을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게 창작할데 대한 문제는 조국과는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는 해외교포문학예술이 주체를 세워 동포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국에서 나서 자란 새 세대 청년교양에 복무하기 위하여 문학예술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나가야 하며 자본주의환경에서 사는 청년들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문

학예술을 어떻게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1970년대 초에 총련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주해3)

아버이수령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980년대 중엽 이후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재일조선인운동의 실태를 깊이 분석하시여 1986년 9월15일담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와 1992년 2월28일담화 《총련사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1992년 4월28일담화 《총련의 예술은 자기 특성을 살려야 한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서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히시여 주체의 해외교포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 대한 사상리론을 더욱 풍부화하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련은 어디까지나 자체의 실정에 맞는 형식과 방법으로 동포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바로 예술활동입니다. ...

총련예술은 동포들의 생활 환경과 조건에도 맞고 2세대, 3세대 동포들의 감정과 정서에도 맞는 형식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 150~15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에 대하여 밝히신 로작들에서 재일 조선동포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중요성과 거기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을 명철하게 밝히시여 해외교포문학예술은 그들의 실정과 사회환경에 맞고 감정과 정서에도 맞는 문학예술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가르치시였다.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리론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상리론의 본질은 바로 해외교포들의 특색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뚜렷한 문학예술을 창작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해당 해외교포들의 특색이 있고 그들만이 만들수 있고 들고 나올수 있으며 새 세대 동포들의 감정,정서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한다는것이다.

문학예술창작은 말 그대로 새로운것을 창조하는것이다. 따라서 문학예술은 자기의 얼굴, 특색을 살려야 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 색채가 뚜렷하여야 감동을 줄수 있다.

특히 사회제도가 다른 이국에서 사는 교포들의 경우 문학예술창작에서 조국의 본을 그대로 따거나 남의것을 모방한 작품을 창작하여서는 안된다. 동포들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참신하지 못하며 특색이 없는 문학예술은 감동을 줄수 없으며 발전할수도 없기때문이다.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문학예술은 따분하고 볼 재미가 없을뿐더러 공연하는 사람도 성수가 나지 않는다.

특색이 없고 남의 본을 딴 문학예술은 달리 말하면 도식이며 교조주의이다.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는 사상교양의 중요한 일익을 맡은 문학예술 창작과 활동에서도 매우 해롭다. 문학예술에서도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 조국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고 해외교포들의 특색을 살려 나갈데 대한 사상에는 바로 이러한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본질의 요구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창작리론의 본질은 두가지 요구를 가진다.

그것은 첫째로 문학예술의 형식과 방법을 해외교포들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게 다양하게 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조선예술인들의 공연을 보시고 하신 말씀에서 총련의 작가예술인들이 예술의 형식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필요가 없다. 물론 필요할 때는 조국의 예술단이 공연하는것처럼 할수도 있으나 조국에 올 때마다 매번 그런 식으로 준비하여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예술에서 기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내용을 놓치지 않고 사상성을 튼튼히 틀어 쥐여야 하지만 예술형식은 그 어떤 틀에도 구속되지 말고 자체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20세기 중엽, 애국의 1세들이 개척한 재일조선인운동은 그 운동이 심화 발전하는 속에서 세대가 교체되였다. 총련의 사업환경도 달라 졌으며 오늘 새 세대 동포청년들의 생활감정과 정서도 크게 변하였다.

무엇보다 사상의식과 생활감정에서 변화를 가져 왔다.

재일동포 3세대, 4세대들은 나라 잃은 망국노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순탄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하여 조국과 민족의 귀중함을 애국의 1세대들처럼 온몸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혁명의 대가 교체되는 기회를 리용하여 젊은 동포를 동요시키고 사상적으로 변질시켜 애족애국의 대가 이어 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 세대 동포교양은 더욱 절박하게 나선다.

다음으로 세대교체와 더불어 동포들의 정서에서도 변화가 일어 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재일동포들은 자본주의사회인 일본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조국인민들과는 달리 그들대로의 정서가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이국에서 나서 자란 새 세대 동포들은 1세대 동포들에게서 이어 받은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함께 자본주의 일본의 사회풍조속에서 키워 온 감정정서를 함께 가진다.

새 세대 청년들은 류창하고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고 유순하고 젊잖은 민족의 고유한 선물과 장단을 즐기면서도 자본주의사회에서 류행하는 서양식 문학과 예술을 저항 없이 받아 들일수 있는 정서적바탕이 있다.

그들은 우리의 가요와 민요, 우리 민족장단과 함께 록크와 뉴뮤직크의 선율을 거슬림이 없이 받아 들인다.

민족의 고유한 룰동만이 아니라 2박자의 기본장단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디스코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서양춤동작도 몸에 배어 있다. 그리고 섬세한 조선화만이 아니라 선전화, 유화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새 세대들은 인간미를 추구한 여성의 라체화도 저항 없이 받아 들인다.

그들은 또한 오늘 자본주의사회의 부패타락한 생활을 묘사한 문학작품도 읽고, 삼각편애를 비롯한 자본주의일본에서 실재하는 추잡한 인간관계를 텔레비존와 잡지를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매일처럼 접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전형적환경속에서 세계관이 서 나가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순에 찬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대기는 인간들을 보면서 자랐다. 하기에 그들에게 주는 문학예술작품들은 동화정책의 올가미속에서 민족성을 끝까지 고수하느냐 아니면 민족성을 버리고 영영 타민족으로 사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은 인간, 동포사회에서 애국의 참뜻을 깨닫고 성장하는 주인공,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국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새 세대 전형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풍만하고 옳바른 감정과 정서를 키워 줄수 있다.

레중한 몇가지 사실들은 바로 재일 동포청년들이 가지는 정서에서 무시할수 없는 내용들이며 정서교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사상리론의 본질적요구는 둘째로 문학예술의 내용에서 사상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학예술의 내용에서 사상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것은 곧 문학예술 창작과 공연의 내용을 우리의것을 가지고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우리의 지향과 요구에 기초하여 내용을 꾸린다는것이다.

내용에서 사상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것은 재일조선문학예술의 본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문학예술의 성격과 관련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학예술은 주체적인 사회주의민족문학예술이다.

이러한 성격은 그 내용을 우리의것으로 일관시킬것을 필수적요구로 한다.

문학예술이 내용에서 우리의것을 살려야 자기의 성격을 고수할수 있다. 자기의 근본성격을 확고히 고수하여야 애국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내용에서 사상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것은 다음으로 문학예술을 실정에 맞게 창작하는 목적과도 관련된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재일동포들을 단합시키고 교양하는 위력한 사상문화교양수단이다. 위력한 교양수단의 하나인 문학예술은 동포들의 사상감정과 생활환경에 맞게 실속있게 하여야 그 효과를 거둘수 있다. 즉 동포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작하고 공연하여야 그 사명을 다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총련에서는 정치강연 열번 하기보다 예술공연 한번

잘하는것이 더 낫다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재일조선인들의 생활환경으로 보아 총련에서는 조국에서처럼 동포들을 자주 모여 놓고 강연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동포교양의 무기인 문학예술의 역할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한다는 사상이 깃들어 있다.

정치강연 열번에도 못먹는 감화력을 지닌 우리의 문학예술은 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특색 있게 이바지하도록 동포들을 힘 있게 고무하며 민족성과 동포애에 기초한 화목하고 유족한 동포사회를 꾸려 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총련결성 이래 일찌기 없는 엄혹한 정세가 계속되는 오늘 우리 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해외교포문학예술은 그 내용에서 언제나 사상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해외교포운동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창작리론의 본질의 둘째요구가 있다.

2.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하기 위한 기본방도

주체의 해외교포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 대한 사상리론은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창작의 본질적내용과 함께 그 기본방도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히고 있다.

방도는 첫째로 문학예술담당자들이 언제나 문학예술의 내용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에서 예술의 형식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쓰는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술에서 기본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형식보다 내용이 기본이기때문에 내용만 짊어 쥐고 나가면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작품의 형식은 내용을 더 잘 표현하는데 철두철미 복종되어야 한다.

문학예술의 내용을 틀어 쥐고 나간다는것은 문학예술담당자들이 문학예술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고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의 내용을 틀어 쥐고 나가는것은 문학예술을 우리의것을 가지고 진행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기본방도는 둘째로 형식과 방법을 자체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창조해 나가는것이다.

우선 문학,음악,미술,연극을 비롯한 모든 문학예술의 창작과 공연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해 나가는것이다.

일본의 실정에 맞게 형식과 방법을 창조하는데서 자본주의 냄새를 좀 풍기는것은 효과적방도의 하나로 된다.(주해 4)

문학예술의 형식과 방법에서 자본주의 냄새를 좀 풍기도록 한다는것은 자본주의문학예술의 일부 형식과 방법들을 비판적으로 참고, 리용하여 동포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학예술의 형식과 방법을 다양하게 창조해 나가는것이다.

문학예술의 형상원천인 인간생활이 풍부해 지고 그 영역이 넓어 지는데 따라 문학예술의 형식과 방법도 다양하게 창조되어야 한다.

광복후, 공화국이 창건되어 반세기동안 재일동포들은 주권국가의 공민된 영예를 깊이 간직하여 세계해외교포운동의 주인으로 떳떳이 살아 왔으며 재일조선동포들은 애족애국운동이 심화되어 나가는 속에서 보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형식의 문학예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일본땅 곳곳에 사는 각계층 동포들의 생활이 어찌 다양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생활이 있는곳에 문학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다.

20세기 중엽 이후 대음악무용서사시,가극,영화,연극,소설,시가 등 다양한 문학예술형태가 개척되고 발전한것은 동포생활이 풍부해 지고 그들의 사상미학적요구가 높아 진 결과이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사상리론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 세대 동포들의 실태를 분석한데 토대하여 내놓으신 과학적인 사상리론이며 주체를 세울데 대한 요구를 문학예술분야에 구현한것이다.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주체를 세운다고 하여 자기의것만 좋다고 내세워서 안된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가운데서 긍정적인 면을 자기의것으로 만드는것도 바로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으로 된다.

총련에서도 일본문화와 예술에서 참고할것은 참고 해야 한다. 덮어놓고 부정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재일조선작가예술인들은 일본이라는 립지적조건에서 활동하고 있는것만큼 일본문화와 예술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자기의것으로 만든다는것은 주체확립의 요구의 하나이다.

주체는 곧 해외교포들의 특색이 있는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이처럼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게 창작공연할데 대한 사상리론은 자기의것만이 좋다고 내세우는것이 아니라 문학예술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며 자기의것으로 만들데 대한 주체확립의 중요한 요구를 구현한 정당한 사상리론이다.

이 사상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총련의 문학예술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사상교양수단으로서의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각계층 동포들과 새 세대 동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이 창작되고 있다.

특히 문학예술에 남아 있던 도식적이며 형식적인 낡은 틀이 점차 극복되고 재일동포들이 더 쉽게 리해하고 받아 들일수 있는 문학예술을 지향하게 되었다.

문학, 음악 분야에서 각계층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을 담은 대중적인 서정가요가 창

작되고 있는것은 구체적인 실례이다.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부드러운 선율과 예리하지 않은 따뜻하고 다정한 울림으로 사람들속에 널리 불리우는 서정가요는 오늘 사회주의조국의 명곡과 함께 동포사회에서 건전한 민족적 정서를 키우며 민족자주의식을 심어 주는 길동무로 되고 있다. 1세대동포들에게는 두고 온 고향의 노래가 있고 재일조선아동들에게 동요가 있듯이 청년들과 녀성들, 장년들 각계층 동포들이 요구하고 그들의 생활을 담은 노래가 다양하게 창작되고 있다.

대중가요 《300곡집》 대중가요집 《길동무》,《우리는 언제나》,재일동포 창작곡집 《우리 동포 널리리》와 개인가요 창작곡집들에 수록된 작품들에는 결혼식때 부르는 축복의 노래, 애국초소로 떠나는 졸업생들의 노래,우정의 노래도, 사랑의 노래도 있어 동포사회에서 건전한 민족적 정서를 키우며 민족자주의식을 심어 주는 다정한 길동무로 되고 있다.

문학과 음악 분야만이 아니라 무용, 미술, 연극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 세대 동포청년들의 사상감정에 맞고 그들의 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지향해 나갔다.

재일동포들의 사상감정과 생활감정에 맞는 군중문화사업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 서서 일본의 각 지역들과 각 지부, 분회 동포들이 조직진행한 군중 문화사업은 금강산가극단과, 가무단원들만이 아니라 조청, 청상회,류학동을 비롯한 열성적인 동포청년들과 녀성동맹원, 각급 학교 어머니회와 아버지회 회원들,수 많은 학생들의 참가밑에 줄기차게 벌여 지고 있다. 새 세기에 들어 서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의 계기가 다양하며 기획과 그 내용이 또한 참신하다.

《조선신보》(2001년.1월~12월)에 소개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만 하여도 185회나 되며 거기에는 1세로부터 4세의 우리 동포들만이 아니라 남조선의 래왕동포, 그리고 일본사람들까지 널리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신보에 게재된 그 많은 행사들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8만 6천 3백여명이나 된다.

해외교포들의 실정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작하여 공연하는 속에서 우리 문학예술은 새 세대 동포청년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들을 애족애국으로 불로 일으키는 힘 있는 무기로 되어 나가고 있다.

(주해 1) 문학예술의 본질과 성격을 옳바로 밝히는 문제는 모든 문학예술활동의 출발점이며 문학예술의 사명과 임무를 조건짓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필자는 《조선대학교 학보》 제17집 (2001.12.15 발행)에 게재한 《주체의 해외교포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 대한 사상리론연구》(1) -해외교포문학예술의 본질과 성격, 사명과 임무- 에서 이를 몇가지로 고찰하였다.

(주해 2) 해외교포문학예술의 운명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주체성을 고수하고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해외교포문학예술의 면모와 특징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다. 이 문제는 《주체의 해외교포문학예술 창조와 건설에 대한 사상리론연구》(2) -해외교포문학예술창조에서의 주체성과 민족성-에서 고찰하게 된다.

(주해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1973년 3월 19일 총련부의장, 재일조선인기자단과의 담화 《총련에서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사상교양사업을 잘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로작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2권 92페이지 참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담화에서 총련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총련의 실정에 맞는 영화를 만들데 대하여, 그리고 총련애국사업을 반영한 소설도 많이 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주해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2년 4월 28일 총련일군대표단,재일조선인예술단성원들과 한 담화 《총련의 예술은 자기 특성을 살려야 한다》(《재일본조선인운동과 총련의 임무》 151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번에 총련문화국장이 〈청춘가요련곡〉을 가지고 오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고 하는데 그런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총련이 일본이라는 자본주의의 한복판에 있는 조건에서 예술형식에서 자본주의냄새를 풍기면서 사상적내용에서는 우리의것을 가지고 할데 대한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재일조선예술인들이 조국에서 공연한 《청춘가요련곡》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춘가요련곡》을 두고 말한다면 당시로서는 그 형식과 방법이 매우 새롭고 참신하였다. 춤가락과 동작마다에 재일 동포청년들의 정서와 기호가 잘 반영되어 있었다. 음악형상에서도 새 세대 동포들의 미학적취미를 고려하여 다양한 물동을 주었다. 무대조명도 도식적인 낡은 틀을 마스었다. 이러한 형식과 방법들은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예술에서 흔히 쓰고 있는것들이다.

사회과학논문집 제 16 호

편집발행 在日本朝鮮社会科学者協會
中央常任理事会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FAX 03 (3816) 4335
e-Mail:sahyob@iris.ocn.ne.jp

편집발행 2003년 5월 12일

인 쇄 조선대학교 출판부
